연구보고서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 황남희 · 이선희 · 김주현 · 정순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발 행 일	2015년 12월 31일
저 자	정 경 희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주)범신사
정 가	8,000원

ISBN 978-89-6827-271-4 93330

발간사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 사회 영역별로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마련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더 중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모든 정책과 제도가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라는 엄격한 구분에 기초한 연령분리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구분체계에 기초한 것으로 고령화 시대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사회구성원리가 아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서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하도록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구성원리의 변화를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동안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령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기존의 연구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즉 한 사회는 연령분절성과 연령통합성이라는 양 극단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 어떤 사회는 상대적으로 더 연령통합적

인 성격일 수 있으며, 다른 사회는 좀 더 연령차별적 성격이 강한 사회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연령통합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담론 수준을 넘어서,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황남희 부연구위원, 이선희 연구원, 원외의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해 주신 본 원의 여유진 연구위원과 오영희 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모선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전문가 조사에 응해주신 전문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표 목차

부표 목차

그림 목차

Abstrac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Age Integration Indicator System

As th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our society is multi-dimensional,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population ageing with policies on older people alone. It has been discussed that changes should be pursued in social composition that not only concern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but also can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have 'elective affinity.'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an indicator system with which to examine the level of age integration in Korean society while presenting the age-integrated society as the model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pursue to create sustainability even in the process of the ageing of Korean society, and to maintain the high quality of life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reviews previous researches and some theoretical issues on age integration.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age integration indicator system composed on 3 components and 20 indicators, based on theoretical reviews and expert survey. The third,

based on these indicators, the actual status of age integration of Korea is reviewed based 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the US, Japan, Germany and Sweden and a time series comparison of main 5 indicators. The last part makes policy suggestions and priority setting toward an age-integrated society.

요 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각적이어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개발과 수행만으로는 고령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본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어,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와 양상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볼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한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 정도를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국내외의 연령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및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원 검토, 해외출장(독일과 일본)을 통한 해외 전문가와 의견 교환,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조사 등에 기초하여 3개의 구성요소와 9개 영역, 20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였다.

〈표 1〉 연령통합지표의 구성

구성 요소	영역	측정목표	개별지표
연령 유연성	1. 교육	연령에 의한 교육 기회의 정도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도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2. 경제활동	연령에 의한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1-3. 연령별 실업률**
		연령에 의한 안정적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3.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의 연령 보편성(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정치 참여의 연령 보편성(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문화여가활동의 연령 보편성(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연령 다양성	1. 가족	가족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정도	2-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다양한 연령의 가족성원간 상호작용 정도	2-2 가족교류 시간
	2. 일터	다양한 연령의 직장동료간 상호작용 기회	2-3.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3. 지역사회	연령간 상호작용의 물리적 기반(대중교통 접근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이동 및 활동에 있어 제한이 없을 때 다양한 연령 간의 상호작용 가능)	2-4.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구성요소	영역	측정목표	개별지표
		연령간 상호작용의 문화적 기반(각 연령군의 동등한 사회적 위상이 확보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 가능)	2-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연령집단간 사회적 통합(다양한 연령군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 가능)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연령 형평성	1. 건강	신체활동실천에 있어 연령별 차이의 정도 (신체적 건강의 대표지표인 만성질환의 경우 신체적 노화에 따라 경험률이 증대하므로 제외)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3-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2. 교육·정보화	인적자본 수준의 연령별 차이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정보 습득·활용 능력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3. 소득·주거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주거기본선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3개 구성요소	9개	20개	

주: 각 구성요소별 대표지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가용통계원이 있는 경우 시범적용해본 결과 도출된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투표참여를 제외하고는 연령장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연령장벽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연령다양성의 경우 가족, 일터, 지역사회 모두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가족의 경우 공식 교육과정에 있는 연령층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이는 가족 내의 연령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우 물리적 환경에 비하여 문화적 환경이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을 저해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층이 노년층을 사회적 위상이 낮은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다른 국가에 비하여 중년층 중심의 사회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령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정보화와 소득·주거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평등이 두드러진다. 교육 수준은 일정 부분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과 주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전반적인 국가간의 빈곤율 차이에 비하여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나, 그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3. 정책적 함의 및 과제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1) 평생교육을 포함한 정규교육과정의 연령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2)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노년층의 안정적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3) 자원봉사 관

련 활동과 문화 여가 활동에 중노년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4) 가족내 다양한 연령간 상호작용을 위한 세대간 이해 교육이나 교류의 장 마련, 5) 일터에서의 연령구성 다양화를 위한 30세 미만과 50세 이상 근로자의 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6) 전 연령군의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7) 노년층의 소득안정성과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8) 고령층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층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고령층의 능력고양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지표체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지속적인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론적 기반에 기초하고 현실을 반영한 지속적인 지표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세미나 등을 통한 다각적인 국제적 교류가 요구된다. 또한 각 개별지표의 정의에 정확히 상응하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연령통합,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사회지표, 삶의 질

제 1 장 서 론

1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 관심사는 복지정책 대상으로서의 노인으로부터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사회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였던 1999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긴 2000년,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가 개최된 2002년 등을 계기로 노인복지 대상이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복지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09)[1]. 또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각 사회 영역별로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한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수행방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수행되고 있다[2].

1)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의의 「한국경제60년사」: 사회·보건복지분과 편에 의하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단계는 요보호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기(1948~1961년), 노인보호사업의 실시(1962~1971년), 노인복지로의 전환 및 노인복지의 기반 마련(1972~1987년), 노인복지의 확충(1988~1997년), '고령화'의 사회적 아젠더로서의 정립(1998년 이후)으로 구분되고 있음.

2) 저출산고령기본계획은 5년주기로 마련되고 있고, 1차는 2006~2010년, 2차는 2011~2015년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3차 계획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마련과 더불어 근본적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이다(정경희, 2004; Riley & Riley, 1999). 사회적 지체현상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적절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지체현상은 연령분절적인 사회로부터 연령통합적 사회로 변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증가하는 노인의 규모와 확대되는 노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외에도, 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영역별 대응정책의 구현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는 문화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고령화 대응에 있어서 한 단계의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구성원리에 기반한 연령분절적인 사회이다. 즉,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를 구분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성은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축된 것으로,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엄격한 구분체계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엄격한 생애단계 구분과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개별정책들은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사회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각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령분절적인 정책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인구구성을 14세까지는 유년인구로,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한다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2026년에는

생산가능인구층 2명이 1명의 비생산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는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정경희, 2001).

Riley & Riley(1999)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대응이 미흡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동안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체계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연령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5년 기준 13.1%이며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정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체계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기존의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이지도 체계적이지도 못한 상황이다. 연령분절성과 연령통합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제의 각 사회는 연령분절적(Age Differentiated) 사회구조와 연령통합적(Age Integrated) 사회구조 양 극단의 연속선상의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론적 논의는 개념적 제시에 머물고 있어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와 양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연령통합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모색에 필요한 경험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사회는 상대적으로 더 연령통합적인 성격일 수 있으며, 다른 사회는 좀 더 연령분절적 성격이 강한 사회구조일 수 있기 때문에 연령통합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이 필요하다[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한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경험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령통합에 관한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연령통합지표의 적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연령통합수준을 점검해보고 연령통합 수준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령통합지표는 사회지표의 일종으로, 사회지표의 주요 기능인 사회의 상황을 기술하여 제시하고 미래의 사회문제와 생활상태를 예측하게 하는 사회보고적 기능(Social Reporting)과 더불어 정책의 지향성을 제시하는 정책적 기능(Social Engineering)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Land, 197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연령통합지표 개발에 앞서 연령통합의 개념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령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현재 연령통합 개념과 관련된 논의가 이론 및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둘째,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개별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셋째, 개발된 개별지표 중 가용한 통계자료원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원이 있는 경우 각 복지국가 유형별(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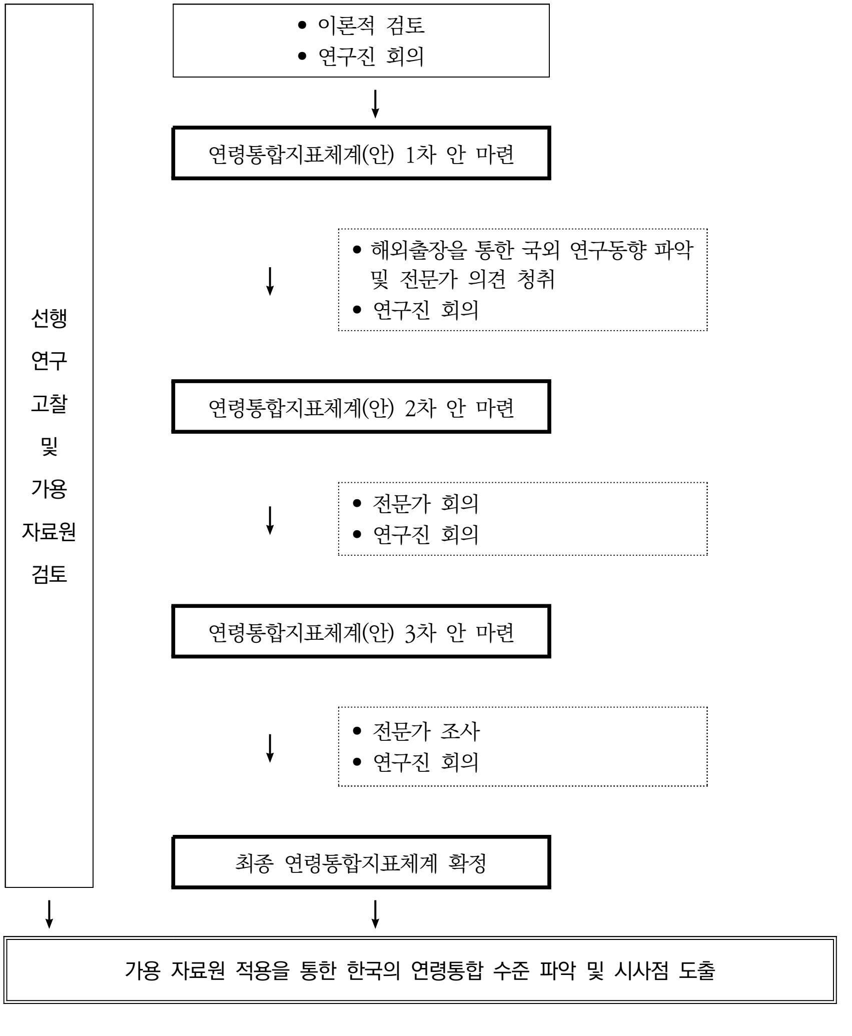
3) 이는 R. Merton이 주장한 '중범위 이론'적 접근과 통해 있음. 기존의 논의가 '거대이론'(Grand Theorizing)에 머물고 있어,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합하는 이론적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음.

로 대표적인 국가(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에 시범적용하여, 우리사회의 절대적인 연령통합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연령통합 수준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통계확보가 가능한 개별지표의 경우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여 연령통합 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와 지표체계의 완성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의 구현을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국내외의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이론과 지표개별 현황을 비교·검토하였다.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원을 파악하였다. 둘째, 해외출장(독일과 일본)을 통하여 해외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연구진이 개발한 연령통합지표체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넷째,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연령통합지표체계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적인 연령통합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파악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설문지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개발한 연령통합지표의 개별지표별 배경 및 정의를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전문가 조사는 38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29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개발된 지표체계를 영문화하여 연령통합관련 연구물을 발간한 바 있는 국외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본 연구를 알리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4)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분류에 기초함(Esping-Andersen, 1990).

〔그림 1-1〕 연구진행과정


선행 연구 고찰 및 가용 자료원 검토
• 이론적 검토
• 연구진 회의
연령통합지표체계(안) 1차 안 마련
• 해외출장을 통한 국외 연구동향 파악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연구진 회의
연령통합지표체계(안) 2차 안 마련
• 전문가 회의
• 연구진 회의
연령통합지표체계(안) 3차 안 마련
• 전문가 조사
• 연구진 회의
최종 연령통합지표체계 확정
가용 자료원 적용을 통한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제 2 장 연령통합 논의의 배경과 의의

2 연령통합 논의의 배경과 의의 《

본 장에서는 연령통합이라는 주제가 논의된 배경을 이론적 발달과정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통합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검토하여 본 연구가 나아갈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1절 연령통합 논의의 배경 및 의미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은 사회통합이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현상이 한 사회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사회구성원리로 연령통합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이론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으며(Kohli, 1988; Riley & Riley, 1999), 이론적 도전에 대한 응답의 한 형태가 연령통합이라는 개념이다. 이러한 연령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의 논의는 개인과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이해하려는 이론적 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Dannefer, 2011). 즉, 이전 단계와는 달리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연령이라는 요소가

개인의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이는 개별 구성원과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 제도, 규범간의 부조화 현상을 부각시키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과 사회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연령이라는 변수가 중요하게 작동하게 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구조가 갖고 있는 제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인구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을 야기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Bonoli, 2005; Huber & Stephens, 2004; Lewis & Giullari, 2005; Pierson, 2001; Taylor-Gooby, 2004).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하여 충분한 연금을 갖지 못한 채로, 혹은 필요한 보살핌을 어떤 형태로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길어진 노년을 살아가야 하는 취약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한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시급해졌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국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리의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전에 구축된 근대 복지국가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변화와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변화 역시 요구되었다. 또한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breadwinner Model), 즉, 남성이 임금소득자로 가족임금을 벌어들이고 여성은 집안에서 무급으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가족모델을 규범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나 성역할 분담 구조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구성원에 기초하여 국가를 재구축할 필요가 제시되었다[5].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구성원리 중 하나가 유연성이며(Riley, Kahn & Foner,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에 따라 복지국가에 사회서비스의 강화라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자세한 논의는 정경희 외(2006)에 기술되어 있음.

1994),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구조적 지체 현상(Structural Lag)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회구조와 규범이 인구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즉, 인구고령화와 기존의 사회구조는 '선택적 친화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인구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와 친화력을 갖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에 관한 논의의 맥락 속에서 연령차별적 관행이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관계를 맺는 원칙'으로(Lockwood, 1964),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신뢰감과 호혜성을 기초로 공동체성을 유지해감으로써 개인이 전체에서 배제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이재열 외, 2014; 홍영란 외, 2003).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합은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령자가 사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으로 인하여 위협받게 되었다(강정연·김윤정, 2011; Riley, 1998; Uhlenberg, 2000a)[6]. 즉,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이 한 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통합 논의에 있어서 연령 주류화(Mainstreaming)가 인구고령화 시대에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7].

한편 통합이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은 세대통합이라는 주제로도 발전되

---

6) 일반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과 통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인 논의는 강신욱 외(2006; 2012)와 정해식 외(2014)를 참고할 것.

7) 이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유사한 맥락의 논의임.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 북경)에서 채택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의 여성정책을 뛰어넘어, 일반 정책까지도 기존 제도의 성차별적 부당성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궁극적으로 성 평등성을 정책에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전반적인 젠더 구조의 전환을 목표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음(김경희 외, 2009; 2010; 한정원 외, 2008).

고 있다.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세대통합은 여러 세대 혹은 연령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홍영란 외(2013)는 세대 간의 상호이해 능력의 함양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대통합과 대척점으로 관념적 갈등, 권력 갈등, 배분적 갈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세대갈등을 정리하고 세대통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홍영란 외, 2014). 또한 세대관계는 갈등과 조화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지만 어떤 특징이 어떤 조건에서 더 발현되는가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는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도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시사점을 갖는다(성경륭, 2015; Lowenstein, 2007). 또한 Vanhyusse(2013)는 아동 1인당 정부부채, 아동빈곤, 노인편향 사회지출로 구성된 세대간 정의 척도(Intergenerational Justice Indicators)를 통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27개 국가의 세대간 정의 실현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최유석(2015)은 본 지표가 각 국가의 고령화 수준 및 복지국가의 성장단계에 따른 정부부채의 축적과 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기존의 논의는 노년기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의 대척점에 있는 연령주의(Ageism) 맥락에서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나이든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차별로 정의되는 연령주의(Butler, 1987)의 개념은 Palmore와 동료들(1988; 1999; 2001; 2004), 김주현(2012)의 연구 등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인차별이 억압의 한 형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김욱, 2002; 박경숙, 2004),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과 노동지위의 불리함, 노인에 대한 부

양부담과 의존성, 부정적 감정들로 인한 노인과의 갈등 및 학대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차별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연구들(김동선, 2011; 원영희, 2005; 정경희 외, 2009, 2014)과 노인에 대한 이미지 및 태도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윤경, 2007; 한정란, 2000; Macnicol, 2006).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차별 현상에 대한 이해와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어 노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연령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적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령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한 발 나아가, 구조적 지체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경험적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해본다는 의의를 갖는다.

셋째, 삶의 질에 관한 논의의 흐름 속에서 연령통합의 논의가 이해될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요인만으로는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해있다(Land, 1975). 삶의 질의 의미와 개념정의는 학자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지만, 경제적 상태와 더불어 건강, 사회적 접촉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Eurostat, 2015).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도 하며(주경희, 2011), 생활수준, 행복감 등과 유사한 용어로도 이해되고 있다. OECD가 개발한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의 경우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11개 영역으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OECD, 2011)[8].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노년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연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최혜지 외, 2015a).

한편 UN(2012)이나 미국(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012), 뉴질랜드(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07)와 같은 개별국가에서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연령통합의 개념을 반영한 삶의 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삶의 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서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삶의 질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삶의 질에 관한 논의에서도 연령 주류화(Mainstreaming)가 이루어져야만 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관점이 모두 반영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통합 논의는 노년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분리이론(Cumming and Henry, 1961)[9]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대두된 생산적 노화론(Productive Ageing)의 수정·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생산적 노화에 관한 논의는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노년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며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에 있어서 연령장벽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령통합론은 이러한 논의를 단지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의 증가를 기반으

8) 본 지표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36개국 중 27위임. 지표를 통해 한국의 사회발전 정도를 정리한 정해식·김성아(2015)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음.
9) 분리이론(Cumming and Henry, 1961)은 노년을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철회(mutual withdraw)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음.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 생물학적 쇠퇴에 직면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며, 사회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노인의 자리를 젊은이로 교체하고 노인을 은퇴시키는 것이 사회의 유지에 기능적이라고 보고 있음. 이러한 분리이론은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고 노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생산적 노화론을 좀 더 확장하고 있다는 의의도 갖는다.

제2절 연령통합의 개념

1. 연령통합의 구성요소

Riley 외(1994)는 연령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서 연령분절적 사회구조와 연령통합적 사회구조는 이념형으로 각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현실에 있어 완벽하게 연령분절적이거나 연령통합적인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연령통합성의 구현 정도는 다양하고 한 사회 내에서도 영역별로 연령통합 정도는 상이할 수 있다.

한편 연령통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Riley & Riley, 2000)[10]. 첫째 요소는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으로, 그 정도는 그 사회에서 연령이 얼마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령통합적 사회는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연령장벽이 없는 상태는 연령통합적 사회의 필수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두 번째 요소인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다양성의 정도는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다양한 연령간 상호

10) 연령통합사회의 특성과 구성요소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정경희(2004)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진 바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지표개발에 있어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함.

작용을 통하여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완화될 수 있으며,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없을 때 각 조직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포함될 수 있어 각 조직 내의 연령 경계가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사회의 연령통합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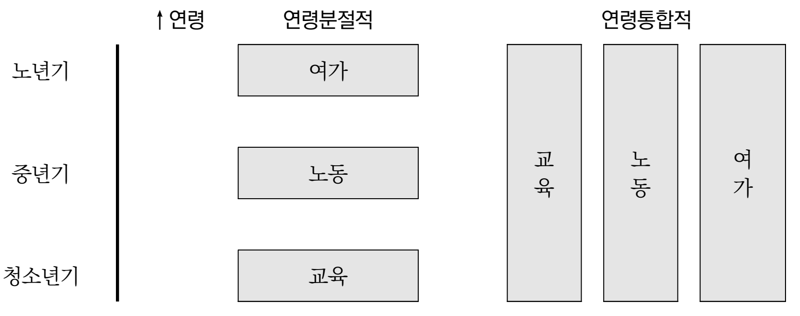
연령유연성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에 의하여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유연한 삶을 의미한다. 즉,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생애동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체계가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일터에서의 연령장벽이 유연화되며, 가족관계 또한 다세대 친족구조로 변해가는 현상들이 한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의 증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연령장벽의 유연화는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취약집단의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연령유연성은 지금까지의 연령차별적 사회에서 보장되었던 안정감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즉, 단지 노인이기 때문에 부여되었던 다양한 특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불안감은 공적 안전망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확보되어온 저소득 노인층에게 더 클 수 있다. 반면 모든 연령층에게 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증대시키며 기술, 교역, 건강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지구적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강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Riley & Riley, 2000).

한편, 연령다양성은 연령, 코호트 등이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의 충족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연령

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고령화는 기존에는 많이 접할 수 없었던 고령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한 개인이 일생동안 접촉할 수 있는 연령층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좀 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상태나 축적된 경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적 시대나 문화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사회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하겠다.

〔그림 2-1〕 사회구조의 이념형



자료: Riley et al. (1994). *Age and Structural Lag.*

〈표 2-1〉 연령분절적 사회와 연령통합적 사회의 특징

연령분절적 사회	연령통합적 사회
연령에 따른 교육, 일, 여가의 엄격한 구분체계	교육, 일, 가족시간,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개인의 생애동안 적절히 조정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체계

2. 연령통합의 기대효과

연령통합이 인구고령화와 선택적 친화력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 지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되는 것은, 연령통합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Uhlenberg, 2000b)[11].
첫째,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연령통합은 생애주기의 유연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특정 삶의 단계에서는 특정 활동을 해야 하는 삶, 즉,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Kohli가 삶의 '연대기화(Chronologization)'나 '생애주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Life Course)'로 일컫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Kohli, 1988). 즉,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사회구조의 수동적인 존재로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중년기, 은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하여 구축된 모든 정책과 제도에 순응하여 따라가는 존재가 아닌,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서 교육, 노동, 여가의 세 요소를 전생애에 걸쳐 자유롭게 구성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있다.

둘째, 사회의 연령차별적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의 증대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차별주의의 한 형태로 특정 연령층에 대한 부정적 관점, 현실과 괴리된 편견을 일컫는 관점인 연령차별주의(Ageism)(Palmore & Manton, 1973)는 어느 연령층에나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편견의 주요 대상은 노인층인 경우가 많으며(Levin & Levin, 1982; 원영희, 2005에서 재인용), 억압의 한 형태로 작용한다(Laws, 1995; Young, 1990). 이러한 연령차별주의는 연령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연령 스

11) 본 내용은 정경희(2004)에서도 소개된 바 있음. 본 연구의 논의에 필요한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하고자 함.

테레오 타입과 편견이 저하될 수 있다(Uhlenberg, 2000a).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신체적 노화와 사회화된 의존성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 욕구가 없으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신체적인 노화에는 개인별, 집단별 차이가 크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9; Moen 2001). 더불어 노인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의존성을 갖고 있어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으며(정경희 외, 2001), 다양한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정경희 외, 2009).

셋째, 노년기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연령유연성을 통하여 일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제한이 완화된다면 노년기에도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Uhlenberg, 2000a). 이러한 연령통합의 결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생산적인 참여는 노인에게만 혜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킨다. 즉, Cumming & Henry(1961)의 분리이론(Disengagement Theory)이 주장한 것처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생활만족감 증진, 사회의 기능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수발과 같은 다양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도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연령통합성 제고를 통하여 자원분배와 관련한 사회갈등이 저하될 것이며, 이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집합의식을 강화하여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즉, 연령통합이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촉진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인 가족 내 성역할 모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Spitze & Loscocco, 2000). 현재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의 원인은 산업시대와 연령분리적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온 성별 역할분업의 와해에 있다. 급격한 성별 역할분업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일과 가족의 갈등을 경험하고 역할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Hoschild & Machung, 1989). 연령통합적인 사회에서는 일이 전 생애에 걸쳐 배분될 수 있어 일과 커리어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가족역할의 집중기와 겹치지 않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동향과 주요 관심사

노년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The Gerontologist*[12)]에서는 2000년 연령통합을 주제로 한 포럼을 기획하여 12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본 포럼은 1988년 Matilda Riley와 Jr. John Riley에 의하여 구성되었던 몬트리올 국제 사회학회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사회학대회에서 제기된 연령통합 관련 논의를 발전시킨 성과물이기도 하다. 1988년을 기점으로 하여 활성화된 연령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Riley, Kahn & Foner(1994)의 단행본 *Age and Structural Lag*과 Riley & Riley(1999)의 논문을 통하여 정리된 바 있다. 2000년의 포럼

12) 1945년에 구성된 미국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에서 발간하는 격월지 학술지로 1961년부터 발간되고 있음.

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기획되었다.

이 포럼을 통하여 Uhlenberg는 연령통합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인 환경으로 제시된 것은 가구와 이웃, 일, 교육, 정치, 보건의료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ttias-Donfut(2000)는 세대간의 문화적·경제적 이전(Transfer)을 연령통합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으며, 가족 내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의 통합을 통하여 노인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거나(Uhlenberg, 2000a; 2009), 공적영역 및 가족에서의 시간 및 경제적 자원의 세대간 이전과 관련된 논문들(Albertini & Kohli, 2013; Hogerbrugge & Komter, 2012; Kohli, 1999, 2004, 2005; Kohli, Albertini & Kinemund, 2007), 개인적 연계망의 연령분절적 현상을 경험적으로 검토한 연구(Uhlenberg & Gierveld, 2004),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통합(Henretta, 2000)이나 정당과 노조활동에서의 연령통합에 관한 고찰을 실시한 연구(Kohli, 2000)들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연령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정경희, 2004; 정순둘 외, 2012; 최혜지 외, 2015a), OECD 국가비교를 통하여 노인 연령통합의 좌표와 유용성을 살펴본 연구(최혜지 외, 2015b) 등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와 관련해서는 가장 밀접한 연령통합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정순둘 외, 2015)도 실시된 바 있다.

제4절 시사점

연령통합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기본적인 논의가 정리된 후 이론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작업보다는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경험적 검토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영역이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구조적 대응으로서의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조적 지체 현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각 사회의 연령통합사회로의 진전을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지표개발의 출발점으로서 연령통합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령통합의 구성요소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두 요소가 연령통합을 측정함에 있어 충분한 것인지 여부와 추가되어야 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 진전하는 과정 속에서 연령분절적 제도로 인하여 보호를 받았던 일부 노인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경험적 연구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현상이기 때문에 연령통합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관련된 유일한 연구인 정순둘 외(2015)와 최혜지 외(2015b)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정순둘 외(2015)의 경우는 전문가 조사를 통한 연령통합 척도 개발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척도체계를 구성함에 있

어 전체 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나 개발된 척도의 적용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혜지 외(2015b)의 연구는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국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하고는 있으나, 지표자체가 노인의 시각에서 연령통합의 수준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 구성원의 관점이 아니라 노인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연령통합 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각 국가의 연령통합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수단인 지표를 개발하여 경험적으로 적용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제 3 장 지표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지표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연령통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공표된 지표체계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연령통합 지표체계 구성 방향 및 개별지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절 관련 지표체계 검토의 틀

지표관련 선행연구를 제2장에서 살펴본 논의를 반영하여 분류해보면 〈표 3-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세대 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령통합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같은 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자적으로 개발된 연령통합 지표는 부재하다. 단, 기존 연령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령통합 척도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정순둘 외, 2015),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표체계 개발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로는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국외에서는 OECD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에서 발간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가 대표적인 것이며, 국내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사회지표가 있다. 일반적인 지표이지만 이에 고령화라는 맥락을 반

영한 연구로는 국외에서는 고령화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고령화 대응 준비지수(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이하 GAPI)와 정홍원 외(2012)의 고령화 대응지수가 있다.

이외에도 연령통합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사회통합, 연령주의나 연령차별과 관련된 연구들이 존재하며, 그 밖에도 삶의 질 지표가 개발된 상황이다.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국외에서는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회응집지수(Social Cohesion Index),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사회배제지수(Social Exclusion Index)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강신욱(2005, 2006)을 비롯한 다수의 사회통합 지표개발 시도들이 있다.

한편 노인들을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게 하는 연령차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발 작업이 국외에서는 Palmore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김주현(2012)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은 연령통합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볼 수 없으나, 연령통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전 연령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하였다. 삶의 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표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표로 구분되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에는 OECD의 BLI가 대표적이고 국내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들 수 있다. 한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표로는 국제기구 및 NGO를 통해 개발된 활기찬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이하 AAI), HelpAge의 세계노인지표(Global AgeWatch Index)와 국내의 경우 개별 연구로 정경희 외(2012)의 지표가 있다.

〈표 3-1〉 지표관련 지표체계 검토의 틀

구분	일반적 논의		고령화의 맥락		노인대상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사회지표	- UN의 Social Indictors - UNDP의 HDI	-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 CSIS의 GAPI	- 정홍원 외 고령화 대응지수	-	-
사회통합	- Council of Europe의 Social Cohesion Index - EU의 Social Exclusion Index	- 노대명 외, 강신욱 외 국내의 사회통합 지표개발 연구	-	-	- Palmore 등, 연령차별 척도	- 김주현 등 연령차별 척도
삶의 질	-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	-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	-	- UNECE & European Commission의 Active Ageing Index - HelpAge의 Global AgeWatch Index	- 정경희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절 관련 지표체계 검토

1. 사회지표 일반

가. 일반

1) 국외

가) OECD의 Social Indicators

OECD는 사회 불평등, 사회통합 및 구성원의 건강수준 등 사회발전의 변화 방향 및 향상 정도에 대한 계량적 증거 마련을 위하여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2001년부터 제시해왔다. OECD 사회지표는 보건,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사회이슈 전반을 반영하여 그 사회의 사회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사회지표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PSR))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 사회상태(Social Status),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맥락은 직접적인 정책적 대상과 관련된 사회적 여건, 사회상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결과, 사회적 대응은 사회상태 지표가 미치는 파급효과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한편, 사회지표에서 살펴보는 정책 분야는 자족(Self-sufficiency), 형평성(Equity), 건강상태(Health Status),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네 측면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지표의 구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OECD의 Social Indicators

		정책영역				
		일반지표	자활	형평성	건강상태	사회통합
지표성격	-	- 국민소득 - 출산율 - 이민 - 가족부양률 - 노인부양률				
	사회환경					
	사회상태		- 취업률 - 실업률 - NEETs[1]	- 소득불평등 - 빈곤율 - Living on benefits[2] - 장기실업자 수혜율	- 기대수명 - 주관적 건강상태 - 자살률 - 의료보장률	- 삶의만족도 - 관용 - 정부 및 금융기관 신뢰도 - 안전 및 범죄율 - 상호원조
	사회적 대응		- 기대은퇴 연령 - 교육비지출	- 공공사회 지출	- 총보건지출	

주: 1) NEETs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f Training의 약자로 취업 연령대이면서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을 뜻함.
2) 식료품 구입에 필요한 충분한 돈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OECD(2014), *Social Indicators 2014.*

나)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1990년부터 활용된 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이하 HDI)는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통해 인간개발 성취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즉, 국가별 기대수명, 국가별 교육 수준, 국가별 생활수준의 세 측면에 해당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기하학

적 평균을 통해 수치를 산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 교육 수준의 경우, 평균 교육연수 및 기대 교육연수가 2010년부터 새로이 지수 도입에 추가되었으며, 국가별 생활수준은 1인당 GDP(또는 GNI)를 통해 산출하고 있다.

2) 국내: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지표』를 1979년 이후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분야 파악을 통해 각종 사회개발 정책 계획 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 및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하였으며,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다문화가구 등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사회의 새로운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표체계에 대한 4차 개정이 진행되었다(통계청, 2014). 이후 지표수가 아닌 통계표 수를 공개하고 있다(2014년 현재 총 266개의 통계표 제시). 각 영역은 인구, 건강, 가구(가족), 교육, 노동, 소득 및 소비, 주거 및 교통, 환경, 안전, 문화여가, 사회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대영역	하위영역	통계표수	대영역	하위영역	통계표수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이동	12	주거/ 교통	주택공급관리 주거상황 주택시장 주거의질 교통시설 교통체계 교통비용 교통복지 교통환경	33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시스템	16	환경	오염물질배출 자연자원이용 생활환경 생태환경 환경관리	31
가구/ 가족	가족,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26	안전	자연재해 안전사고 안전의식과 평가 범죄 형사사법활동	31
교육	교육기회 교육조건, 과정 교육효과	25	문화/ 여가	문화여가생활기반 문화예술활동 여가체육활동 미디어활용	24
노동	인적자원 취약계층취업현황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노사관계	21	사회 통합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사회적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장	25
소득/소비	소득 소득분배 소비, 물가 저축, 투자 조세, 재정	22	-	-	-

자료: 통계청(2015). 2014 한국의 사회지표 보도자료(2015. 03. 19.)

나. 고령화 맥락

1) 국외: CSIS의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국제전략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이하 CSIS)가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이하 GAPI)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총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도를 평가하고, 204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별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GAPI는 크게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의 적절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는 3개의 범주와 7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3-4〉 CSIS의 GAPI

영역	범주	지표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공적 부담	총급여수준 지표: GDP 대비 노인공적급여 비율(2007~2040)
		급여변화 지표: GDP 대비 공적급여 비율의 변화(2007~2040)
	재정적 여유	조세여유 지표: 2040년의 GDP 대비 정부수입의 비율
		예산여유 지표: 2040년의 정부지출 대비 노인에 대한 공적급여 비율
		채무여유 지표: 2040년의 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
	급여 의존성	급여비중 지표: 평균 노인소득 중 공적급여의 비율(2007~2040 기간중의 평균)
		급여삭감 지표: 공적급여를 10% 삭감할 경우 빈곤상태가 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노후 소득의 적절성	총 소득	소득수준 지표: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2040)
		소득추세 지표: 2007~2040 기간 중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의 변화
	소득의 취약성	중위소득 지표: 2040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공공의료급여를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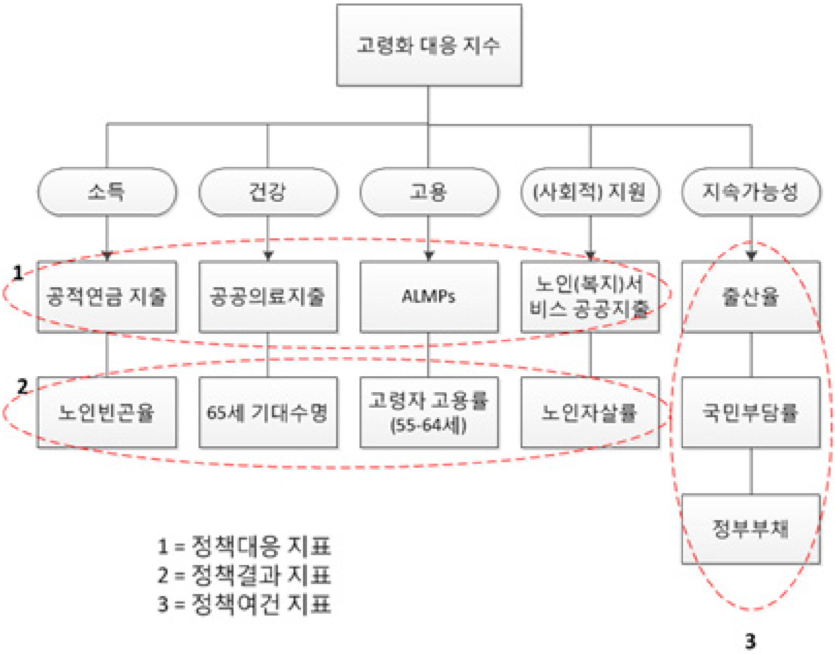
영역	범주	지표
		중위소득추세 지표: 2007~2040 기간 중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변화, 공공의료급여를 제외함
		빈곤수준 지표: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가구의 비율(2007)
	가족 지원	가족결합 지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가족규모 지표: 노인세대와 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의 변화(2007~2040)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 국내: 정홍원 외의 고령화대응지수

정홍원 외(2012)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 대응정책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 바 있다. 본 지수는 크게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노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생애주기 위험(Life-course Risks)에 대한 대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고령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에 대해서 국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는 중·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지원과 근로능력의 소진 후 공적연금 등에 의한 소득보장 정책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후자의 경우는 나이가 듦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고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의료보장과 요양 및 독거노인 지원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등이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 포함된다.

〔그림 3-1〕 정홍원 외의 고령화 대응지수



자료: 정홍원·남상호·이윤경·정경희·박보미 외(2012).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통합 관련 지표

가. 국제기구

1) Council of Europe의 Social Cohesion Index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은 개인의 권리보장 및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Council of Europe에 따르면, 사회통합이란 사회 구성원간 격차를 줄

이고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를 의미한다(Council of Europe, 2005). 사회통합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가지 차원은 공평한 접근성, 개인 및 집단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사회통합의 지표 및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보장이며 이를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이해당사자간 책임 공유, 삶의 기본요소간의 통합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보장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갈등에 대한 비폭력적 해결, 시민의 웰빙을 위한 권리 실현의 평등, 차별 배제, 존엄 및 인정, 자율성 및 개인의 발전, 참여 및 헌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영역 내 이해당사자간 책임 공유를 위해서는 목표의 공유, 책임공유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시민권, 협력적 접근과 민주적 기술, 개인 및 공동체의 웰빙 증진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 등이 전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지표에서는 삶의 기본요소로서의 유대, 신뢰, 집합적 지식과 소속감, 가치, 감정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3-5〉 Council of Europe의 Social Cohesion Index

사회통합 구성요소(목표)		핵심요인
삶의 질	공동체수준	갈등에 대한 비폭력적 해결, 평화
	개인적, 개인간수준	시민의 웰빙 - 권리 행사의 평등/차별 배제 - 존엄/인정 - 자율성/개인의 발전 - 참여/시민적 헌신
삶의 영역 (이해당사자간 책임공유)	모두의 웰빙을 위한 책임 공유의 일반적 조건	- 웰빙이라는 목표의 공유: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 책임공유의 방법: 시민권, 협력적 접근과 민주적 기술 -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경제

사회통합 구성요소(목표)		핵심요인
삶의 기본요소 (통합성)	유대	전통적 유대 또는 경제적, 제도적 체제를 교차하는 연대
	신뢰	신뢰의 세 가지 차원 - 스스로 및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 - 제도, NGO, 기업에 대한 신뢰 - 미래에 대한 신뢰
	집합적 지식과 소속감	공유된 지식과 집합적 인식
	가치	시민적 가치 - 정의감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 연대감, 사회적 책임감 - 관용/타인에 대한 관심, 손내밀기
	감정	자발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따른,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따른 개인적 만족감

자료 : Council of Europe(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 Methodological guide,* p.57; 강신욱 외(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p.52 재인용.

2) EU의 Social Exclusion Index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 정상회담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 관련 논의를 기점으로 EU내 국가들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김안나, 2007). 이를 바탕으로 2000년 EU 내의 사회보호위원회(Social Protection Committee)에서 수행된 사회적 배제지표(2001)는 각 회원국들의 사회적 배제 철폐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수립된 공동의 지표체계이다. 지표는 총 18개로 1차지표와 2차지표로 나누어진다. 1차지표(10개)는 중요영역에 대한 소수의 핵심지표, 2차지표(8개)는 핵심지표를 보완하는 지표로 각 국가의 행동계획과 관련되며, 대부분의 지표는 빈곤과 실업에 집중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표 3-6〉 EU의 Social Exclusion Index(Primary)

구분	지표	측정
1a	빈곤율 -연령/성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 비율 - 연령대: 0~15, 16~24, 25~49, 50~64, 65+
1b	빈곤율 -경제활동상태별	- 중위소득 60% 이하 16세 이상 인구 중 주된 경제활동 상태별로 본 빈곤율(임금근로, 자영업, 실업, 은퇴, 비경제활동인구 등)
1c	빈곤율 -가구유형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 비율 - 30세 이하 1인가구, 30~64세 1인가구, 65세 이상 1인가구, 2인무자녀 성인가구, 미성년자녀와 성인가구 등
1d	빈곤율 -주거형태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사는 사람 비율 - 자가, 임대
1e	빈곤선	- 빈곤선 액수(중위소득 60%) - 단독가구,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소득분포	- 소득배율: 상위20% 대비 하위20%의 소득점유율
3	빈곤지속성	- 3년간 지속적으로 중위소득 60% 미만가구에 속하는 사람수
4	상대적 빈곤격차	- 빈곤선 이하 소득자의 중위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차이
5	지역적 응집도	- 지역간 취업률의 편차
6	장기실업률	- 전체 경활인구 중 ILO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
7	실업가구의 가구원수	- 실업가구에 사는 0~65세 가구원수
8	학업중퇴자율	- 18~24세 사이의 중등교육 또는 그 이하의 교육을 받고 현재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동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율
9	평균기대수명	- 출생당시의 평균 기대 수명
10	소득수준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	- 소득 상위20%와 하위20%집단에 속하는 16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WHO정의에 따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정의한 사람의 비중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호, pp.19~20 재인용.

〈표 3-7〉 EU의 Social Exclusion Index(Secondary)

구분	지표	측정
1	빈곤 산포	- 가구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50%, 70% 이하에 살고 있는 인구
2	특정시점 빈곤율	1995년을 기준으로 - 1997년 상대적 빈곤율 - 1994/96년 물가인상분을 고려한 1995년 상대적 빈곤율
3	이전소득 이전 빈곤율	빈곤율 -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 - 연금포함한 소득 - 모든 공적 이전소득 이후
4	지니계수	- 로렌츠 곡선을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산출
5	지속빈곤율 (중위소득 50%이하)	- 지난 3년간 최소 2년 이상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가진 소득자의 비율
6	장기실직자 비율	- 전체 실직자 중장기 실직자(12개월 이상 실직상태 있는 인구)의 비율
7	극장기 실직자 비율	-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장기 실직자(24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율
8	저학력 비율	- 연령 집단별(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로 ISCED[1] level 2 혹은 그 이하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주: 1)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Education)이란 1970년대 초 UNESCO에서 개발한 국제비교를 위한 표준적 교육단계로 0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음. ISCED 2단계는 교육년수로는 9년 정도 되는 낮은 중등교육 수준에 상응함.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호, pp.19~20 재인용.

나. 국내: 노대명 외(2010)와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지표

국제기구 외에도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였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국내연구의 주안점은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 중,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언급된 논의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노대명 외

(2010)와 강신욱 외(2012)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대명 외(2010)는 사회통합 지표를 사회통합 상태지표와 조건지표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태지표는 시민사회 통합과 시민사회와 정부통합의 측면에서 주관적, 객관적 요소를 나누어 세부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조건지표는 기본지표와 추가 검토지표로 구분하여 절대적 박탈의 개념과 상대적 격차의 개념에서 세부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단, 일부 지표의 경우 반복적 지표생산이 어렵거나 국가마다 동일한 지표생산이 어려운 관계로 국가간 비교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의 영역을 사회적 결속,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사회적 결속은 사회통합의 결과와 맞닿은 개념으로 총 10개의 객관적·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선거참여, 선거 외 참여, 정치관심도, 사회참여, 집단 간 관계, 관용, 일반신뢰, 기관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등이 해당한다. 한편, 사회적 안정성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며 안전과 건강의 하위범주로 구분된다. 각각의 하위범주는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안전에는 1인당 GDP, 부양비, 자살률, 건강에는 이산화탄소배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인식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형평성은 불평등, 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보호정도, 공공보건의료지출 비중, 공공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의 지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사회통합지수를 파악하였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와 차이를 두고 있다.

〈표 3-8〉 국내 사회통합 관련 연구(1): 노대명 외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주관적 요소</th><th>객관적 요소</th></tr>
<tr><td rowspan="2">상태
지표</td><td colspan="2">시민
사회
통합</td><td>- 시민에 대한 일반 신뢰
- 다른 사회집단의 사람을 포함한, 동료시민과 협력 및 도움에 의지
- 소속감, 정체성</td><td>- 사회참여와 시민사회의 활력
- 자원봉사 및 기부
- 주요집단간 연합 및 괴리여부</td></tr>
<tr><td colspan="2">시민
사회
정부
통합</td><td>- 공적 인물에 대한 신뢰
- 정치 및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 소속감, 정체성</td><td>- 정치참여(투표, 정당 등)</td></tr>
<tr><td rowspan="8">조건
지표</td><td rowspan="5">기본
지표</td><td>소득</td><td>- 빈곤율
- 근로빈곤율
- 박탈지수</td><td>- 소득배율
- 중산층 비중</td></tr>
<tr><td>고용</td><td>- 실업률
- 저임금근로자 비율</td><td>-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성별/학력별/규모별 임금격차</td></tr>
<tr><td>교육</td><td>- 학교진학률/미진학률
- 중도탈락학생비율</td><td>- 사교육비 격차
- 소득계층별 학업성취도 격차</td></tr>
<tr><td>건강</td><td>- 의료소외층
- 의료비 과부담가구 비율</td><td>- 소득계층별 질환발생률
-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자부담액</td></tr>
<tr><td>주거</td><td>- 주거상실계층 비율
- 자산빈곤율</td><td>-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 소득계층별 자산격차</td></tr>
<tr><td rowspan="3">추가
검토
지표</td><td>가족</td><td>- 이혼율/자살률</td><td>- 소득계층별 이혼율/자살률</td></tr>
<tr><td>금융</td><td>-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 부채상환연체율</td><td>- 소득계층별 부채비율/부채상환 연체율</td></tr>
<tr><td>정보</td><td>-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td><td>- 소득계층별 인터넷미활용인구 비율</td></tr>
</table>

자료: 노대명 외(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9〉 국내 사회통합 관련 연구(2): 강신욱 외

영역	지표	
사회적 결속(10개)	- 선거참여 - 선거 외 참여 - 정치적 관심 - 사회참여 - 집단간 관계	- 일반 신뢰 - 기관 신뢰 - 부패 인식 - 관용 - 생활만족도
사회적 안정성(6개)	- 1인당 GDP - 부양인구비율 - 자살률	- 1인당 CO_2 배출량 - 기대수명 -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형평성(7개)	- 소득불평등 - 빈곤율 - 고용률 - 실업률	- 고용보호의 정도 -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 공공사회지출 비중

자료 : 강신욱 외(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p.11.재인용.

3.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

연령주의나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Palmore의 척도와 이를 국내외에서 활용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김지연 외, 2012a; 2012b; 김주현, 2012; 정순둘 외, 2015; Palmore, 1988; Fraboni et al.,1990). 관련 연구들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해, 노인 혹은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연령주의나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의 경우, Palmore의 척도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및 번안하여 진행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독자적인 지표를 개발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Palmore는 연령차별 조사(Ageism Survey)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을 개발하였

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단, Palmore(1988)의 척도는 노인에게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령층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Palmore, 1988; 정순둘 외, 2015 재인용). 한편, Fraboni 외(1990)는 기존 연령주의와 관련한 척도들이 노인의 인지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한계를 지적하며, 노인을 향한 차별적 행동과 노인을 회피하고 싶은 소망을 반영한 도구인 연령주의 척도(FSA)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Butler의 노인차별주의 정의에 기초하되, Allport(1954)가 제안한 편견의 다섯 수준 중, 적대적인 말, 회피, 차별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여 총 29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Fraboni et al.,1990; 김지연 외 2012a 재인용).

국내에서는 원영희(2005)의 연구에서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가 있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무시, 기피, 소외의 3개 요인에 대해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를 구성하였다. 한편 김주현(2012)은 보다 다차원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연령차별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인식, 차별행동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및 신뢰도분석 등을 통하여 총 7개의 하위요인 및 2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에는 노화에 대한 인식으로서 노화에 대한 불안, 외모변화에 대한 태도 요인, 노년에 대한 긍정적 기대 요인 등이 포함된다(김주현, 2012). 김지연 외(2012a)는 앞서 언급한 Fraboni 외(1990)의 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비노인세대인 대학생을 표본으로 이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서적 회피, 차별, 고정관념의 3요인으로 구성된 18문항의 척도를 완성하였다(김지연 외, 2012a). 이외 세대간 갈등에 착안하여 비노인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위협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위협, 가치관 위협, 정치적 위협의 3요인으로 구성된 위협인식 척도가 개발되

기도 하였다(김지연 외, 2012b). 각 연구의 개요와 다수 연구의 근간이 된 Palmore의 척도와 Fraboni 등의 FSA 척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0〉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 관련 국내외 연구

구분	국외	관련 척도	주요내용
국외	Palmore(1988)	- Facts on Aging Quiz (노화사실인지척도)	- 연령차별조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대한 내용으로 연령주의 측정 - 60세 이상 노인 대상
	Fraboni et al.(1990)	-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 노인을 향한 차별적 행동 및 노인을 회피하고 싶은 소망을 반영
국내	김주현	- 연령차별 척도	- 노화불안, 노인에 대한 인식, 차별행동 등이 포함되도록 연령차별 문항 구성
	김지연 외(2012a)	- FSA 수정 및 보완	- Franoni et al.(1990)의 척도 수정 및 보완 - 비노인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회피, 차별, 고정관념의 3요인 척도 구성
	김지연 외(2012b)	- 노인세대 위협인식 척도	- 비노인세대의 노인세대에 대한 위협인식을 측정하도록 경제적, 가치관, 정치적 위협의 3요인으로 위협인식 척도 구성
	원영희(2005)	-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	- 무시, 기피, 소외의 3개요인에 대해 총20개 문항으로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 구성

〈표 3-11〉 Palmore의 Facts on Aging Quiz와 Fraboni 등의 FSA

Palmore(1988)의 Facts on Aging Quiz(노화사실 인지척도)의 구성항목
- 노인(65세 이상)의 대다수는 노화증상을 보인다. - 노인의 대다수는 성욕이 없다. - 신체적 능력이 점차 퇴화한다. - 노인의 80% 정도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 있다. - 노인의 최소 1/10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다. - 노인운전자들은 65세 이하 운전자보다 사고발생률이 적다. - 고령근로자는 젊은 층에 비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 노인의 대다수는 변화에 수용적이지 않다. - 노인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반응속도가 느리다. - 노인의 대다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소외된다. - 노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비참하다고 느낀다. - 노인의 대다수는 빈곤층이다 등
Fraboni et al.(1990)의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 10대 자살은 노인보다 더 비극적이다. - 노인들을 위한 지역 운동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몰래 숨겨 놓는다. - 대부분 노인들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관심이 없는 대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 많은 노인들은 과거 속에 산다. - 나는 때때로 노인과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 나는 노인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 노인들은 우리사회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 노인들과는 복잡하거나 즐거운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 노인들의 일상 대부분의 감정은 우울함이다. - 노인들은 그들 연령대의 친구들을 찾아야 한다. - 노인들은 젊은층과의 사회적 교류를 환영해야 한다. - 나는 노인그룹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 노인들은 매우 창조적이다. - 나는 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주어서는 안 된다. - 많은 노인들은 그 나이에 가장 행복하다. - 노인들은 누군가를 귀찮게 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 - 노인들이 많은 회사는 즐겁다. - 노인들은 요즘 우리사회에 대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 노인들의 정치적 발언을 독려해야 한다. - 대부분의 노인들은 흥미롭다. - 대부분의 노인들은 위생에 취약하다. - 나는 노인들과 살고 싶지 않다. -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불만이 많다. - 노인들은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치 않다.

4. 삶의 질 관련 지표

가. 전체 국민의 삶의 질 관련 지표

1) 국제기구

가) OECD의 BLI

OECD의 BLI는 2009년부터 진행되었으며, 물질적 생활조건(주거, 소득, 직업) 및 삶의 질(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의 차원에서 전반적인 웰빙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OECD는 BLI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11개 영역에 대하여 각각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웰빙지표를 작성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본인의 웰빙지수를 자유롭게 평가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BLI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 및 주관적 지표를 합하여 총 25개 지표로 구성된다. 이제까지 공표된 값을 통해 시계열 변화 및 국제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OECD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United National Statistics 등의 공식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표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3-12〉 OECD의 BLI

영역	지표명	정의
주거	주거관련지출	·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본시설이 있는 가구	·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 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인당 방수	·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소득	가구당 금융순자산	·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현금, 채권 및 주식 등)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직업	직업안정성	·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년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수 대비 비율(지표변경)
	개인소득	·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고용률	·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장기 실업률	· 노동인력에서 1년 이상 실업상태(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율
공동체	지원관계망의 질	·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교육	기대교육기간	· 5살 어린이가 평생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기간
	학생들의 기술	·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교육 성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율
환경	수질	·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대기의 질	·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마이크로 그램) 농도
시민참여	규칙제정에서의 협의	· 규제를 도입할 때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composite)한 지표
	투표 참여율	· 실제 선거인구의 선거등록 인구에 대한 비율
건강	자기보고 건강상태	·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건강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
	기대수명	·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삶의 만족	삶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10;매우만족~0;매우불만족)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안전	살인율	·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의도적인 피살자 수
	범죄피해율	· 과거 12개월 내 범죄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비율
일과 삶의 균형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 전국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에 사용한 시간
	장시간 근로자	·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율(자영업자 제외)

자료 : OECD(2014). *Better Life Index 2014.*

나) 국내 :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국제적 흐름과 발맞춰 통계청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강조하는 삶의 질은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인지 및 평가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지·평가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통계청, 2014).

2014년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하여 12개 영역 81종의 지표를 선정하여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지표 70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크게 물질부문(4개 영역)과 비물질부문(8개 영역)으로 나뉘며, 객관지표 57종, 주관지표 24종으로 구성되었다.

물질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은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로 나뉘며, 객관 및 주관지표를 합하여 총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21개의 지표만 공개되었다. 비물질부문은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59개의 지표로 구성되나 현재 신뢰성 검증을 이유로 49개만 공개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13〉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주관지표
물질부문	소득 소비 자산	-	1인당GNI, 균등화중위소득, 균등화중위소비, 가구평균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고용 임금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평균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 만족도
	사회복지	-	공적연금가입률,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용, 개인부담 의료비비중	-

영역		하위영역	객관지표	주관지표
	주거	-	1인당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 통근/통학소요 시간,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주거환경만족도
비물질부문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주관적 건강평가, 스트레스인 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유치원 취원율,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 참여율, 학업중단율	-
		교육자원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교육성과	PISA 백분위순위, 대졸생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만족도
	문화 여가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 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1인당평균 국내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비용지출	-
	가족 공동체	가족관계	가족접촉빈도	가족관계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
		사회적 관계	자살률, 사회적관계망	-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소속감
	시민 참여	정치 참여	투표율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시민적 의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시민적 덕목
		시민적 권리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발생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아동안전사고사망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산업재해율, 화재발생건수, 도로사망률	-
	환경	에너지	에너지 빈곤층 비율	-
		대기	미세먼지 농도	-
		물	하수도 보급률	-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비율	-
		기후변화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불안도
		환경의질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체감 환경 만족도
	주관적 웰빙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정서, 경험의 균형

자료 : 통계청(2014).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2014. 06. 30)

나. 노인 삶의 질 관련 지표

1) 국제기구 및 NGO

가) UNECE & European Commission의 AAI

AAI는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과 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공표되었다.

AAI는 정책입안자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단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 즉, 가족, 사회,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의 참여 증진과 노인이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AI는 4개 영역(고용, 사회참여,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안전한 생활환경, 활기찬 노화를 위한 제반환경 마련)내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노인집단(주로 55세 이상)의 활기찬 노화와 관련된 지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각각의 지표는 성별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모든 지표는 정(+)의 방향으로 해석되며, 최소 0점에서부터 최대 100점 내 값을 부여받는다.

〈표 3-14〉 UNECE & European Commission의 AAI

구분	영역	지표	측정내용
내용	고용	고용률(55세~59세)	고용률(55세~59세)
		고용률(60세~64세)	고용률(60세~64세)
		고용률(65세~69세)	고용률(65세~69세)
		고용률(70세~74세)	고용률(70세~74세)
	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율	55세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율 (최소 1주일 1회 이상)
		자녀(손자녀) 부양률	55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부양제공률 (최소 1주일 1회 이상)
		노인 부양률	55세 이상의 노인(장애가족) 부양제공률 (최소 1주일 1회 이상)
		정치적 참여	55세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정치활동 참여율
	독립적, 건강 및 안전한 생활환경	신체운동	55세 이상의 신체운동정도
		의료서비스 접근성	55세 이상의 병의원(치과) 접근성
		동거형태	75세 이상의 동거형태(독거, 부부 등)
		상대적 중위소득	65세 이상의 중위소득
		노인 비(非)빈곤	65세 이상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지 않는 비율
		노인의 물질적 비박탈	65세 이상 중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
		물리적 안전	55세 이상 중 밤에 인근지역 이동시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
		평생학습	55세~74세 중 평생학습 참여비율
	활기찬 노화를 위한 제반환경 마련	55세시 기대수명	55세시 기대수명
		55세시 건강수명	55세시 건강수명
		정신적 안녕	55세 이상의 정신적 건강상태
		ICT(정보통신기술) 사용정도	55~74세 중 ICT 사용비율 (최소 1주 1회 이상)
		사회적 연결망 접촉정도	55세 이상 중 친구, 친적, 동료 등 1주 1회 이상 접촉 비율
		교육기회	55~74세 중 2·3차 교육 비율

나) HelpAge의 Global AgeWatch Index

HelpAge는 노인의 빈곤 탈피, 차별 배제 등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 강화 활동을 펼치는 NGO로 Global AgeWatch Index를 통해 노인의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및 우호적 환경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이를 살피고 있다. 소득보장 영역에는 4개의 지표, 건강상태에는 3개의 지표, 역량 영역에는 2개의 지표(기존 고용과 교육에서 '역량'으로 변경), 마지막으로 우호적 환경은 4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총 13개의 지표로 구성되었다.

지표를 통해 각 국가들의 노인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간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소득보장 영역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연금소득보장, 노인 빈곤율, 노인의 상대적 복지충족률, 1인당 GDP를 통해 이를 살펴본다. 건강상태 영역은 60세의 기대수명, 60세의 건강수명, 심리적 안녕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역량 영역에는 노인의 고용률 및 교육 수준을 통해 소속된 사회에서의 권한 행사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호적 환경 영역은 Gallup World View를 통해 사회적 연계망, 신체적 안전, 시민권, 대중교통 접근성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가용자원 등이 제대로 구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표 3-15〉 HelpAge의 Global AgeWatch Index

영역	지표	측정내용
소득보장	- 연금소득보장	- 65세 이상 연금수급 비율
	- 노인빈곤율	- 60세 이상 중위소득 이하 비율
	- 노인 소득충분성	- 60세 이상과 그 외 인구집단의 지출대비 소득충분성
	- 1인당 GNI[1)]	- 1인당 GNI
건강상태	- 60세의 기대수명	- 60세의 기대수명
	- 60세의 건강수명	- 60세의 건강수명
	- 상대적 심리적/정신적 웰빙	- 50세 이상 중 삶이 의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35~49세 연령군과 비교한 비율
역량	- 노인의 고용률	- 55~64세 인구 고용률
	- 노인의 교육 수준	- 60세 이상 2차 및 고등교육비율
우호적 환경	- 사회적 연계망	- 50세 이상 중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계망이 있는 비율
	- 신체적 안전	- 50세 이상 중 야간 혹은 거주지 보행시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
	- 시민적 자유	- 50세 이상 중 선택의 자유에 만족하는 비율
	- 대중교통 접근성	- 50세 이상 중 대중교통 접근성에 만족하는 비율

주: 1) 2014년까지 1인당 GDP를 측정하였으나, 한 국가의 경제적 부를 더 정확히 측정하는 개념으로 GNI가 적합하다고 간주하여 2015년부터 변경됨.
자료: HelpAge(2014). *Global AgeWatch Index 2014 Report.*

2) 국내: 정경희 외(2012)의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대다수 연구가 고령화 사회로의 도입시점인 2000년대 초반에 집중(이가옥 외, 2000; 정경희 외, 2002; 최수정, 2002)되었음을 감안하여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정경희 외(2012)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경희 외(2012)는 궁극적으로 노인이 사회에 통합되고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고 있는 사회를 노인의 삶의 질이 구현된 사회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입 정도와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표체계는 기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여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 정책적 차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노인 삶의 질 관련 구성요소별 영역을 재설정하여 노인의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노인의 물리적 안전, 노인의 경제상태, 노인의 건강, 노인의 사회참여 영역과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이외에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영역이 설정되었다. 즉, 총 7개의 대영역과 21개의 중영역, 4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지표는 총 146개로 해당 영역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구분되었다.

〈표 3-16〉 정경희 외의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대영역	중영역	개별지표	
인구사회학적배경	인구동향	노인인구비	노령화지수
		노인가구비	평균수명
		노인부양비	건강수명
		노령화지수	연령별 사망률 및 사망원인
	재정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규모	노인의료비 비율
		공공사회복지지출 대비 노인복지지출 규모	공동모금액 대비 노인복지배분액 규모
		노인복지지출의 구성	-
	시설기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독거노인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 만명당 노인복지관 수	노인 만명당 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대영역	중영역	개별지표	
		노인 만명당 경로당 수	노인 만명당 치매상담센터 수
		노인 만명당 노인교실 수	노인 만명당 시니어클럽 수
	인식	노년기 희망 거주형태	노인에 대한 차별인식
		노인복지정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노인연령기준
		부모 노후부양에 대한 견해	-
사회심리적 안정	사회심리적 안정	노인의 행복감	노인자살률
		노인의 자아존중감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의 계층의식	노인의 범죄피해율
		노인의 사회에 대한 신뢰도	노인 범죄율
개인자원 및 가족사회관계	개인자원	노인의 교육 수준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족관계	노인의 결혼상태	노인의 배우자와의 정서적 유대
		노인의 생존 자녀 수	노인의 별거자녀와의 접촉 빈도
		노인의 생존 형제자매 수	노인의 자녀와의 지원의 교환
		노인의 가구형태	노인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노인의 배우자와의 활동 공유정도	노인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사회관계	노인의 친한 친구·이웃 수	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에 대한 만족도
		노인의 친구·이웃과의 접촉 빈도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도
		노인의 외출빈도 수	노인의 이웃에 대한 만족도
물리적 안전	거주환경	노인의 주택소유율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경험률
		노인의 주택유형	노인의 가정 내 불편한 환경존재율
		임대주택분양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율	노인(가구)의 주거만족도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율	노인가구의 비자발적 주거이동률
		노인의 가정안전장치 설치율	노인가구의 슈바베 계수
	교통환경	노인의 교통사고 부상률	노인의 안전교육 이수자 수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	저상버스 도입 달성률
		노인의 자가운전율	도시철도 E/S 및 E/V 설치달성률

대영역	중영역	개별지표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험률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실버존 설치 수	-
경제상태	소득	노인의 월평균 가구 균등화소득	노인의 상대빈곤율
		가구소득 중 노인개인소득의 비중	노인의 비소득 빈곤율
		노인의 개인소득 구성	노년기 소득불평등(지니계수)
		노인의 절대빈곤율	-
	자산 및 부채	노인의 자산소유액 및 구성	노인의 자산 대비 부채규모
		노인의 소득·자산 소유 유형	노인의 주 부채사유
	지출	노인가구의 가구지출액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성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	-
	소득 안전망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 및 평균 수급액	노인의 개인연금 수급률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노인의 퇴직연금 수급률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비율	노인 중 주택연금 수급자 수
		절대빈곤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호율	-
건강	건강수준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등록장애인 비율
		노인의 IADL 제한율	노인의 월간 와병경험률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유병률	노인의 치매유병률
		노인의 낙상경험률	노인의 우울증 비율
		노인의 영구치우식 유병률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별 비율
		노인의 시력보조기(안경) 사용률	노인의 주관적 저작불편호소율
		노인의 청력보조기(보청기) 사용률	-
	건강관리	노인의 흡연율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의 과음주율	노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노인의 운동실천율	노인의 치매 조기검진율
		노인의 영양관리 필요율	노인의 암검진 수진율
		노인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대영역	중영역	개별지표	
	건강정책	노인의 공적 장기요양보호율	노인의 연간 입원율
		노인의 치매 진료율	노인 1인당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
		만성질환관리제 등록노인 수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만족도
		노인의 2주간 외래이용률	노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노인의 미치료율(병의원)	-
사회참여	경제활동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노인의 시간당 평균 근로임금
		노인의 경제활동이유	공공 노인 일자리 수
		노인의 종사직종	노인의 경제활동만족도
		노인의 종사상 지위	-
	사회참여	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	노인의 투표참여율
		노인의 자원봉사욕구충족률	노인의 사회기부율
		노인자원봉사단체 수	노인의 사회참여만족도
	여가문화활동	노인의 평생교육참여율	노인의 여행경험률
		노인의 평생교육욕구충족률	노인의 평균여가시간
		노인의 단체활동참여율	노인의 종교활동참여율
		노인의 공연문화향유율	노인의 여가문화활동만족도

자료: 정경희 외(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95~107. 재인용.

제3절 시사점

지표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누구의 관점에서 지표를 구성하고 개발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개발된 지표체계의 지향성이 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토결과 사회지표 일반은 사회구성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 사회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연령을 주류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한편, 연령차별에 초점을 둔 접근은 노인의 관점에서 개별

지표를 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단지 연령으로 인하여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삶의 질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과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연령을 주류화하는 것을 본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연령통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정홍원 외(2012)는 정책대응, 정책결과, 정책여건으로 지표를 구분하여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대응과 정책여건에 비하여 정책결과가 시계열 및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현황을 파악·평가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 조응도가 높다고 판단되었다. 정책여건과 정책대응 방법에는 각 사회의 특수성과 역사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Vanhyusse (2013)이 개발한 세대간 정의 척도에서 정책대응과 정책여건에 초점을 둔 결과 각 국가의 고령화 수준 및 복지국가의 성장단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이는 각 국가의 적절한 세대간 정의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시사하는 점이기도 하다.

셋째, 영역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이다. 교육, 소득, 건강, 다양한 사회참여(경제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등)와 가족이 그러한 영역이다. 더불어 가치관과 지역환경이 사회지표체계보다는 사회통합이나 삶의 질에 관한 지표에서 강조되는 경향이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지표체계 개발에는 교육, 소득, 건강, 다양한 사회참여(경제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등)와 가족,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치관을 주요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논의하였다.

제 4 장 연령통합지표 개발

4 연령통합지표 개발

본 장에서는 연령통합지표의 개발과정과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들을 살펴본 후, 최종 연령통합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방향과 주요 구성내용을 서술하고, 각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지표 개발과정

1. 기본 방향 설정

연령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맥락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표를 개발하였다. 첫째, 연령통합 개념을 구성하는 기존의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에 추가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기반하여 개별지표를 개발한다. 한 사회가 연령통합사회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연령분리성을 감소시키고 연령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도 연령통합의 개념과 지표개발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둘째, 노인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의 전 구성원의 관점에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연령통합의 개념을 지표개발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가 노인의 시각에서 개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연령통합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라는 관점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더불어 연령통합지표 체계를 구성하고 개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사회통합과 삶의 질의 제고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개발된 지표체계가 다양한 정책적 활용도를 갖도록 한다.

2. 개발과정 개요

연령통합지표 개발 과정은 〈표 4-1〉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13]. 연령통합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과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1차 안을 마련하였다. 1차 안은 8개 영역(고용,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건강(건강보장 및 건강상태), 교육, 사회참여, 가족(공동체), 문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차원, 주관적 인식을 세부영역으로 하여 총 90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1차 안의 경우 연령통합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개별지표를 개발한 후 구성원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선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개별지표의 수가 많다. 또한 연령통합의 주요 구성원리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고 전 연령층에 적용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차이 또는 차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개별지표, 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위상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개별지표, 다른 시기와는 달리 노년기에만 부여되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개별지표, 세대교류와 관련된 개별지표 차원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고 있다.

13) 각 안 외에도 연구진이 논의하고 수정한 다양한 대안들이 있었지만 주요한 변화가 이루어진 안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함.

〈표 4-1〉 개발과정 및 단계별 연령통합지표 체계 개요

	주요 연구방법	주요 특징	지표체계 개요
1차 안	- 이론적 검토 - 연구진 회의	- 4개 지향성 : 전연령층, 노인의 사회적 위상과 취약성에 대한 배려, 노년기 과업, 세대교류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차원, 주관적 인식 -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모두 포함	8개 영역 90개 개별지표
2차 안	- 해외출장을 통한 국외 연구동향 파악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연구진 회의	- 4개 구성요소 :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연령취약성 - 주관적 지표의 최소화	4개 구성요소 15개 영역 32개 개별지표
3차 안	- 전문가 회의 - 연구진 회의	- 3개 구성요소 :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3개 구성요소 9개 영역 20개 개별지표
최종	- 전문가 조사 (38명 대상, 29명 응답) - 연구진 회의	- 3개 구성요소 :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3개 구성요소 9개 영역 20개 개별지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1차 안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출장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한 후(부록 1 참조), 이를 반영하여 2차 안을 마련하였다. 2차 안은 4개 구성요소로 연령통합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거쳐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연령취약성의 4개를 연령통합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비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주관적 지표는 각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제도발전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논의결과 2차 안은 4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15개 영역에 32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3차 안의 경우 연령취약성이라는 요소는 여전히 노인의 관점에서 본 연령통합지표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연

령형평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삭제하였다. 또한 어떠한 시기나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3차 안으로 확정된 연령통합지표는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이라는 3개 구성요소 하에 9개 영역, 20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확정한 3차 안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통합 및 연령차별 등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를 포함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9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14]. 전문가 조사 설문지는 구성요소의 중요도, 개별지표의 수정보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수준에 대한 평가와 제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부록 3 참조).

전문가 조사 결과 3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모두 적합하다는 평가(5점 만점에 연령유연성 4.75점, 연령다양성 4.5점, 연령형평성 4.04점)를 내리고 있어 유지하였다(부록 2 참조). 또한 각 개별지표에 대해서는 '3세대 가족의 비율'(5점 만점에 3.24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3.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영역이나 지표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활용시 유의할 점 등은 각 개별지표에 대한 설명(제3절 참조)에 반영하였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 구현율'의 경우 지표의 구체성이 낮다는 지적과 더불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통일된 항목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연령통합적인 물리적 환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별지표인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로 대체하였다[15].

---

14) 2015.8.31.(월)~2015.9.6.(일) 기간 중 38명에 대하여 이메일 발송 후 유선연락을 통한 설문조사 독려 및 회신율 중간점검을 통한 유선연락을 통하여 설문지를 취합하였음. 응답률은 76.3%이며, 응답자의 성별구성은 남성(31.0%), 여성(69.0%), 학계 전문가가 62.1%, 연구기관 근무자가 37.9%임. 또한 최종학위후 현재까지의 평균 기간은 16.0년임.

신체적인 저하로 인한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연령다양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역명칭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지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고용」은 「경제활동」으로, 「공동체」는 「지역사회」로, 「교육 및 정보화」는 「교육·정보화」로, 「소득 및 주거」는 「소득·주거」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령통합지표는 연령통합을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의 3개 구성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 구성요소별로 영역을 설정한 후 개별지표를 제시하였다. 연령유연성에는 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3개 영역에 7개 개별지표, 연령다양성은 가족, 일터, 지역사회의 3개 영역에 6개 개별지표, 연령형평성의 경우는 건강, 교육·정보, 소득·주거의 3개 영역에 7개의 개별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즉, 9개 영역에 20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최종 연령통합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절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15) 유니버셜 디자인 구현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된 바 있음.

구 분		내 용
사용성 및 편리성	사용자의 물리적 측면 사용성	사용자의 신체적 부담에 대한 배려를 하였는가?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는가?
		다양한 처지 사용자 특성이 고려되어 있는가?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 사용성	사용자에게 적합한 기능과 편리성을 제공하는가?
		사용 방법을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는가?
	사용상의 안전성 및 오류에 대한 방지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였는가?
사용자의 감성 및 심리적 측면 만족도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할 때 흥미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는가?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감성적 배려가 이루어졌는가?
		형태가 독창적이고 완성도 있는 디자인이 이루어졌는가?
사회 문화적 측면의 기여	사회 문화적 측면의 기여	새로운 사회 문화적 요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가?
		차별감을 배제하고, 평등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가?
	환경적 특명의 기여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이 고려되어 있는가?
경제성 및 타당성		적절한 가격과 제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는가?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고려가 되어 있는가?
인간중심적 디자인 규정 및 시스템		사용자 중심의 개발구조로 이루어져있는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자료: 경성대학교 유니버셜디자인연구센터. 유니버셜디자인 평가지표 VER 2.0

〈표 4-2〉 단계별 연령통합지표(안)

1. 1차 안

대영역	세부 영역	개별지표	지향성			
			전 연령층 (차이/차별)	노인 (사회적 위상)의 취약성 배려	노년기 과업	세대 교류
경제활동 (노동)	(거시적 환경) 제도	사회보험적용률	○			○
		고령자고용률		○		
		고령자기준고용률 미만 비율		○		○
	(미시적 차원) 고용현황	경제활동 참여율	○			
		고용률	○			
		취업자평균임금소득	○			
		취업자 산업별 구성비	○			
		취업자 직업별 구성비	○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			
		실업률	○			
		장기실업자 비중	○			
		근로시간	○	○		
		저임금근로자 비율	○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			
	주관적 인식	일자리만족도	○			
		임금만족도	○			
소득과 소비	(거시적 환경) 제도	국민기초생활보호 비율	○			
		절대빈곤 대비 국민기초생활보호율	○			
		공적연금가입(수혜)률(AWI)	○			○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		○
		GDP 대비 교육비지출	○			
		지니계수(통계청)	○			
		상대적빈곤율(통계청, 사회통합지수, AWI)	○			
		절대적 빈곤율	○			
		엥겔지수	○			
	(미시적 차원) 소득과 소비현황	균등화 중위소득(통계청 가처분소득, PAI)	○			
		균등화 중위소비(통계청)	○			
		균등화순자산(가구평균순자산, 통계청)	○			
		균등화자산	○			
		소득 대비 지출 비중	○			
		자산 대비 부채 비중	○			

대영역	세부 영역	개별지표	지향성: 전 연령층 (차이/차별)	지향성: 노인 (사회적 위상)의 취약성 배려	지향성: 노년기 과업	지향성: 세대 교류
	주관적 인식	소득만족도(통계청)	○			
		소비생활만족도(통계청)	○			
주거와 교통 (물리적 환경)	(거시적 환경) 교통 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주택 제공			○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수송수단 제공			○	
	(미시적 차원) 생활현황	주택소유율	○			
		1인당 주거면적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주택내 안전사고 경험	○			
		교통사고 부상률 또는 사망률	○	○		
	주관적 인식	주택시장에서의 연령차별 인식도	○			○
		주거환경 만족도	○			
		주택에 대한 만족도	○			
		(대중)교통 이용 불편 경험률	○	○	○	
건강 (건강 보장 및 건강 상태)	(거시적 환경) 건강보장제도	1인당 건강보험 연간진료비	○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	
		연간 미치료율(병의원)	○		○	
	(미시적 차원) 건강상태	만성질환유병률	○		○	
		일상활동제한율	○	○	○	
		우울증상률	○			
	주관적 인식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주관적 건강인지율	○			
		Mental well-being	○			
교육	(거시적 환경) 교육환경	평생교육참여율	○	○		
		노인의 교육 수준		○		
		인간개발지수(HDI)	○			
		취학률(교육기회 및 참여)	○			
	(미시적 차원) 교육현황	국가 기술자격 취득 현황	○			
		대학 입학생 중 고령학생 비율	○			○
		교사의 평균 연령	○			○
	주관적 인식	노인의 평생교육 만족도*		○		
사회참여	(거시적 환경) 제도	노인사회단체수		○		
		노인투표율(복지지표)		○		○

대영역	세부 영역	개별지표	지향성			
			전 연령층 (차이/차별)	노인 (사회적 위상)의 취약성 배려	노년기 과업	세대 교류
	(미시적 차원) 생활 현황	자원봉사활동 참여율(통계청)	○			○
		political participation(AAI)	○			○
		종교활동참여율	○		○	○
		단체활동참여율	○			○
	주관적 인식	시민참여의식(ISSP 2004)	○			○
		사회활동참여 만족도	○			
		일반신뢰	○			
가족 (공동체)	(거시적 환경)	자녀 보조 생활비 수령 노인 비율		○		○
	(미시적 차원) 가족생활	손자녀 돌봄 노인의 비율				○
		노인 또는 장애인 돌봄 노인의 비율		○		
		노인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		
		따로 사는 가족 간 접촉 빈도	○			○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시간	○			○
		노인의 거주형태		○	○	○
		가족 내 교류 정도*	○			○
	주관적 인식	가족관계만족도	○			○
		노년기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		○		
		가족 간 결속력*	○			○
문화	(거시적 환경) 제도	문화 활동 지원 정책	○	○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	○		
		문화여가지출비율(통계청)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통계청)/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s activities (PAI)	○			
	(미시적 차원) 생활현황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	○			○
	주관적 인식	사회적 소수자 인식(KGSS)	○			○
		연령집단인식(WVS)	○			○
		여가활동만족도(통계청)	○			
8개 영역		90개 개별지표	75	19	10	25

주: * 주관적 지표

2. 2차 안

구성 요소	영역	지표명(안)	
연령 유연성	1. 교육	1-1-1.	연령별 교육 기회
		1-1-2.	대학입학 기회의 유연성
	2. 고용	1-2-1.	연령별 근로 기회
		1-2-2.	연령별 안정적 근로의 기회
	3. 사회참여	1-3-1.	연령별 사회봉사 기회
		1-3-2.	연령별 정치참여 기회
연령 다양성	1. 가족	2-1-1.	부모자녀 간 접촉 정도
		2-1-2.	부모자녀 간 부양의 교환 정도
	2. 지역사회/일터	2-2-1.	단체구성원의 연령다양성
		2-2-2.	직장동료의 연령다양성
	3. 가치관	2-3-1.	타인에 대한 신뢰
		2-3-2.	전통적 연령규범 순응도
연령 형평성	1. 소득	3-1-1.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3-1-2.	소득 만족도의 연령별 차이
	2. 건강	3-2-1.	우울증상 경험의 연령별 차이
		3-2-2.	영양섭취 적절성의 연령별 차이
		3-2-3.	주관적 건강의 연령별 차이
	3. 여가문화	3-3-1.	문화여가 참여의 연령별 차이
		3-3-2.	문화여가 만족도의 연령별 차이
	4. 주거·교통	3-4-1.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율의 연령별 차이
		3-4-2.	교통사고 부상률의 연령별 차이
		3-4-3.	주거환경 만족도의 연령별 차이
	5. 사회관계	3-5-1.	연계망 규모의 연령별 차이
		3-5-2.	대인관계만족도의 연령별 차이
연령 취약성	1. 소득 저하	4-1-1.	노인의 공적연금수혜율
	2. 건강 저하	4-2-1.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율
		4-2-2.	노인의 치매검진율
	3. 접근성 저하	4-3-1.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4-3-2.	노인의 정보접근 취약성
	4. 안전 위험	4-4-1.	노인의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4-4-2.	노인의 학대경험률
		4-4-3.	노인의 주택 내 안전사고경험률
4개 구성요소	15개 영역	32개 개별지표	

3. 3차 안과 최종 체계

<table>
<tr><th>구성
요소</th><th>영역</th><th>개별지표</th></tr>
<tr><td rowspan="7">연령
유연성</td><td rowspan="2">1. 교육</td><td>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td></tr>
<tr><td>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td></tr>
<tr><td rowspan="2">2. 고용
→ 경제활동</td><td>1-3. 연령별 실업률</td></tr>
<tr><td>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td></tr>
<tr><td rowspan="3">3. 사회참여</td><td>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td></tr>
<tr><td>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td></tr>
<tr><td>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td></tr>
<tr><td rowspan="6">연령
다양성</td><td rowspan="2">1. 가족</td><td>2-1. 3세대 가족의 비율 →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td></tr>
<tr><td>2-2. 가족교류 시간</td></tr>
<tr><td>2. 일터</td><td>2-3. 사업체별 근로자의 연령구성
→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td></tr>
<tr><td rowspan="3">3. 공동체
→ 지역사회</td><td>2-4. 유니버셜 디자인 구현율
→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td></tr>
<tr><td>2-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td></tr>
<tr><td>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td></tr>
<tr><td rowspan="7">연령
형평성</td><td rowspan="3">1. 건강</td><td>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td></tr>
<tr><td>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td></tr>
<tr><td>3-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td></tr>
<tr><td rowspan="2">2. 교육 및 정보화
→ 교육·정보화</td><td>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td></tr>
<tr><td>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td></tr>
<tr><td rowspan="2">3. 소득 및 주거
→ 소득·주거</td><td>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td></tr>
<tr><td>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td></tr>
<tr><td>3개
구성
요소</td><td>9개 영역</td><td>20개 개별지표</td></tr>
</table>

3.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쟁점 사항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 속도가 느려 발생하는 구조적 지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자칫 노인에게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령통합을 통하여 연령차별주의가 완화되고 연령집단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도 있지만(Tang, 2008),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구축된 노인들을 우대해온 제도와 가치를 약화시킴으로써 노인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한 미국의 경우 연령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성격이 강한 독일에 비하여 노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이 많았다는 점을 통하여 드러나기도 한다. 변재관 외(1998)에서도 퇴직연령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 지향점이기는 하지만 노년층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없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퇴직연령의 폐지는 노년층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논의 한 바 있다. 이러한 논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령통합지표의 구성요소로서 연령형평성을 포함하였다. 모든 연령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만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이 모든 연령층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 안에서는 연령형평성과 더불어 연령취약성도 구성요소로 제안하였지만, 연령형평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전 연령층의 관점이 아니라 노인의 관점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령취약성을 구성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연령통합지표의 범위와 관련하여, 연령통합지표에서 파악하려하는 연령통합수준의 범위를 기본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선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기본적인 수준을 상정하는 것과 적정한

수준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표체계에 포함하는 개별지표의 범위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령통합은 사회구조 전반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과 현재의 논의 단계가 연령분절사회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전이를 촉진해야 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령통합지표는 한 사회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인 연령통합수준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더불어 연령통합에 관한 논의가 사회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것과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또한 삶의 질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는 삶의 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1차 안의 경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도와 개인수준에서의 삶의 현황을 객관 및 주관적인 측면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거치면서 국제비교에 있어 주관적인 지표가 갖는 한계를 반영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도 자체의 특성은 국가적 특수성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삶에 반영된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개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어떤 수준까지 가용자료원 여부를 고려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1차 안과 2차 안의 개발단계까지는 가용자료원을 고려하면서 개별지표를 정의하였는데,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접근은 연령통합이라는 지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개별지표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3차 안에는 개별지표를 상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가용 통계자료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접근으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구성요소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개별지표의 명칭을 통일하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연령유

연성과 관련된 개별지표는 ‘연령별’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연령별 차이 자체를 살펴보는데 초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연령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차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연령군간의 차이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2절 연령통합지표 개요

1. 구성과 지향성

연령통합지표는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이라는 3개의 구성요소 하에 영역구성과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Riley et al. (1994)가 제시한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 외에도 연령형평성이라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연령통합의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측면으로 연령간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각 구성요소가 갖고 있는 의미와 영역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성요소1: 연령유연성

연령통합적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연령을 진입장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연령유연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즉, 연령통합적 사회는 기본적으로 연령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유연성 개념을 통하여 각 사회의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역구성과 개별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 개인의 삶에 있어 연령으로 인하여 진입이 제도화되어 있는 교육

과 고용 영역을,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사회참여를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교육, 고용, 사회참여 등 주요한 활동의 종류를 반영한 3개의 영역이 설정되었다. 각 영역 구성의 의의와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교육영역은 연령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으로 정규교육제도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나이가 많아져 교육받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그러나 최근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영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벽으로 인한 기회의 제한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영역에서의 연령유연성을 파악하는 개별지표로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과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의 두 지표를 설정하였다.

2) 경제활동

개인에게 경제활동 참여는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영역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노동시장 참여여부 외에도 고용안정성의 의미도 중요하므로 질적인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영역은 고용기회라는 측면에서 '연령별 실업률'과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3) 사회참여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구성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 더 나은 삶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또한 각 연령층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때 실제 참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활동에는 사회구성원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연대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활동,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사표현이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정책 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인 투표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활동, 마지막으로 자아실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유를 위한 문화여가활동이 포함된다.

본 영역은 다양한 연령층이 자유롭고 제한 없이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연령유연성이 확보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영역은 대표적인 사회참여활동 종류를 반영하여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과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의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나. 구성요소2: 연령다양성

연령다양성을 통하여 구조적인 연령장벽이 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연령유연성이 확보될 때 다양한 연령간 상호작용이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령다양성은 연령통합사회를 구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는 다양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판단되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공적·사적 영역 내 연령간 이해와 존중 또한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아를 중심으로 한 층위(가족, 일터, 지역사회)별로 영역이 구성되었다. 지역사회의 경우 사회성원간의 상호작용의 활성화와 관련한 물리적·문화적 기반을 모두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령유연성은 가족, 일터, 지역사회라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 구성의 의의와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가족은 인류역사상 가장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살았던 장이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대가족의 전통이 강하여 한 집안에서 조부모, 부모, 손자녀 등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자원을 주고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독거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내 다양한 연령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 상호작용이 거주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다양한 연령의 가족성원간 상호작용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내의 연령다양성의 수준

을 파악하고자 한다. 상호작용의 정도는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와 ‘가족교류 시간’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2) 일터

수면활동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가장 지속적인 활동(경제활동)을 하는 곳이 일터이다. 즉, 일터는 우리의 일상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장소이며, 직장에서 다양한 의사소통과 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일터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할 수 있을 때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영역에서는 직장 내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표는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이다.

3)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개인이 생활하는 폭 넓은 환경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연령통합적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물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문화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와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포함하였다.

다. 구성요소3: 연령형평성

연령통합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악화를 모니터링한다는 목적으로 설정된 연령형평성은 연령간의 삶의 질이 균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즉, 연령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인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연령형평성은 건강, 교육·정보화, 소득·주거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 구성의 의의와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

건강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삶의 영역임은 분명하다. 특히 건강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를 통해 누적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연령과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건강행위의 실천과 제반 서비스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주요지표로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와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를 선정하였다.

다만 지표선정에 있어, 신체적 노화로 인한 연령층간의 기본적인 차이를 전제로 하는 만성질환유병률, 치매유병률 등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논의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인 특징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사항이었고, 노화로 인한 연령군간 차이를 연령통합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적인 변화 자체는 개별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교육·정보화

기본적인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하여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모든 연령층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본을 개발할 기회가 형평성 있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를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수준에 있어 형평성이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를 지표로 제시하였다.

3) 소득·주거

최소소득기준(빈곤율)과 최저주거기준은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이므로 소득·주거 영역은 연령형평성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활동(근로소득, 자산소득)이나 국가의 제도적 지원(공적이전) 등을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이 확보되어야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모든 개인이 연령에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나아가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연령통합적인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준으로 빈곤상태에 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주거는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주거의 개별지표는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와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로 구성하였다.

2. 지표체계 개요 및 활용 방안

앞서 살펴본 지향성 하에 개발된 개별지표의 측정목표와 지표명은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개발된 연령통합지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에서 각 구성요소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개별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하였다. 모든 개별지표가 가용한 통계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한 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실업률', 연령다양성의 경우는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가 선정되었다. 모든 개별지표의 정의에 상응하는 통계자료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이 3개의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연령통합 수준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선 이론적 검토에서 연령통합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개발된 연련통합지표가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첫째 연령통합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연령통합지표를 삶의 질 영역(교육, 경제활동, 사회참여, 건강, 소득·주거, 가족, 지역사회)별로 재배치해보면 〈표4-4〉와 같다. 각 삶의 질 영역별로 2~4개의 개별지표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삶의 질을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연령통합지표의 구성(최종)

구성요소	영역	측정목표	개별지표	평균[1)]
연령 유연성	1. 교육	연령에 의한 교육 기회의 정도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4.24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도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4.55
	2. 경제활동	연령에 의한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1-3. 연령별 실업률**	4.62
		연령에 의한 안정적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4.34
	3.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3.93
		정치 참여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4.00
		문화여가활동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4.48
연령 다양성	1. 가족	가족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정도	2-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
		다양한 연령의 가족성원간 상호작용 정도	2-2. 가족교류 시간	4.41
	2. 일터	다양한 연령의 직장동료간 상호작용 기회	2-3.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4.41
	3. 지역사회	연령간 상호작용의 물리적 기반(대중교통 접근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이동 및 활동에 있어 제한이 없을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2-4.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
		연령간 상호작용의 문화적 기반(각 연령군의 동등한 사회적 위상이 확보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2-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4.34

구성요소	영역	측정목표	개별지표	평균[1)]
		연령집단간 사회적 통합(다양한 연령군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4.52
연령 형평성	1. 건강	신체활동실천에 있어 연령별 차이의 정도 (신체적 건강의 대표지표인 만성질환의 경우 신체적 노화에 따라 경험률이 증대하므로 제외)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3.69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2)]	4.21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3-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4.38
	2. 교육·정보화	인적자본 수준의 연령별 차이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4.04
		정보 습득·활용 능력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4.10
	3. 소득·주거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4.45
		주거기본선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4.17
3개 구성요소	9개	20개		-

주: 1) 점수는 각 개별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로 5점 만점임. 다양한 연령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족구조인가 여부의 경우 전문가 조사시 제시한 개별지표에 대한 타당성 점수가 낮아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로 대체하였음.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 구현율'의 경우 '50세 이상 중 대중교통 접근성 만족도'로 대체하였음.
2) 최종 확정단계에서 지표명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우울증상경험률'은 '우울증상률'로 표현을 수정하였음.
3) 각 구성요소별 대표지표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표 4-4〉 삶의 질 영역 좌표상의 개별지표

연령통합 구성요소 / 삶의 질 영역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개별지표수
영역1: 교육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4개
영역2: 경제활동	1-3. 연령별 실업률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2-3.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	3개
영역3: 사회참여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	-	3개
영역4: 건강	-	-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3-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3개
영역5: 소득·주거	-	-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2개
영역6: 가족	-	2-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2-2. 가족교류 시간	-	2개
영역7: 지역사회	-	2-4.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2-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	3개

두 번째로, 연령통합은 사회통합 수준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추후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연령통합이 주요한 관심사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13개 지표는 사회통합관련 지표(강신욱, 2012)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성이 높으며, 연령형평성의 7개 개별지표는 사회적 형평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세 번째로, 활동적 노화를 통한 노년기의 사회적 기여 제고와 관련해서는 AAI와 비교해볼 수 있으며 향후 AAI의 개선 작업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5〉를 보면 20개 개별지표 중 13개가 AAI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표 4-5〉 UNECE & European Commission의 AAI와 연령통합 지표

구분	영역	AAI	연령통합 지표
내용	고용	고용률(55세~59세)	1-3. 연령별 실업률
		고용률(60세~64세)	
		고용률(65세~69세)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고용률(70세~74세)	
	사회참여	자원봉사참여율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자녀(손자녀) 부양률	2-1. 가족간 자원의 교환
		노인 부양률	
		정치적 참여	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독립적, 건강 및 안전한 생활환경	신체운동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의료서비스 접근성	3-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동거형태	
		상대적 중위소득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노인 비(非)빈곤	

구분	영역	AAI	연령통합 지표
		노인의 물질적 비(非)박탈	
		물리적 안전	
		평생학습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활기찬 노화를 위한 제반환경 마련	55세시 기대수명	
		55세시 건강수명	
		정신건강	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ICT(정보통신기술) 사용정도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사회적 연결망 접촉정도	
		교육기회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제3절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본 절에서는 개발된 연령통합 관련 20개의 개별지표에 대하여 각 지표가 제시된 배경과 구체적인 정의 및 산식, 자료원 현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개별지표별로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지표가 갖고 있는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정의 및 산식의 경우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지표체계에서 제시된 개별지표와 명칭은 유사하여도,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산식은 기본적으로, 전연령 평균에 비하여 각 연령군이 보이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연령별 차이가 클수록 연령분절적인 정도로 인한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0세 연령군별로 연령을 구분하였으나, 통계자료원의 상황을 반영하여 연령군 구분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

다. 또한 통계원의 경우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제시하고, 정의와 정확하지 않아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도 함께 제시하여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 연령유연성 관련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가. 교육

□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 배경

- 정규 교육기관 등록의 연령별 접근 정도를 통해 교육기회의 연령별 유연성을 살펴보고자 함. 즉, 연령별 정규 교육기관 등록률을 살펴보아 교육기회가 연령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함. 이러한 지표는 연령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음.
- OECD 교육지표는 OECD 회원국의 연령별 교육 기회(접근성)를 조사하여 각 국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 연령군은 OECD기준으로 2세 이하, 3~4세,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의 차이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교육기관 등록률} - \text{전체 교육기관 등록률})^2}{\text{연령군수}}}$$

$$= \sqrt{\frac{\sum_{a=1}^{N}(EE(a) - EE)^2}{N}}$$

- EE(Education Enrollment) : 정규교육기관 등록률
- a : 연령군
- a={2세 이하, 3~4세,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 자료원

- 국제: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총 27개 회원국)

□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 배경

-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규교육과정과는 달리 이루어지는 교육을 뜻함. 평생교육에의 연령별 참여정도를 통해 연령별 유연성을 살펴보고자 함. 즉,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을 통해 평생교육기회가 연령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함.
- 연령별로 공식 교육(정규학교) 이외의 평생학습을 통한 경력개발, 자기계발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살펴봄.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생학습참여자가 많은지,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학습참여가 고르게 분포하는지 살펴봄.
- 국내의 경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 성인의 평생학

습 실태'를 통해 만 25~64세 성인이 1년 동안 형식 및 비형식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을 조사함.16)

- 국외의 경우 OECD의 교육지표와 AAI가 있으며 AAI의 경우 '독립과 안전한 생활'(Independent and secure living)의 영역에 속해 있음. AAI의 평생교육은 지난 4주간 정규교육 체계 밖에서 수강한 프로그램, 세미나, 회의, 강좌 등을 의미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 OECD의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non-formal education by PIAAC literacy proficiency level and age group" 문항을 활용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평생교육 참여율} - \text{전체 평생교육 참여율})^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LEP(a) - LEP)^2}{N}}$$

- LEP(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 평생교육 참여율
- a : 연령군, a={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 자료원

16) 형식교육은 국가 학력체계 안에 포함된 과정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을 의미하며 방송통신대, 학점 은행제, 검정고시 등이 해당됨. 비형식교육이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가리키며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학력 및 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의미함. 비형식교육에는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강좌,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등이 포함됨(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4년도「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보고서).

- 국내: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통계청 「평생학습참여율」 (25∼64세 인구)
- 국제: AAI, EU Labour Force Survey (EU-LFS) (27개 EU 회원국).
  - EU-LFS는 55세부터 74세에 한정하여 조사되고 있음.
  - AAI가 EU-LFS를 원자료로 하여 lifelong learning 수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만 해당됨[17].
  -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4)는 25세부터 64세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있음.

나. 경제활동

□ 1-3. 연령별 실업률

○ 배경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실업상태일 경우 근로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 곤란 및 근로활동 단절로 인한 사회적 접촉 기회 축소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부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통계자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연령군은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10세 단위 및 65세 이상의 6개 연령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17) AAI지표의 경우 OECD 교육지표의 연령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의: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기준[18]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실업률}-\text{전체 실업률})^2}{\text{연령군 수}}}=\sqrt{\frac{\sum_{a=1}^{N}(UR(a)-UR)^2}{N}}$$

- $UR(Unemployment\ Rate)$: 실업률
- a : 연령군
- α={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database
- 국제: OECD database

□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 배경

-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삶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전제임. 종사상 지위는 이러한 고용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에서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6가지로 구분됨. ①고용원이 있는 자

18) OECD 기준이며, ILO는 1주간 구직활동 기준임.

영업자(고용주),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③무급가족종사자, ④상용근로자, ⑤임시근로자, ⑥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이외에 종사상 지위는 소득수준이 낮고(혹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임금이 없거나) 고용불안정성이 큰 경향이 있으므로, 연령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구성비의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근로기회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연령별 실업률과 동일하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10세 단위 및 65세 이상의 6개 연령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종사상지위상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비의 차이.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비는 전체 6개 종사상지위(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임.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안정적 고용률} - \text{전체 안정적 고용률})^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JS(a) - JS)^2}{N}}$$

- $JS(Job\,Stability)$: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비
- a : 연령군
- a={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연령별 자료 산출 가능
- 국제: 없음

다. 사회참여

□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 배경

-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중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주요한 활동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 내 관계가 유지되고 기타 다른 활동의 발판이 됨.
- 모든 연령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차이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자원봉사참여율} - \text{전체 자원봉사참여율})^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VP(a) - VP)^2}{N}}$$

- $VP(Volunteer\ Paticipation)$: 자원봉사참여율
- a: 연령군

  $a = \{20\text{세미만}, 20\sim29\text{세}, 30\sim39\text{세}, 40\sim49\text{세}, 50\sim59\text{세}, 60\text{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사회통계조사」
- 국제: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 1-6.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 배경

- 투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의무 행위임. 투표행위를 통해 국가나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따라서 정치활동의 대표적 행위로 투표율을 살펴보고자 함.
- 특히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 및 제도가 실현되는 바탕인 정치집단에 대한 의사표시는 중요한 사회참여 행위임.
- 적극적 정치 참여로서의 투표가 연령간 차이 없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투표율 차이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투표율} - \text{전체 투표율})^2}{\text{연령군수}}} = \sqrt{\frac{\sum_{a=1}^{N}(TV(a) - TV)^2}{N}}$$

- $TV(Turnout\ of\ Voters)$: 투표율
- a : 연령군
- $a = \{20\sim29\text{세},\ 30\sim39\text{세},\ 40\sim49\text{세},\ 50\sim59\text{세},\ 60\text{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국제 :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 배경

- 문화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임. 문화여가활동을 향유함으로써 개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생활이 가능해짐.
-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등 문화예술관련 단체참여율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문화예술단체 활동 참여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문화예술참여율} - \text{전체 문화예술참여율})^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CP(a) - CP)^2}{N}}$$

- $CP(Culture\ Participation)$: 문화 예술단체 활동 참여율
- a: 연령군
- $a = \{20\text{세미만}, 20\sim29\text{세}, 30\sim39\text{세}, 40\sim49\text{세}, 50\sim59\text{세}, 60\text{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사회조사」
- 국제: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2. 연령다양성 관련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가. 가족

□ 2-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 배경

- 세대 간 지원 교환이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세대 간 교류와 다양한 연령 간의 협력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고자 함.
- 지원의 교환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봄.

○ 정의 및 산식

- 정의: 정서적 지원은 고민상담, 경제적 지원은 노인이 자녀에게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경제적 도움, 도구적 지원은 청소·식사준비·세탁, 간병·수발·병원 동행 등의 지원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쌍방이 지원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함.
- 현재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원이 없음. 현재 가용한 자료원인「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교환의 주체는 65세 이상 노인 부모와 자녀 세대임.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지원 교환율} - \text{전체 지원 교환율})^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REtwo(a) - REtwo)^2}{N}}$$

- *REtwo*(Resource Exchange between two generations) : 지원 교환율(2세대)
- α: 연령군, α={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 국제: 없음

□ 2-2. 가족교류 시간

○ 배경

- 가족 구성의 소규모화, 개인주의적 경향, 일 중심적인 사회분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개인이 세대 간 교류와 연령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임.
-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 한 생활시간량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가족성원 간 상호작용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가족교류 시간의 차이. 가족교류는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 데 소요한 시간량(분)을 의미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가족 교류의 시간} - \text{전체 가족 교류의 시간})^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FT(a) - FT)^2}{N}}$$

- *FT(Family Time)* : 가족교류 시간
- α=연령군, α={ 학생(초중고, 대학생), 20세~64세, 65세 이상}[19]

○ 자료원

- 국내: 통계청「생활시간조사」
- 국제: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American Time Use Survey 2014」[20], 일본 통계국「2006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나. 일터

□ 2-3.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 배경

- 직장생활의 많은 부분은 부서간 혹은 부서 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사회는 직장내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점심, 회식 문화 등으로 인해 직장 내 연령구성은 연

19)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자료로 통계청「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전국민(10세 이상), 학생, 성인(20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함.
20) http://www.bls.gov/tus/home.htm

령통합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 분석 연령군은 자료가용성을 고려하여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전체 근로자 대비 30대 미만 및 5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 다만, 자료의 한계 상 30인 이상 사업체에 한함.
- 산식

$$\frac{\text{30대 미만 및 5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의 합}}{\text{전체 사업체 수}} \times 100 = \frac{\sum_{i=1}^{N} CP_i}{N} \times 100$$

- $CP(Composition\ of\ Work\ Place)$: 전체 근로자 대비 30대 미만 및 50대 이상 근로자의 비율
- N : 전체 사업체 수

○ 자료원

- 국내: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에서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사담당자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
- 국제: 없음

다. 공동체

□ 2-4.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 배경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함.

- Global AgeWatch Index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50세 이상 중 대중교통의 접근성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을 국제비교함으로써 한 사회의 우호적 환경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신체적 노화가 발생하는 시점인 50세 이상에 대하여 그들이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동 및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살펴봄.
- 산식

$$\frac{\text{만족한다고 응답한 50대 응답자수}}{\text{50대 이상의 응답자수}} \times 100$$

○ 자료원

- 국내: Gallup WorldView
- 국제: Gallup WorldView

□ 2-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 배경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함. 한 사회에서의 다양한 연령대의 위상에 대한 차이가 크다면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 World Value Survey에서는 각 생애단계를 대표하는 20대,

40대, 70세 이상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각 연령대의 상대적인 사회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음.

- 각 연령의 위상의 차이가 크다면 연령간의 사회적 위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즉, 각 연령대가 갖고 있는 연령변별(辨別) 정도{(20대와 40대의 사회적 위상의 차이)+(40대와 70대 이상의 사회적 위상의 차이)+(70대 이상과 20대의 사회적 위상의 차이)의 합}에 있어서의 연령대별 차이를 통하여 그 사회에서 상이한 연령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20대, 40대, 70세 이상의 사회적 위상간의 차이의 합에 있어서의 연령군별 차이
  - World Value Survey의 "Social position: People in their 20s(40s, 70s)?" 문항에 대한 연령별 평균차이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사회적위상차이합} - \text{전체의 사회적 위상차이합})^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SP(a)-SP)^2}{N}}$$

- $SP(Social\ Position)$: 사회적 위상 차이
- a: 연령군

  $a=\{20\text{세미만}, 20\sim29\text{세}, 30\sim39\text{세}, 40\sim49\text{세}, 50\sim59\text{세}, 60\sim64\text{세}, 65\text{세이상}\}$

○ 자료원

- 국내: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 국제: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 배경

-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령통합적 사회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함. 연령 차이가 나는 집단 간에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협력 가능성을 살펴봄.
- 연령군별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봄.

○ 정의

- 정의: 20대와 70대를 동일한 공동체의 성원으로 보는 비율에 대한 연령별 차이
  - European Social Survey에서는 20대와 70대 각각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1) 한 집단이다 2) 동일 공동체에 속하는 구분되는 2개 집단이다, 3) 동일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구분되는 2개 집단이다, 4) 집단이라기보다는 개인이다로 조사하고 있음.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공동체 인식}-\text{전체 공동체인식})^2}{\text{연령군 수}}}=\sqrt{\frac{\sum_{a=1}^{N}(GM(a)-GM)^2}{N}}$$

- $GM(Group\,Member)$: 공동체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 a: 연령군
  $a=\{$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 자료원

- 국내: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 국제: World Value Survey「World Value Survey」

3. 연령형평성 관련 개별지표의 정의 및 산식

가. 건강

□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건강한 삶의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전 생애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강조됨.
-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펼침.
- 그 중 신체활동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중점과제로 비교적 연령과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써 적극적인 건강

증진 행위로 간주됨. 개인적 차원에서는 만성질환 예방 및 기능증진 등의 이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함.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건강증진의 맥락에서 다양한 이점을 기본으로 하는 신체활동의 실천은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수명의 연장과 맞닿아 있음.
- 이같은 관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 행위로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선정하고자 함. 연령군별로 신체활동 실천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
  - 신체활동의 개념: 신체활동은 중등도 신체활동, 고강도 신체활동, 비의식적 신체활동으로 구분되며(Glasgow et al., 2005; 선우덕, 2008 재인용), 그 중 1990년대 이후 신체활동에 대한 역사점 관점변화와 맞물려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이 보편화됨(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 중등도 신체활동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짧은 숨을 쉬지만,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의미함. 고강도 신체활동은 중등도 이상으로 심장이 훨씬 빠르게 뛰고 짧고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신체활동을 의미함.
  - 신체활동 실천율에서는 최소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1주일동안 평소

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3일 이상 실천 또는 최근 1주일동안 평소 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분율을 의미함(단, 걷기 활동은 제외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신체활동실천율}-\text{전체 신체활동실천율})^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PA(a)-PA)^2}{N}}$$

- $PA(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 실천율
- a: 연령군
  $a=\{19\sim29\text{세},\ 30\sim39\text{세},\ 40\sim49\text{세},\ 50\sim59\text{세},\ 60\sim64\text{세},65\text{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제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Adults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 3-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각종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정신건강 역시 위험한 상황에 봉착함.

- 대표적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인 우울증의 경우, 평생유병률이 2006년 5.6%에서 2011년 6.7%로, 일년유병률 역시 동기간에 2.5%에서 3.1%로 증가하였고, 자살에 의한 사망률 역시 증가 추세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우울증의 경우, 자살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경쟁력 차원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삶의 질을 유지함에 있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건강문제일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함. 이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표지표로써 우울증상률을 살펴보고자 함.
- 더욱이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 관리방안에 대한 개인적·국가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연령군별로 우울증상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우울증상률의 차이
  - 우울증상률 : “최근 1년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문항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우울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국민건강영양조사)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우울증상률} - \text{전체 우울증상률})^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DS(a) - DS)^2}{N}}$$

- $DS(Depressed\ Symptoms)$: 우울증상률
- a: 연령군

  $a =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65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영양조사」
- 국제 : Euro Stat「Europe Social Surve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 3-3. 미치료율(미충족 의료 경험률)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은(못한) 상태를 미충족 의료상태로 정의하며, 측정을 위한 지표로는 미치료율이 활용되고 있음(김주경, 2013).
-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보장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있어, 미충족 의료 경험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및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작동함.
- 미치료의 이유는 경제적 부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의 부족, 정보의 부족, 진료대기시간, 의료기관까지

의 이동시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됨(최선혜, 2014).

- 의료적 필요에 따라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의료보장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반대로,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는 미치료율은 곧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규모를 나타내며, 나아가 건강 불평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됨.
- 연령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은 중요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령군에 따른 미치료율을 파악해 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 미치료율: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못한) 상태를 의미함
  - 연간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은(못한) 비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미치료율} - \text{전체 미치료율})^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UNM(a) - UNM)^2}{N}}$$

- $UNM(Unmetneeds)$: 미치료율
- a: 연령군
  $a = \{19 \sim 29\text{세},\ 30 \sim 39\text{세}, 40 \sim 49\text{세}, 50 \sim 59\text{세},\ 60 \sim 64\text{세}, 65\text{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제: Euro Stat 「Europe Social Surve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나. 교육·정보화

□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연령집단별로 교육 성취 비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연령에 의해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또는 연령군별 교육 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연령별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함.
- 교육 수준은 교육기회 정도의 결과이자 개인의 삶의 질 측면으로 볼 수 있음. 교육 수준을 통해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획득하고 스스로 만족이나 충족감을 가질 수 있음.
- 그 중, 중(등)학교 졸업 이상자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연령별 교육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함.
- 한편 국제자료(GAW)의 경우 노인의 교육 수준의 순위를 매겨 각 국가를 비교함.
  - 참고1. EU 사회적 배제 지표(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의 교육 영역은 '교육 또는 직업훈련 조기탈락자 비율', '중등교육 이하 저학력자 비율'로 배제 수준을 조사

- 참고2. GAW(Global AgeWatch Index)에서는 노인의 교육 수준 지표를 ‘역량’영역에서 보여주고 있음[21)]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중(등)학교 졸업 이상자 비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중졸이상자} - \text{전체 중졸이상자})^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SG(a) - SG)^2}{N}}$$

- *SG(Secondary school Graduation)*: 중(등)학교 졸업 이상비율
- α=연령군, α={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 자료원

- 국내: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22)]
- 국제: Help Age International「Global AgeWatch Index」(97개국),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Barro and Lee and Gallup의 자료를 활용하여 GAW 지수 발표

21) Domain 3: Capability: The employment and education indicators in this domain look at different aspects of the empowerment of older people.(GAW)
22) 이 조사에서 연령세목은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64세, 65세 이상을 구분하고 있음.

□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연령집단별로 정보화 수준을 비교할 수 있으며 연령에 의하여 정보접근성, 역량,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함.
- 정보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정보화 수준의 차이가 삶의 영위하는데 기본적인 출발점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한국에서는 정보격차지수를 개발하여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의 및 산식

- 정의: 전체 정보화 수준 대비 연령별 정보화 수준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정보화 수준}-\text{전체 정보화 수준})^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DL(a)-DL)^2}{N}}$$

- *DL(Digital Level)* : 정보화수준
- α=연령군, α={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 자료원

- 국내: 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 국제: 없음

다. 소득·주거

□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경제적인 안정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며, 이 때 빈곤선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준임.
- 절대적 빈곤은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소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책적 관심이 되며 국가 내에서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상대적 기준에 의한 빈곤율을 지표로 선정하며,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가처분소득[23] 기준 상대빈곤(중위소득 50% 이하[24])을 산출함.
- 연령군은 OECD 제공기준에 따라 0~17세,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의 7개로 구분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

23) 최저생계를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만큼 소득이 확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소득기준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은 국가 간 비교가능성 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것임.

24) OECD 기준의 중위소득 50% 미만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유럽연합은 중위소득 60% 미만이 기준임.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빈곤율}-\text{전체 빈곤율})^2}{\text{연령군 수}}}=\sqrt{\frac{\sum_{a=1}^{N}(RP(a)-RP)^2}{N}}$$

- *RP(Relative Poverty)* : 상대적 빈곤율
- α=연령군, α={0~17세,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빈곤통계연보」
- 국제: 없음

□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 배경

- 면적, 방수, 주거상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측면(주택법에 기초한 최조주거기준)에 걸쳐 주거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기본적인 주거 기본선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음.
- 연령군은 빈곤율과 동일하게 7개(0~17세,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로 분석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정부발표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차이.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11.5.27 개정된 기준 적용)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과 대비한 노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11.5.27 개정된 기준 적용)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 산식

$$\sqrt{\frac{\sum(\text{연령군별 최저주거기준미달률} - \text{전체 최저주거기준미달률})^2}{\text{연령군 수}}}$$

$$= \sqrt{\frac{\sum_{a=1}^{N}(MS(a) - MS)^2}{N}}$$

- $MS(Minimum\ Standard)$: 최저주거기준미달률
- a: 연령군
- $a = \{$17세 이하,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
- 국제: 없음

제 5 장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5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본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개별지표에 대하여 가용한 통계원이 있는 경우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성요소 및 개별지표별로 연령통합수준을 비교해보는 것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인 미국과 일본[25], 조합주의 복지국가인 독일,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과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여 상대적인 연령통합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모든 개별지표의 정의에 상응하는 통계원이 확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범적용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분명한 연령통합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시계열 통계의 확보가 가능한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시계열 비교를 통하여 연령통합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의 연령통합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자료원 현황

개별지표의 자료원 현황을 정리한 〈표 5-1〉에 의하면 대부분의 개별지표와 관련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개 지표('다양한 연령을 공동체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의에 근접

---

25) 미국과 일본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속하지만 고령화의 수준과 속도에 있어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2개국을 비교대상에 모두 포함하였음.

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지표의 정의에 정확히 상응하거나 산식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연령군별 구분이 이루어진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표 5-2 참조). 한편, 미국의 경우는 6개 지표, 일본은 9개 지표, 독일과 스웨덴은 8개 개별지표에 대한 통계원이 없는 상태이다[26]. 또한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있더라도 연령군별로 살펴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을 파악함에 있어 국외의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OECD를 기본적인 비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가용자료원이 있는 경우에만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최근 발표된 통계의 연도 또한 개별지표별로 또는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사실도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계열 비교의 경우 가용통계가 생성되는 주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관련한 상세 정보는 표에 주를 통하여 기록해두었다.

26) 이는 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기초해있기 때문으로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음.

〈표 5-1〉 개별지표의 자료원 현황

지표명	자료원	기관	자료 생성주기 및 최근 자료	개별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Education at a Glance[1]	OECD	매년, 2014	○	○	○	○	○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Education at a Glance	OECD	매년, 2014	○	○	○	○	○
연령별 실업률	OECD Stat	OECD	매년, 2014	○	○	○	○	○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매월, 2014	○	×	×	×	×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약5년[2], 2010-2014(6차)	○	○	○	○	○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약5년[2], 2010-2014(6차)	○	○	○	○	○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약5년[2], 2010-2014(6차)	○	○	○	○	○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3년, 2014	○	×	×	×	×
가족교류 시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한국)	5년, 2014	○	○	○	×	×
	American Time Use Survey	US. Bureau of Labor Statics(미국)	매년, 2014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Japan. Statistics Bureau(일본)	5년, 2011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사업체패널	한국노동연구원	격년, 2012	○	×	×	×	×

지표명	자료원	기관	자료 생성주기 및 최근 자료	개별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Global Age Watch Index	Helpage International	매년, 2015	○	○	○	○	○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World Value Survey	World Value Survey	약5년[2], 2010-2014(6차)	○	○	○	○	○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European Social Survey	European Social Survey	격년, 2014[3]	×	×	×	○	○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매년, 2013	○	○	×	×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매년, 2014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4]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매년, 2013	○	○	×	×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매년, 2014					

지표명	자료원	기관	자료 생성주기 및 최근 자료	개별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매년, 2013	○	○	×	○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매년, 2014					
	Euro Stat	European Commission	매년, 2013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Education at a Glance[1)]	OECD	매년, 2014	○	○	○	○	○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매년, 2014	○	×	×	×	×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5)]	OECD Stat	OECD	매년, 2015	○	○	○	○	○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한국복지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매년, 2014	○	×	×	×	×

주: 1) Education at a Glance(2014) 내 실제 분석자료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함.
2) Wave1(1981~1984), Wave2(1990~1994), Wave3(1995~1998), Wave4(1999~2004), Wave5(2005~2009), Wave6(2010~2014) 주기로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는 Wave6(2010~2014) 중 2012년을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함.
3) 최신자료는 2014년 공표되었으나, 본 지표가 해당된 조사는 2008년(4차)에 실시됨.
4) 독일 및 스웨덴은 European Social Survey에서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비율만 제시하고 있어, 본 표에서 제외함.
5) 국가별로 자료취합시점이 상이함. 독일과 스웨덴, 미국은 2012년, 일본은 2009년, 한국은 2011년 기준임.

〈표 5-2〉 개별지표별 연령군 구분

<table>
<tr><th>구성 요소</th><th>영역</th><th>지표명</th><th>연령군</th></tr>
<tr><td rowspan="7">연령 유연성</td><td rowspan="2">교육</td><td>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td><td>- 국내외자료원: 2세 이하, 3~4세,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단 전체인구에 대한 통계 미제공</td></tr>
<tr><td>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td><td>- 국내외자료원: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연령군 자료제공</td></tr>
<tr><td rowspan="2">고용</td><td>연령별 실업률</td><td>- 국내외자료원: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td></tr>
<tr><td>연령별 안정적 고용률</td><td>- 국내자료원: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 미확보</td></tr>
<tr><td rowspan="3">사회 참여</td><td>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td><td>- 국내외자료원: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td></tr>
<tr><td>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td><td>- 국내외자료원: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td></tr>
<tr><td>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td><td>- 국내외자료원: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td></tr>
<tr><td rowspan="5">연령 다양성</td><td rowspan="2">가족</td><td>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td><td>- 국내자료원: 동거/비동거자녀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대상(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 미확보</td></tr>
<tr><td>가족교류 시간</td><td>- 국내자료원: 학생, 20세 이상,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미국, 일본으로 한정. 단, 15세 이상 전체인구에 대한 자료만 제공(연령별 자료 미제공)</td></tr>
<tr><td>일터</td><td>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td><td>- 국내자료원: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미확보</td></tr>
<tr><td rowspan="2">공동체</td><td>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td><td>- 국내외자료원: 50세 이상 전체인구에 대한 자료만 제공(연령별 자료 미제공)</td></tr>
<tr><td>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td><td>- 국내외자료원: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td></tr>
</table>

구성 요소	영역	지표명	연령군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 국내자료원 미확보 - 국외자료원: 독일, 스웨덴으로 한정.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연령 형평성	건강	신체활동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 국내자료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미국으로 한정. 18~44세, 45~64세, 65~74세, 75세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 국내자료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미국으로 한정. 12~17세, 18~39세, 40~59세, 6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독일 및 스웨덴은 전체인구에 대한 통계만 제공되며, 연령별 자료 미제공)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 국내자료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독일, 스웨덴, 미국으로 한정. 독일, 스웨덴의 경우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12~17세, 18~44세, 45~64세, 65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교육 정보화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 국내외자료원: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연령군 자료제공 (단, 일본제외)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 국내자료원: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미확보
	소득 주거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 국내외자료원: 17세 이하,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 국내자료원: 17세 이하,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연령군 자료제공 - 국외자료원 미확보

제2절 한국의 연령통합 현황

1. 한국의 연령유연성 수준

가. 교육

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5~14세군의 교육기관 등록률이 99%이고 15~19세군은 87%로 높은 수준이지만 20~29세군의 경우는 31%로 큰 차이를 보이며 30~39세군의 경우는 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30대 이후의 교육기관 등록률이 매우 낮다. 또한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30대 이후와 30세 이전 연령층간의 교육기관 등록률의 차이가 적은 편이다. 이를 통하여 스웨덴이 전반적으로 유연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교육기회의 연령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30세 이후 정규교육기관 등록률이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연령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3〉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단위: %, %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	-	-	-	-	-
2세 이하	37	m	n	8	a	4
3~ 4세	86	52	86	93	93	76
5~14세	99	97	100	99	99	98
15~19세	87	81	m	90	86	83
20~29세	31	27	m	33	36	28
30~39세	2	6	m	4	14	6
40세 이상	n	1	m	n	3	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차이 (최대값-최소값)	97	96	-	95	96	97

주: 1) 2012년 기준임.
2) 전체 인구에 대한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3) 교육기관 등록률은 OECD교육지표의 취학률로 파악함. 연령별취학률(enrolment rates) = (해당 연령대 학생 수/해당 연령대 인구)×100
4) 2010년 자료부터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의 원아가 포함됨.
5) n: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 m: 해당 데이터가 없음. a: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음.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의 C장 “Access to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ogression” p.312.

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전체인구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40~60%로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교국가 중 스웨덴은 가장 높은 평생교육 참여율(66%)을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45세 이상에서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아 45~54세군은 45%, 55~64세군은 32%에 불과하다. 이러한 4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낮은 참여율은 전반적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 미국, 스웨덴의 경우 54세까지는 평생교육 참여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참여율이 낮은 일본

의 경우도 55세 이전까지는 연령군별 차이는 적은 편이다. 한편 55세 이상에서 독일의 참여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45세 이후부터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11.8로 비교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크며, 미국의 경우 6.4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5-4〉 연령별 평생교육(형식/비형식) 참여율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25~64세)	50	59	42	53	66	51
25~34세	63	68	49	63	77	62
35~44세	56	62	44	58	68	56
45~54세	45	56	46	54	68	51
55~64세	32	51	31	36	51	34
연령유연성 수준27)	11.8	6.4	6.9	10.2	9.4	10.4

주: 1) 2012년 기준임.
2) 위 수치는 OECD의 survey of Adult Skills 자료를 활용한 “Participation in formal and/or non-formal education by PIAAC literacy proficiency level and age group(2012)”수치임. 본 문항에 대한 응답 중 ‘Formal education only’ 수치가 제외되어야 하나, 연령별 세분화된 분석값이 부재한 관계로 본 수치가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지님. 국가별 전체 인구의 ‘Formal education only’ 수치는 한국, 0.99, 미국 4.32, 일본 0.92, 독일 2.74, 스웨덴 4.58임.
3) PIAAC은 OECD가 실시하는 국제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로서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평가함. 핵심적인 역량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분포해 있는지 파악함.

자료: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Access to Education, Participation and Progression. p.399.

27) 연령유연성 수준은 제4장에서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로, 숫자가 클수록 연령유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이하 동일함.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교육 참여에 연령이 장벽으로 작용하는가를 연령유연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30세 이후 정규교육기관 등록률이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연령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도 우리나라는 45세 이후부터 OECD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영역에서의 연령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규교육과 평생교육제도 모두에서 연령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경제활동

1) 연령별 실업률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로 양호한 편이며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연령유연성(연령별 실업률 차이) 또한 양호한 편이다(2.98).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3.5%이며, 15~34세의 청년층만이 전체 인구의 실업률 보다 높다. 15~24세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10.0%이며, 25~34세는 5.7%이다. 35세 이상 중장년층의 실업률은 2.0~2.4% 수준이며, 이 중 65세 이상이 2.0%로 가장 낮다.

연령별 실업률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보통 수준이다. OECD평균은 3.88이며, 일본이 1.32로 가장 낮고, 독일 2.17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3.26이며, 스웨덴은 그 격차가 크게 벌어져 6.74이다.

국가별로 연령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에서 15~24세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실업률이 가

장 낮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전체 실업률은 5.0%이며, 65세 이상의 실업률은 0.7%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독일 청년층 중 15~24세는 7.8%이며, 25~34세는 5.8%이다. 또한 35~64세의 실업률은 4.1~5.1% 수준이다. 미국은 전체 실업률이 6.2%이며, 65세 이상은 4.6%로 비교국가 중 유일하게 45~64세 연령군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4.3~4.4%). 미국 15~24세의 실업률은 13.4%, 25~34세는 6.5%이다.

일본은 전체 실업률이 3.6%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15~24세의 실업률은 6.3%로 우리나라 보다 3.7%p 낮고 65세 이상은 2.3%로 우리나라 보다 0.3%p 높다. 35~64세의 실업률은 우리나라 보다 약 1%p 낮은 3% 초반이다. 스웨덴은 비교국가 중 유일하게 OECD평균 보다 전체 인구의 실업률이 높은 국가인데(각각 7.3%와 7.9%), 15~24세의 실업률은 22.9%로 OECD평균 15.1% 보다 7.8%p 높다.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다만 55~64세는 OECD 평균 보다 0.2% 높은 5.4%), 다른 비교국과의 차이도 크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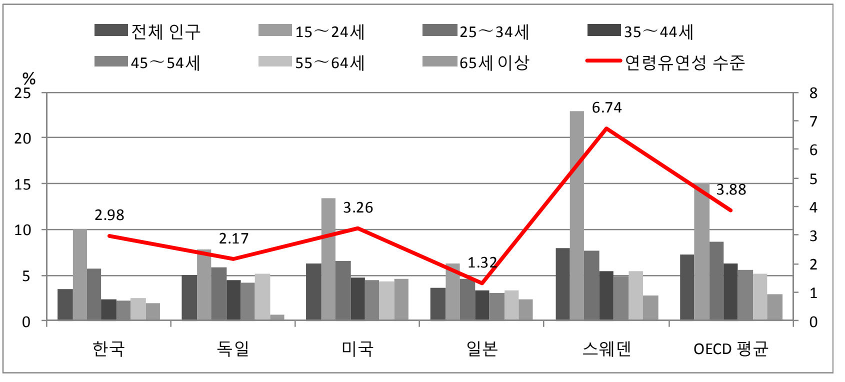
〈표 5-5〉 연령별 실업률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3.5	6.2	3.6	5.0	7.9	7.3
15~24세	10.0	13.4	6.3	7.8	22.9	15.1
25~34세	5.7	6.5	4.6	5.8	7.7	8.6
35~44세	2.4	4.7	3.4	4.4	5.4	6.2
45~54세	2.2	4.4	3.0	4.1	4.9	5.6
55~64세	2.5	4.3	3.3	5.1	5.4	5.2
65세 이상	2.0	4.6	2.3	0.7	2.8	2.9
연령유연성 수준	2.98	3.26	1.32	2.17	6.74	3.88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추출

[그림 5-1] 연령별 실업률



주: 2014년 기준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추출

2)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우리나라의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은 49.8%로 취업자의 약 1/2은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차이가 매우 커서 65세 이상은 12.4%로 고용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5~24세 30.5%, 55~64세 35.8%이다. 반면에 25~54세의 안정적 고용률은 50.7~68.7%로 전체 인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중 25~34세의 안정적 고용률이 68.7%로 가장 높다.

한편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에 대한 해외지표를 찾을 수는 없으나, OECD 자료 중 가장 유사한 지표로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 자영업자 비율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먼저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고도성장을 경험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기업의 체질개선과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면서 40대, 50대가 비자발적으로 은퇴하고

이들이 대거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지만, 최근 선진국에서 고학력·고소득자의 프리랜서 근로형태가 확산되어 자영업자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내에서도 고학력·고소득자와 저학력·저소득자로 이분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Self-employment Rate)은 28.2%로 터키 38.3%, 멕시코 33.7%, 다음으로 3번째 높다. 일본은 11.9%, 독일 11.7%, 스웨덴 10.4%, 미국 6.8%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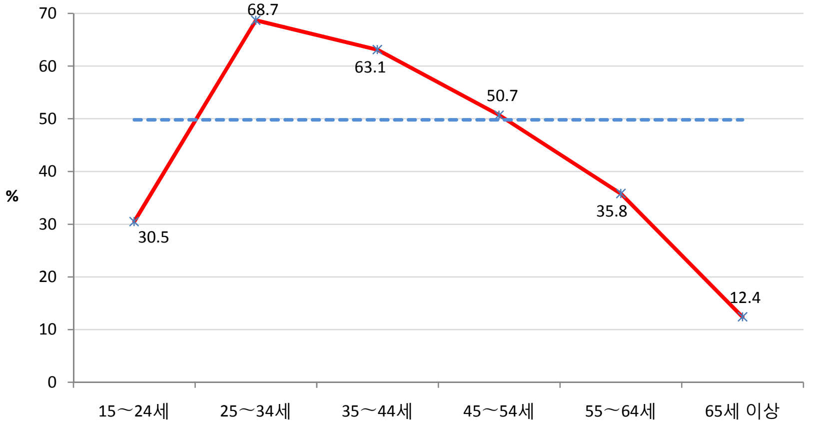
〈표 5-6〉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49.8 (28.2)	(6.8)	(11.9)	(11.7)	(10.4)	(16.5)
15~24세	30.5	-	-	-	-	-
25~34세	68.7	-	-	-	-	-
35~44세	63.1	-	-	-	-	-
45~54세	50.7	-	-	-	-	-
55~64세	35.8	-	-	-	-	-
65세 이상	12.4	-	-	-	-	-
연령유연성 수준	20.4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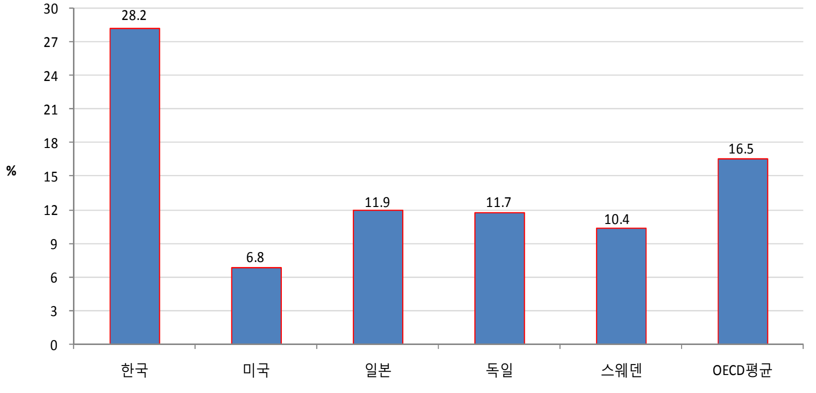
주: ( )는 자영업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통계청(2014).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그림 5-2]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한국)



자료: 통계청(2014).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그림 5-3]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활동 영역은 양적 측면에서 양호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3.5%로 OECD 평균 7.3% 보다 낮은 수준이며, 모든 연령군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주요 특성으로 15~34세(15~24세 10.0%, 25~34세 5.7%)만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2.98로 OECD 평균 3.88 보다 낮고 비교국가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다.

그러나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의 차이는 20.42로 높은 편이며, 65세 이상의 고용불안정성이 가장 심각하다. 전체 인구의 안정적 고용률은 49.8%지만 65세 이상은 1/4 수준인 12.4%에 불과하다. 즉, 65세 이상 취업자의 10명 중 2명은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다. 사회참여

1)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에 있어 국내 자료원(사회통계)의 경우, 20세 미만 연령군에서 대학 입학 등에 자원봉사 시간 등이 요구됨에 따라 연령간 과도한 격차를 보여 국제 자료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 자료의 자원봉사 관련(인도적 및 자선 관련) 단체 참여율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기타 국가들간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 또한 미국, 일본, 스웨

덴과는 달리 60대의 참여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자원봉사 관련(인도적 및 자선 관련) 단체 참여율 차이를 통해 연령유연성을 살펴보면, 20세 미만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군에서 참여율이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 일본이 가장 작았고(0.87) 그 다음이 한국(1.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은데 기인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독일이 중간 수준이며 60세 이상 연령군의 높은 자원봉사 관련(인도적 및 자선 관련) 단체 참여율로 인해서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가 참여율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표 5-7〉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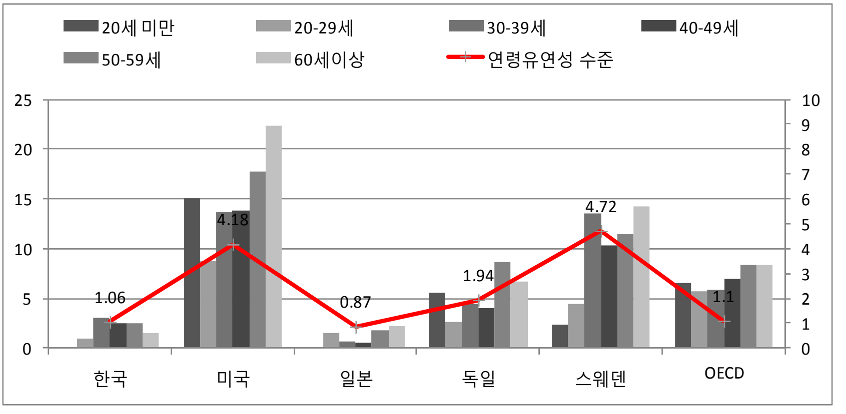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2)
전체 인구	2.0	15.8	1.5	5.6	10.9	7.1
20세 미만	0.0	15.1	0.0	5.6	2.3	6.5
20~29세	0.9	8.8	1.5	2.7	4.5	5.7
30~39세	3.0	13.7	0.7	4.4	13.5	5.9
40~49세	2.5	13.8	0.5	4.0	10.3	7.0
50~59세	2.5	17.8	1.8	8.6	11.5	8.4
60세 이상	1.5	22.3	2.2	6.7	14.2	8.3
연령유연성 수준	1.06	4.18	0.87	1.94	4.72	1.1

주: 1) 2012년 기준임.
2)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WVS의 '인도적 자선단체 참여 비율'을 의미함.
3)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그림 5-4]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2)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WVS 자료를 통해 국가 차원의 선거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활용하여 국제비교를 해보면, 한국 및 비교 국가들은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WVS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에의 적극적 참여율을 보여, 60세 이상 연령군의 선거에의 적극적 참여비율이 가장 높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경향 성과도 유사하다.

연령별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해 연령유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20대 연령군의 투표 적극성이 60%대인 것에 비해 60대 이상의 연령군은 95%에 가까이 투표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연령군별 차이가 가장 크다. 그 다음은 미국이 연령군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함께 정치참여에 있어서의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높은 국가인 것이다. 반면 모든 연령군의 투표 적극성이 고르게 나타난 스웨덴(3.24)의 경우 수치가 가장 작다.

〈표 5-8〉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연령별 투표율)

(단위: %)

구분	한국[1]	한국[2]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54.2	85.0	79.9	90.3	83.4	93.8	88.7
20∼29세	41.6	67.6	64.4	78.4	80.4	89.2	79.1
30∼39세	45.5	83.4	71.5	87.6	70.1	92.4	86.2
40∼49세	52.6	93.9	81.8	92.0	80.0	93.9	90.2
50∼59세	62.4	93.2	87.5	93.0	86.6	95.8	91.6
60세 이상	68.6	94.6	92.4	96.6	92.7	98.9	93.8
연령유연성 수준	10.12	10.44	10.29	6.29	7.66	3.24	5.2

주: 1) 2012년 기준임.
2) 한국(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3)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4)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1)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2).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 한국과 독일 등 기타 국가: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3)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스포츠 및 레져, 문화예술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통하여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WVS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한국과 기타 국가들 간에 공통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20세 미만의 젊은 연령군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한국, 독일, 미국은 60대 이상의 연령군에서 스포츠, 레저 등의 문화예술 단체 참여율이 가장 낮다. 한편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30~50대 연령군의 참여율은 낮지만 60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문화예술 단체 참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스포츠 및 레저, 문화예술 단체 참여율 차이를 통해 연령유연성

을 살펴보면, 독일 및 미국의 경우 20세 미만 연령군의 참여율과 전체 참여율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20세 미만의 연령군의 스포츠 및 레저, 문화예술 단체 참여율은 31.8%로 높지만 다른 연령군은 15%~20% 미만대의 비교적 고른 참여율을 보여 중간 정도의 연령군별 차이(7.47)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특히 스웨덴은 연령군별로 스포츠 및 레저, 문화예술 단체 참여율이 고르게 나타나 연령군별 차이가 각각 5.08과 4.22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절대적인 참여율도 높으면서 연령군별 차이가 적다는 점에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국가로 분류된다.

〈표 5-9〉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2)]
전체 인구	15.0	23.2	19.2	30.9	30.9	24.0
20세 미만	31.8	43.4	30.6	50.0	36.4	41.2
20~29세	16.1	24.7	20.8	39.5	31.5	28.1
30~39세	17.0	24.4	17.7	35.8	30.8	23.2
40~49세	15.4	24.0	15.7	31.8	36.9	23.8
50~59세	16.6	21.2	17.5	27.7	24.6	21.7
60세 이상	8.3	20.1	21.5	24.4	29.8	21.1
연령유연성 수준	7.47	8.44	5.08	9.28	4.22	7.40

주: 1) 한국과 독일 등 기타 국가 (스포츠 및 레져, 문화예술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
2)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한국과 독일 등 기타 국가 :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4)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사회활동 영역에서는 다양한 연령집단이 자원봉사활동, 정치활동,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통해 연령통합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은 대체적으로 절대적 참여수준은 낮고 연령군별 차이는 큰 국가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연령군에서 자원봉사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으나, 투표를 통한 정치활동의 참여는 60세 이상 연령군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기타 비교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고령화 정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정도의 연령유연성을 보였으나, 문화여가활동 참여는 60세 이상 고령 연령군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군별 차이는 한국보다 적은 편이다. 자원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연령유연성도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은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연령유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고 연령유연성이 낮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연령유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스웨덴은 정치활동 참여와 문화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연령군별 차이 없이 고르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유연성이 높은 사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회활동 영역에서의 국가별 참여의 절대적인 수준과 연령유연성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 종합

7개 지표를 통하여 연령유연성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표 5-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연령유연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치활동 참여율의 경우는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연령군별 차이가 크다. 국제비교 결과 전반적인 연령유연성 수준은 스웨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개별국가의 전체적인 수준과 연령유연성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교육기관 등록률	낮음	큼	유사	중간	유사	중간	유사	중간	유사	적음
평생교육 참여율	낮음	큼	중간	적음	매우 낮음	적음	중간	큼	높음	큼
실업률	양호	양호	높음	양호	양호	적음	높음	양호	높음	높음
안정적 고용률	높음	큼	-	-	-	-	-	-	-	-
자원봉사 참여율	낮음	적음	높음	큼	낮음	적음	중간	적음	높음	큼
정치활동 참여율	높음	큼	높음	큼	높음	중간	높음	중간	높음	적음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낮음	큼	높음	큼	낮음	적음	높음	큼	높음	적음

주: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내린 상대적인 평가임.

2. 한국의 연령다양성 수준

가. 가족

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

지원의 교환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표가 확보되지 않아 국내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표 역시

전 연령층의 지원 교환 실태가 아닌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는 부양의 실태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65세 이상을 5세 단위로 하여 가족 내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 교환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5-11〉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동거 자녀가 있는 한국 노인)28)

(단위: %, %p)

구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수혜	제공	교환의 차이	수혜	제공	교환의 차이	수혜	제공	교환의 차이
전체 인구	-	-	-	-	-		-	-	
65~69세	39.6	12.5	27.1	59.4	61.5	2.1	49.6	73.2	23.6
70~74세	49.6	7.7	41.9	57.4	56.8	0.6	58.3	71.1	12.8
75~79세	47.8	7.6	40.2	59.6	51.7	7.9	68.1	71.1	3.0
80~84세	46.8	6.7	40.1	68.6	55.6	13.0	83.7	65.3	18.4
85세 이상	44.1	6.2	37.9	67.3	40.4	26.9	90.8	43.6	47.2
연령별 지원교환의 차이(최대값-최소값)	8.2	6.3	-	9.9	21.1	-	41.2	29.6	-

주: 1) 2013년도 기준
2) 경제적인 자원 교환은 정기적인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지원이 조사되었는데 생계와 관련한 지원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를 기입함.
3)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고민상담 등의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도구적 지원의 교환은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일상생활의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 이뤄진 경우를 의미함.
4) 수혜는 1세대가 2세대 자녀에게 도움을 받은 경우이며, 제공은 1세대가 2세대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의미함.
5) 교환의 차이(%P)는 연령별로 지원의 수혜와 제공의 세대 간 절대값의 차이를 나타내며 1세대가 2세대의 지원의 교환의 정도차이가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자 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8) 가족간 지원의 교환 지표와 관련하여 국제비교가능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최신 국내통계(2014년도 노인복지실태조사)를 제시함. 한국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이나 그에 준하는 국제적인 조사인 유럽 13개국 대상의 고령자 패널자료인 SHARE(Stud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등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제한점이 있음.

65세 이상 1세대와 그 자녀인 2세대 사이에서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의 교환을 수혜와 제공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는 1세대가 2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정서적 지원의 경우에는 1세대와 2세대의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도구적 지원의 경우에는 후기노인층 미만의 1세대가 2세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가 2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1세대·2세대가 함께 살면서 정서적 지지와 청소·세탁·식사 준비 등의 지원을 상호 교환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거가족 내에서 1세대와 2세대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의 경우 70~74세가 수혜와 제공의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크고,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85세 이상의 경우 수혜와 제공의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 가족의 경우 초고령 노인층 미만의 1세대와 2세대 간 정서적 지지 등의 지원과 청소, 식사 준비 등의 도구적 지원의 교환이 비교적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세대 간 지원의 교환 차이가 연령별로 달라지는지 살펴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도구적 지원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에 비해 도구적 지원 교환이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전기 노인층에 비해 후기 노인층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지원의 도움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12〉 가족간 지원의 교환 정도(비동거 자녀가 있는 한국 노인)29)

(단위: %, %p)

구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수혜	제공	교환의 차이	수혜	제공	교환의 차이	수혜	제공	교환의 차이
전체 인구	-	-	-	-	-	-	-	-	-
65~69세	32.0	3.0	29.0	64.2	61.2	3.0	36.4	17.0	19.4
70~74세	40.1	2.7	37.4	64.5	58.1	6.4	43.2	13.9	19.3
75~79세	47.5	1.8	35.7	64.2	52.2	8.0	48.4	10.9	37.5
80~84세	48.6	1.5	47.1	66.5	48.6	7.9	49.2	5.9	43.3
85세 이상	49.3	0.8	48.5	63.6	39.5	0	52.2	4.7	47.5
연령별지원 교환차이4)	17.3	2.2	-	2.9	21.7	-	15.8	12.3	-

주: 1) 2013년도 기준임.
2) 경제적 지원 교환은 정기적인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지원이 조사되었는데 생계와 관련한 지원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를 기입함.
3) 교환의 차이(%P)는 수혜율-제공률로 세대 간(1세대-2세대) 지원 교환의 차이를 나타냄.
4) 최대값-최소값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령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의 1세대의 수혜율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1세대의 연령이 높을수록 2세대에 대한 제공률은 낮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1세대의 수혜율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세대에 대한 제공률은 1세대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도구적 지원에서 1세대의 수혜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제공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다. 이를 통하여 비동거 가족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도움은 대체적으로 1세대가 2세대로부터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지원교환의 차이를 살펴보면 1세대의 수혜율에 있어 가장 큰 연령별 차이를 보인 것은 경제적 지원이고(17.3%p) 1세대의 제공률에 있어 가장 큰 연령별 차이를 보인 것은 정서적 지원(21.7%p)의 교환 영역이다. 이는 1세대가 초

29) 가족지원의 교환 지표와 관련하여 국제비교가능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최신 국내통계(2014년도 노인복지실태조사)를 제시함.

고령층에 진입할수록 1세대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정기 현금 지원의 경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1세대의 2세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동거가족과 비동거가족의 세대 간 지원교환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동거가족의 경우 경제적·정서적·도구적 지원의 교환에 있어 1세대의 수혜율이 높다. 이는 동거가족이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의 교환에 있어 세대간 교환의 정도가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 비동거가족의 경우 1세대·2세대 간 지원 교환의 격차(수혜율-제공률)가 가장 큰 영역은 경제적 지원의 교환이며 이는 동거가족의 세대 간 지원의 교환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교환의 경우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세대 간 지원 교환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75~79세의 연령대에서 비교적 세대 간 정서적 지원 교환 정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교류 시간

가족교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으로 한국, 미국, 일본에서 분 단위로 총계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체인구로 집계한 연령이 한국의 경우 10세 이상, 미국과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이고, 시간사용량 기준 역시 1주일 또는 24시간 등 기준이 달라 국가간 실질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미국의 경우 연령별로 가족교류 시간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매년 미국인의 활동유형별, 성별, 고용형태별, 가구유형별로 생활시간량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2009년~2013년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이 하루 24시간 동안 배우자와 보낸 시간은 유배우자는 184분,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 보낸 시간은 유배우자의 경우 78분, 무배우자의 경우

120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2013년 평균 가사활동시간(Household Activities)은 55~64세 성인이 120분, 65~74세 성인은 144분, 75세 이상 성인은 144분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령별 가족교류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족교류 시간이 가장 적은 연령층은 학생연령층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연령층은 65세 이상 연령층이다.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고령층일수록 가족의 수발이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표 5-13〉 연령별 가족교류 시간

(단위: 분,%p)

구분	한국[1] (2009)	미국[2] (2014)	일본[3] (2006)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10세 이상)	171	160 (15세 이상)	128/주 (15세 이상)	-	-	-
학생 (초중고, 대학생)	59	2009-2013년 평균 생활시간 조사됨 (55+, 65+)	-[3]			
성인 (20세 이상)	193					
노인 (65세 이상)	212					
연령별 가족교류 시간 차이최대값-최소값)	151	-	-	-	-	-

주: 1) 가족교류 시간은 하루 24시간동안 가족과의 식사,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 관련이동시간의 총합.
2) American TUS 2014에서 가족교류 시간은 가사활동시간과 가족돌봄시간의 총합으로 조사됨. 가사활동시간은 하루 24시간 동안 집안일, 음식준비와 설거지, 정원 돌보기, 가정관리, 집안팎 정리정돈 및 수리, 애완동물 관련 일, 차량 관련 일, 가사관련이동시간의 총합임. 가족돌봄시간은 어린자녀와 성인구성원 돌봄시간의 총합임.
3) 일본의 경우 1주일 동안 가사일 및 관련활동시간량으로서 가사일, 수발 및 요양, 자녀 돌봄, 쇼핑(Housework, Caring or nursing, Child care, Shopping)시간의 총합. 연령별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결과표가 없음
4) 독일의 경우 2003년이 최근자료이나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지 않으며 북유럽 국가 중 덴마크의 경우 2001년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자료: 1) 한국: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2)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2014). American Time Use Survey,
3) 일본: 통계국(2006). *2006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가족내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이 핵가족화된 현 사회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가족간 지원교환의 경우 우리나라 외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족교류 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9년 데이터가 있고, 미국은 2014년 데이터가 있어 시점이 다르지만 각각의 편의상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비교결과 가족간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나라는 171분, 미국은 160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을 배우자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가족교류 시간은 65세 이상 성인이 하루 24시간 동안 배우자와 보낸 시간,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 보낸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가사활동시간의 경우에도 고령층 성인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55~64세 성인은 120분, 65~74세 성인은 144분, 75세 이상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국은 65세 이상으로만 발표되고 있다.

나.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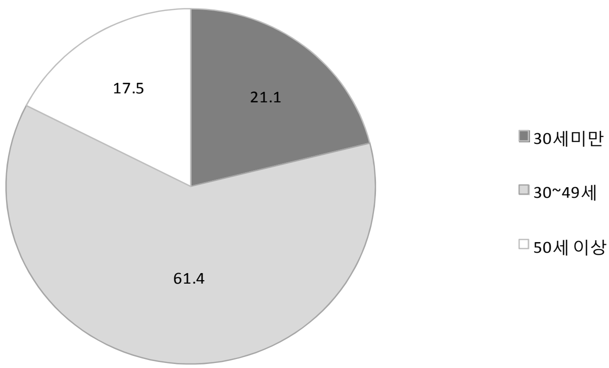
1)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일터의 연령유연성은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근로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30~49세가 61.4%로 가장 많고, 30세 미만 21.1%, 50세 이상 17.5% 순이다. 따라서 30세 미만 및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38.6%이다. 즉, 직장 내에서 10명 중 절반 이상인 6명은 30~49세이며, 4명은 30세 미만 및 50세 이상이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2014년 연령군별 인구구성과 비교한다면, 20세 이상 인구 대비 30세 미만 및 50대 이상의 인구비율은 59.2%[30]로 직장 내에서 30세 미만 및 50대 이상 인구비율은 우리나라 인구구성비에 비해 20.6%p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연령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 직장에서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5-5〕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한국)

(단위:%)



주: 2011년 기준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2). 2012 사업체패널 원자료.

2)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연령구성을 살펴본 결과, 30세 미만 및 5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38.6%로 우리나라 동일 인구구성비율 59.2% 보다 20.6%p 낮은 수준이다.

---

30) 20대 17.0%, 30~49세 40.8%, 50대 이상 42.3%

다. 공동체

1)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50세 이상 중 대중교통에 대하여 만족하는 비율은 한국이 71%로 다른 비교국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의 면적이나 대중교통정책의 차이로 인한 것 일수도 있고, 주관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5-14〉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71	62	60	69	65	-

주: 2012년도 기준임.
자료: HelpAge International, (2015). *Global Age Watch Index 2015.*

2)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WVS에서는 20대, 40대, 70대의 사회 내에서의 위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대가 가장 점수가 높아 10점 만점에 7.14점이며, 다음은 70대로 4.38점, 20대가 4.35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40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높은 사회적 위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20대와 70대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도 40대를 가장 사회적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확연하다.

비교대상 국가의 대부분이 40대 〉70대 〉20대의 순서임에 비하여 스

웨덴의 경우만 70대가 가장 사회적 위상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전체로 볼 때, 미국이 가장 뚜렷하게 연령대별(20대, 40대, 70대 이상)로 상이한 사회적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군 사이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위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은 사회구성원이 각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 평가를 유사하게 하고 있다. 즉, 특정 연령대의 사회적 위상 평가가 다양한 연령층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에 비하여 상이한 연령층(20대, 40대, 70대)에 대한 위상평가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비하여 응답자의 연령별 태도의 차이가 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연령군별로 상이하게 사회적 위상을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청년층에서 다른 연령층 특히 70대의 사회적 위상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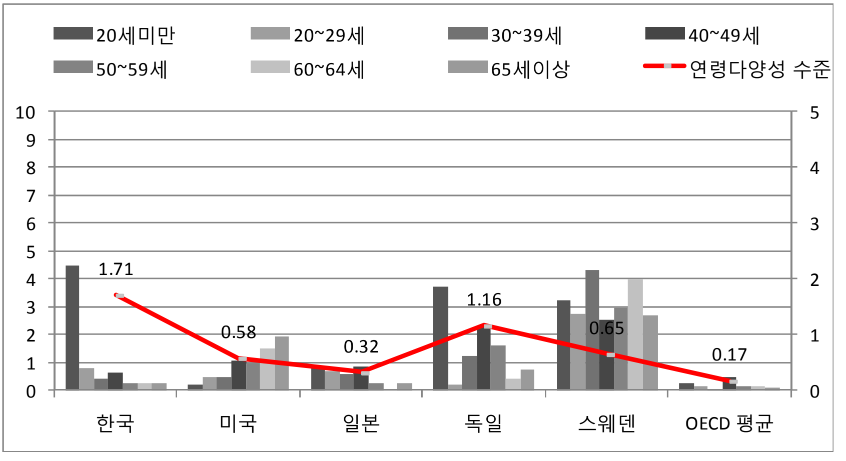
〈표 5-15〉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0.06	0.84	0.44	1.24	3.08	0.08
20세 미만	4.46	0.2	0.88	3.74	3.24	0.26
20~29세	0.80	0.48	0.70	0.20	2.74	0.14
30~39세	0.44	0.48	0.56	1.26	4.30	0.06
40~49세	0.66	1.08	0.88	2.30	2.52	0.46
50~59세	0.28	0.98	0.26	1.62	2.98	0.14
60~64세	0.26	1.52	0.02	0.44	4.00	0.16
65세 이상	0.24	1.92	0.28	0.74	2.68	0.08
연령다양성 수준31)	1.71	0.58	0.32	1.16	0.65	0.17

주 : 1) 2012년 기준임
2) (20대 평균 점수와 40대 평균 점수의 차이)+(40대 평균 점수와 70대 평균 점수의 차이)+(20대 평균 점수와 70대 평균 점수의 차이)의 절대값
3) 각 연령대별 개별문항의 빈도표는 부표(〈부표 4-1-①〉~〈부표 4-1-⑨〉)참조.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31) 연령다양성 수준은 제4장에서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로, 숫자가 클수록 연령다양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이하 동일함.

[그림 5-6]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3)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상이한 연령군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연령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관련 자료는 없지만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59.3%가 20대와 70대 연령군을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구분되는 연령군으로 보고 있으며, 19.6%는 집단이기 보다는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11.4%는 상이한 공동체에 속한 집단이다, 9.7%는 한 집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응답은 상이한 공동체라고 보는 응답으로 11.4%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5.4%, OECD평균은 11.7%이다. 이러한 응답 결과에 있어서 연령군별 차이는 그리 뚜렷하지는 않다.

〈표 5-1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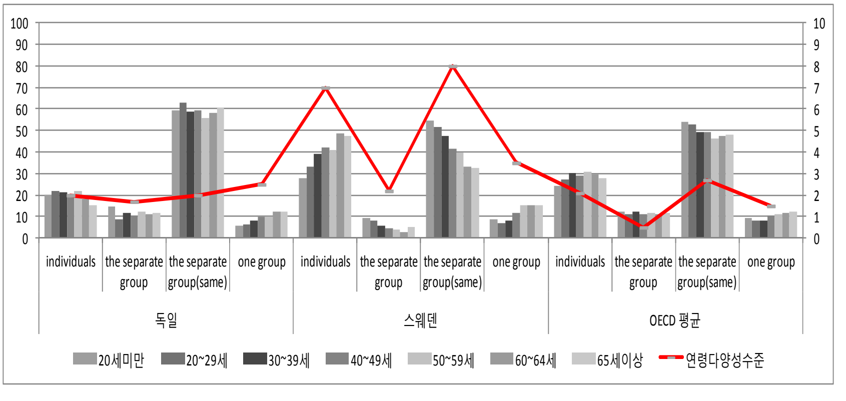
구분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전체 인구	19.6	11.4	59.3	9.7	40.8	5.4	42.0	11.8	28.8	11.7	49.1	10.3
20세 미만	20.3	14.8	59.4	5.5	27.7	9.2	54.6	8.5	24.2	12.4	53.9	9.4
20~29세	21.7	9.0	63.0	6.2	33.1	8.4	51.4	7.2	27.3	11.4	52.9	8.4
30~39세	21.0	11.9	58.8	8.2	38.9	5.6	47.5	7.9	30.0	12.5	49.3	8.1
40~49세	20.0	10.5	59.5	10.0	42.3	4.5	41.6	11.7	28.9	11.3	49.3	10.6
50~59세	21.8	12.4	56.1	9.8	41.0	3.7	39.9	15.3	30.8	11.7	46.2	11.2
60~64세	18.5	11.2	57.9	12.4	48.7	2.6	33.1	15.6	29.8	11.1	47.4	11.7
65세 이상	15.6	11.9	60.4	12.1	47.3	4.9	32.7	15.1	28.0	11.7	47.8	12.4
연령다양성 수준	2.0	1.7	2.0	2.5	7.0	2.2	8.0	3.5	2.1	0.5	2.7	1.5

주: 1) 2009년도 기준임.
2) "How see people in their 20s and over 70s" 문항에 대한 분석
3) 1번: Individuals rather than groups, 2번: Two separate groups not same community 3번: Two separate groups same community, 4번 :One group
4) ES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중, OECD 회원국(2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 ESS(European Social Survey) 2008년도 원자료 분석

〔그림 5-7〕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단위: %)



자료 : ESS(European Social Survey) 2008년도 원자료 분석

4) 주요결과 및 시사점

지역사회의 연령다양성을 살펴본 결과 물리적 환경은 나쁘지 않으나 사회전반이 40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40대가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20대나 70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 평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70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 이들 연령대가 노인세대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종합

6개 지표를 통하여 연령다양성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표 5-18〉과 같다. 연령유연성에 비하여 정의에 상응하는 통계원 확보가 미흡하며 국제비교 또한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시적이지는 않아도 국제적으로 연령유연성에 비하여 연령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 정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내의 연령다양성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환경의 확보도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위상평가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으며, 이는 연령다양성을 저해하는 문화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 사회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표 5-17〉 개별국가의 전체적인 수준과 연령다양성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가족 지원의 교환	비교적 활발	-	-	-	-	-	-	-	-	-
가족교류 시간	-	-	-	-	-	-	-	-	-	-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	-	-	-	-	-	-	-	-	-	-
50세 이상의 대중교통 만족도	높음	.	높은편	.	높은편	.	높은편	.	높은편	.
사회적 위상의 격차	낮음	큼	중간	작음	낮음	작음	중간	큰편	높음	작음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	-	-	-	-	-	낮음	작은편	높음	작은편

주: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내린 상대적인 평가임.

3. 한국의 연령형평성 수준

가. 건강

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국민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적당수준의 신체활동은 주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으로 통용되고 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은 중등도~고등도 신체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근 1주일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했거나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많이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3일 이상 실천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비율을 통해 연령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단, 걷기활동의 경우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실천될 수 있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5-18〉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19.9%가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서 신체활동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는 26.0%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약간씩 낮아짐을 볼 수 있

다. 한편 60세를 기점으로는 평균을 밑도는 결과를 보여, 60세~64세에서는 13.3%, 65세 이상은 12.0%를 나타냈다. 노화 자체는 불가항력적 요인일 수 있으나, 부차적으로 특정 연령층의 건강행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연령집단간 차이로는 50~59세와 60~64세 사이가 6.6%p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노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적당수준 이상의 신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는 미국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표 5-18〉 연령별 신체활동 실천율의 차이

(단위: %)

구분	한국	구분	미국
전체 인구	19.9	전체 인구	53.3
19~29세	26.0	18~44세	59.0
30~39세	21.2	45~64세	50.4
40~49세	20.5	65~74세	48.3
50~59세	19.9	75세 이상	32.8
60~64세	13.3	-	-
65세 이상	12.0	-	-
연령형평성 수준[32]	4.9	연령형평성 수준	11.0

주: 1) 한국: 2013년 기준임.
2)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Adults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중 'Participation in leisure-time aerobic and muscle-strenghthening activities that meet 2008 federal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자료 활용함. 단, 연령군별 원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원데이터의 연령구분 그대로 활용함.
3) Eurostat의 'Practice of daily Physical activity' 관련 통계가 존재하나, 독일, 스웨덴 등의 일부 국가 조사결과 수집되지 않음.

자료: 1)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Adults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32) 연령형평성 수준은 제4장에서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이며, 숫자가 클수록 연령형평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됨. 이하 동일함.

2)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정신건강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인 우울증은 자살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다.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 중 10.7%는 우울증상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5세 이상에서 14.8%, 50~59세 13.1%, 60~64세 12.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29세에서 10.4%의 결과를 보였다. 은퇴시점과 맞물린 50세 이후부터 우울증상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소외감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에서 그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9~29세의 경우 최근 경제악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구직난 등이 작용하여, 우울증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30~49세는 취업, 결혼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비교적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우울증상률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는 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5-19〉 우울증상률의 연령별 차이

(단위: %)

구분	한국	독일	스웨덴	구분	미국
전체 인구	10.7	4.8	2.0	전체 인구	7.6
19~29세	10.4	-	-	12~17세	5.7
30~39세	7.6	-	-	18~39세	7.4
40~49세	8.3	-	-	40~59세	9.8
50~59세	13.1	-	-	60세 이상	5.4
60~64세	12.6	-	-	-	-
65세 이상	14.8	-	-	-	-
연령형평성 수준	2.6	-	-	-	1.8

주: 1) 한국: 2013년 기준임.
2) 독일, 스웨덴: Europe Social Survey(2012) 중 'I felt depressed, how often past week' 문항에 'some, most, all or almost of the time'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계산함. 단 원데이터에서 연령군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값을 분석하지 못함.
3)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9~2012. Depression in the U.S. Household Population, 2009~2012. 자료 활용함. '지난 2주간 우울증상을 중간이상 경험한 비율'임. 단 가구중심 분석값임.

자료: 1)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 Europe Social Survey(2012)에서 2015. 9. 23. 반출
3) 미국: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4). *Depression in the U.S. Household Population, 2009~2012.*

3)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전반적인 미치료율은 12.4%로 독일의 6.0%나 EU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13.6%에 달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만 19세 이상의 미치료율은 12.4%, 65세 이상에서 16.7%, 60~64세 12.9%, 50~59세 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율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40~49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0.9%)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령층에서는 정보부족, 활동제약 및 경제적 이유 등으

로 인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령별 미치료율과 전체 미치료율의 차이는 미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편이지만 EU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과 관계없이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중요하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표 5-20〉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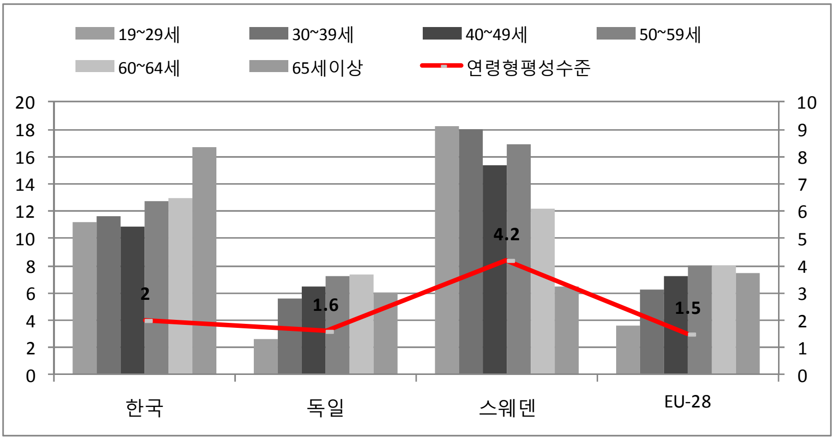
구분	한국	구분	독일2)	스웨덴2)	EU (EU-28)	구분	미국3)
전체 인구	12.4	전체	6.0	13.6	6.9	전체 인구	14.3
19~29세	11.2	16~24세	2.6	18.2	3.6	12세이하	4.0
30~39세	11.6	25~34세	5.6	18.0	6.2	12~17세	5.3
40~49세	10.9	35~44세	6.5	15.4	7.2	18~44세	19.7
50~59세	12.7	45~54세	7.2	16.9	8.0	45~64세	21.7
60~64세	12.9	55~64세	7.3	12.2	8.0	65세 이상	5.9
65세 이상	16.7	65세 이상	6.0	6.5	7.4	-	-
연령형평성 수준	2.0	연령형평성 수준	1.6	4.2	1.5	연령형평성 수준	8.3

주: 1) 한국: 2013년 기준임.
2) 독일, 스웨덴, EU(EU 28개국 분석대상)의 경우 'Euro Stat(2013)' 원데이터 중 'Unmet needs for medical care' 변수에 대하여 재분석함. 원데이터에서 제공가능한 10세단위 연령군(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6개군)에 따라 파악함.
3)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의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중 'During the past 12 months, was there any time when needed medical care, but did not get it because couldn't afford it?(Excludes dental care)'와 'During the past 12 months, has delayed seeking medical care because or worry about cost(Excludes dental care)?' 두 문항에 대한 합계임. 단, 타 국가와 달리 치과치료가 포함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치료 케이스만 포함되었음.

자료: 1) 한국: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EU: Euro Stat(2013)에서 2015.9.23. 반출.
3)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그림 5-8]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단위: %)



주: 1) 독일, 스웨덴, EU의 경우, 연령구간은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됨.
2) 미국의 경우, 병의원 및 치과 미치료율까지 포함된 수치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4)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건강영역에서 모든 연령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신체활동 실천율과 우울증상률,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주요지표 중 신체활동 실천율을 제외하고 부적방향(-)으로 향하는 우울증상률 및 미치료율이 6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활동 실천율은 건강유지 및 관리의 일환으로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였는가를 파악하였다.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19.9%가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연령이 높으면 그 비율 역시 낮아 연령군별 차이를 드러냈다.

한 사회의 정신건강 정도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우울증상률은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10.7%이며,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65세 이상 14.8%, 다음은 50~59세 13.1%, 60~64세 12.6%의 순이다. 한편, 19~29세 집단 역시 10.4%의 경험률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전 연령층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연령군마다 당면한 취업, 결혼, 은퇴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나아가 우울증으로 발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미치료율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및 접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받지 않은 경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2.4%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연령별 비율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상군에서 동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에는 정보부족, 활동제약 및 경제적 이유 등이 접근성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육·정보화

1)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를 OECD 자료의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세~44세 연령군에 있어 타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25~34세에서 두드러졌다. 그러나 45세 이상의 연령부터는 수치가 낮으며, 55~64세에서는 48%로 타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타 국가와 비교할 때 연령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지며, OECD 평균과도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교육 수준(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연령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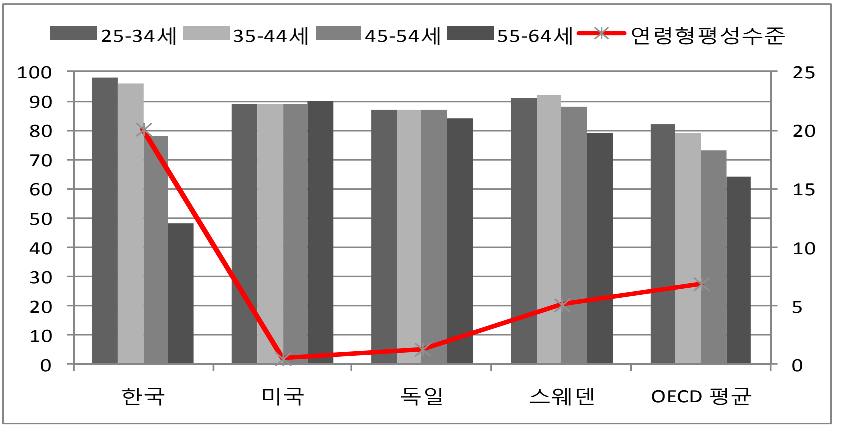
구분	한국	독일	미국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25~64세)	82	86	89	88	75
25~34세	98	87	89	91	82
35~44세	96	87	89	92	79
45~54세	78	87	89	88	73
55~64세	48	84	90	79	64
연령형평성 수준	20.1	1.3	0.5	5.1	6.9

주: 1) OECD 교육지표 중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의 비율을 살펴봄. 'upper secondary education'은 ISCED의 정의와 같이 중등교육 혹은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한 중등교육 과정을 의미함.
2) OECD(2014)년 발간자료를 참조하였으나, 실제 통계는 2012년 집계수치임.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그림 5-9]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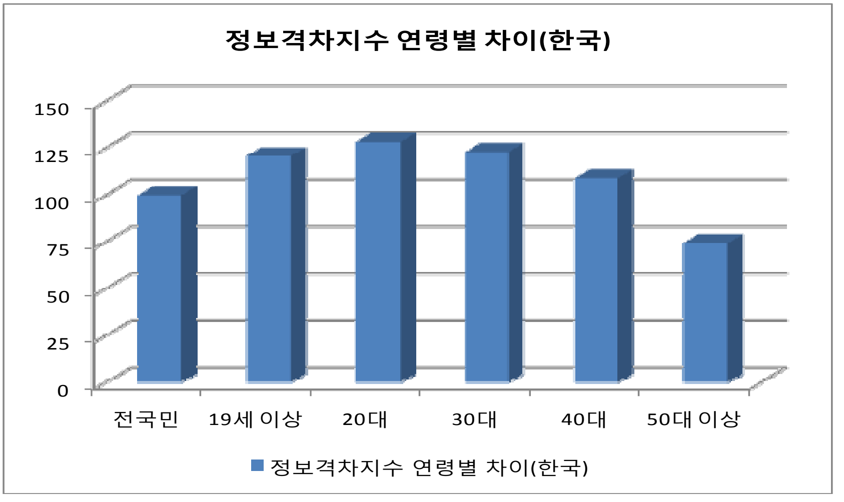
(단위: %)



2)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정보화 격차지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 매우 커, 전국민 평균에 비하여 74.3%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대가 128.3%임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이다.

〔그림 5-10〕 정보격차지수의 연령별 차이(한국)



주: 1) 전국민은 7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2) 정보격차지수는 접근지수(7개 지표), 역량지수(15개 지표), 양적 활용지수(3개 지표), 질적 활용지수(2개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됨. 현재, 연령군별로 재분석할 수 있는 원자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4). 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를 통해 연령형평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45세 이전에는 비교적 연령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45세 이후의 연령에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 수준의 경우도 50대 이상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의 연령별 형평성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상당부분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득·주거

1)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5.2%로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16.0%)이나 미국(17.9%)과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율을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군별 빈곤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5.2%이나, 66~75세에서는 가장 높은 45.6%이며, 그 다음 51~64세에서는 17.3%로 나타났다. 즉, 51세 이상 연령에서 평균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여 소득안정성이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연령, 즉, 0~50세의 빈곤율은 평균보다 낮은 7.1~10.5% 수준이다. 이 중 빈곤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26~40세로 전체 평균의 1/2 수준인 7.1%이다. 그 다음 41~50세가 8.9%, 0~17세 9.7%, 18~25세 10.5%이다.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는 독일이 2.13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 일본 3.24, 미국 4.11, 스웨덴 4.22이다. 우리나라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인 13.72는 66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군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비교국가의 76세 이상 후기노인의 빈곤율은 10.8~26.4%로 우리나라의 1/4~1/2 수준이다.

국가별로 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41~50세의 빈곤율이 낮고 18~25세의 빈곤율이 높은 공통적인 경향성이 있다. 독일의 전체 인구 빈곤율은 8.4%로 비교국가 중 가장 양호한데, 41~50세의 빈곤율은 5.6%로 가장 낮고 그 다음 0~17세가 7.4%이다. 반면 18~25세의 빈곤율은 가장 높은 12.5%이며, 그 다음 76세 이상이 10.8%이다. 미국의 빈곤율

은 17.9%로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76세 이상이 26.4%로 가장 높다. 그 다음 0~17세와 18~25세가 각각 20.9%와 20.7%로 아동 및 청소년층의 빈곤율이 높다. 반면 미국의 26~75세는 미국 평균 빈곤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이 중 41~50세의 빈곤율은 가장 양호한 13.6%, 그 다음 51~65세 15.4%, 26~40세 16.0%, 66~75세 16.9% 순이다.

일본은 전체 빈곤율이 16.0%로 OECD평균 보다 높은 편이지만, 76세 이상의 22.8%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군은 10% 대이다. 이중 26~40세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12.7%이며, 그 다음 41~50세 13.2%이다. 스웨덴의 빈곤율은 9.0%로 비교국가 중 두 번째로 양호하다. 18~25세와 76세 이상만 각각 17.8%와 13.5%로 10%를 초과하는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표 5-22〉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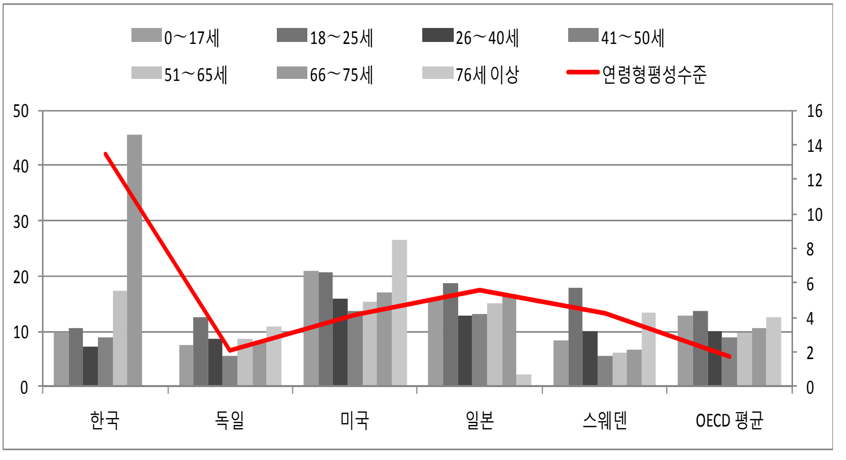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15.2	8.4	17.9	16.0	9.0	11.0
0~17세	9.7	7.4	20.9	15.7	8.3	12.9
18~25세	10.5	12.5	20.7	18.7	17.8	13.7
26~40세	7.1	8.5	16.0	12.7	9.9	10.0
41~50세	8.9	5.6	13.6	13.2	5.6	9.0
51~65세	17.3	8.7	15.4	15.1	6.1	9.6
66~75세	45.6	8.1	16.9	16.6	6.6	10.6
76세 이상	-	10.8	26.4	22.8	13.5	12.6
연령형평성 수준	13.72	2.13	4.11	3.24	4.22	1.71

주: 1) 독일과 스웨덴, 미국은 2012년, 일본 2009년, 한국 2011년 기준임.
2) 한국은 66세~75세가 아닌 66세 이상을 의미함.
3) OECD평균은 빈곤율이 제공된 32개국의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그림 5-11]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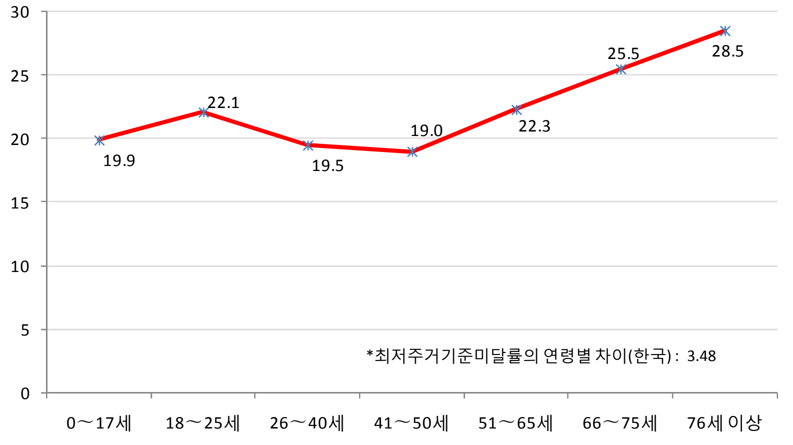


주: 1) 독일과 스웨덴, 미국은 2012년, 일본 2009년, 한국 2011년 기준임.
2) OECD평균은 빈곤율이 제공된 32개국의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2)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정부발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1.1%이다. 76세 이상의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은 28.5%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그 다음 66~75세 또한 25.5%로 높다. 반면 41~50세와 26~40세의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은 각각 19.0%와 19.5%로 주거안정성이 가장 양호하며, 이들의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0~17세도 19.9%로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이 낮은 편이다.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형평성 수준은 3.48로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림 5-12〕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한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4).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율 차이에 비하여(13.72),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차이는 낮다(3.48). 10세 이상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15.2%이며, 51세 이상 연령에서 평균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여 소득안정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 중 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5.6%로 가장 높다. 빈곤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26~40세로 66세 이상의 1/6 수준인 7.1%이다.

국제비교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각각 2.7%p와 0.8%p), 연령별 차이는 어떠한 국가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빈곤율과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가 가장 양호한 국가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가별로 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41~50세의 빈곤율이 낮고 18~25세의 빈곤율이 높은 공통적인 경향성이 있다.

한편 정부발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21.1%이며, 51세 이상 연령의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은 낮은 편이다. 76세 이상의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은 28.5%로 가장 높고, 41~50세가 19.0%로 가장 낮다.

라. 종합

7개 지표를 통하여 연령형평성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한 〈표 5-23〉을 보면 삶의 영역별로 연령형평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낮음을 볼 수 있다. 건강영역의 경우 신체활동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연령형평성도 큰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증상 경험에 있어서의 연령형평성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미치료율의 경우도 전반적인 수준과 연령형평성 모두 높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즉, 건강영역은 전반적인 수준도 낮고 연령형평성도 낮은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보화 영역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진 교육시스템의 구축 결과, 절대적인 수준이 높고 연령형평성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격한 정보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연령형평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빈곤율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의 연령형평성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연령형평성은 미치료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3〉 개별국가의 전체적인 수준과 연령형평성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전체 수준	연령 군별 차이
신체활동 실천율	높지 않음	차이 있음	높음		-	-	-	-	-	-
우울증상률	높음	50대 이후 급증	높은편	적음	-	-	낮음	-	낮음	-
미치료율	높음	낮은편	높음	큼	-	-	낮음	작음	높음	중간
교육 수준	높음	큼	높음	적음	-	-	높음	적음	높음	중간
정보화 수준	-	큼	-	-	-	-	-	-	-	-
빈곤율	높은편	큼	높음	적음	높은 편	적음	낮음	적음	낮음	적음
최저주거기준 미달률	-	-	-	-	-	-	-	-	-	-

주: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진이 내린 상대적인 평가임.

제3절 한국의 연령통합 수준 변화 추이

국가별로 분명한 연령통합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시계열 통계의 확보가 가능한 5개 지표에 대하여 시계열 비교를 실시한 결과가 〔그림 5-13〕∼〔그림 5-17〕에 제시되어 있다[33].

연령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실업률’과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령별 실업률’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3.29로 OECD 평균 3.14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0.15), 이후 감소 추세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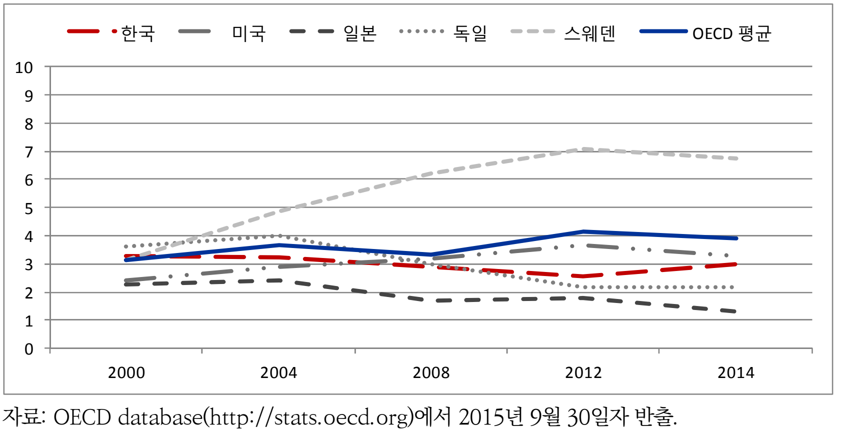
33) 연도별로 산출한 연령별 실업률은 부표를 참고할 것. 이하 본 절에서 살펴본 각 지표의 연도별 연령별 차이는 모두 부표에 제시되어 있음.

나 2004년에는 OECD 평균보다 0.45 낮고(한국 3.21, OECD 평균 3.66) 2014년에는 0.90 낮다(한국 2.98, OECD 평균 3.88).

비교국가 중 연령별 실업률 차이가 가장 양호한 국가는 일본으로, 2000년 2.26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1.69, 2014년 1.32이다. 미국은 분석기간 내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지만,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증가하는 추세로, 2000년 2.42, 2008년 3.19, 2014년 3.26이다.

독일은 연령별 실업률 차이가 2004년 3.99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2008년 3.01, 2012년 2.16, 2014년 2.17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2000년 3.13으로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4.85, 2012년 7.08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며 비교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3] 실업률에서의 연령유연성의 변화추이: 200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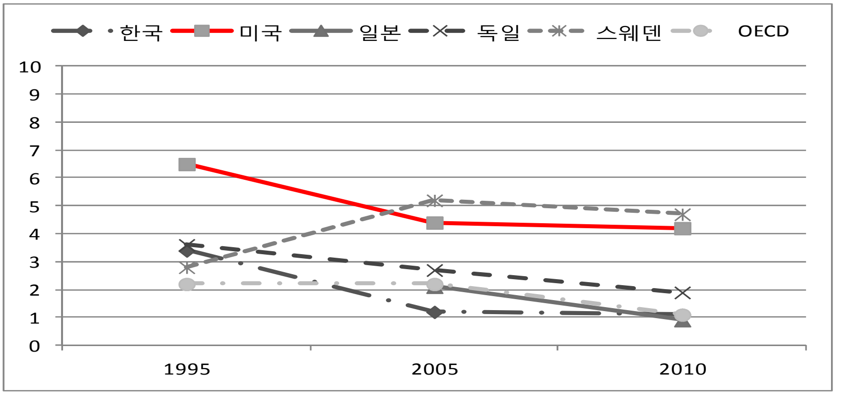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다음으로 사회참여 중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차이의 변화 추이는 [그림 5-14]와 같다.

한국의 경우, 1995년도에는 연령별 차이가 3.4였던 것에 반해, 2005년에는 1.2, 2010년에는 1.1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같은 경향은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전 연령층에 있어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한계로 한다. 특히 20세 미만 및 20~29세 등 비교적 젊은 층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가용자료원의 특성상 일부 국가에서 전 연령층에 대한 자료 취합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독일과 미국은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미국은 타 국가에 비해 전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비교국가들의 경향성과는 달리 최근 들어 그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폭의 증감률은 있으나, 최근 들어 젊은 층의 참여율은 감소하고 고령층의 참여율은 증가하는 경향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14] 자원봉사 참여율에서의 연령유연성의 변화 추이: 1995~2010년



주: 1) 가용자료원의 경우, 5년 주기로 공표되나 4차년도 조사(2000년)에서 본 문항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1995년 조사에서 제외되어 본 분석에서도 제외됨.
자료: World Value Survey (2010-2012). World Value Survey Wav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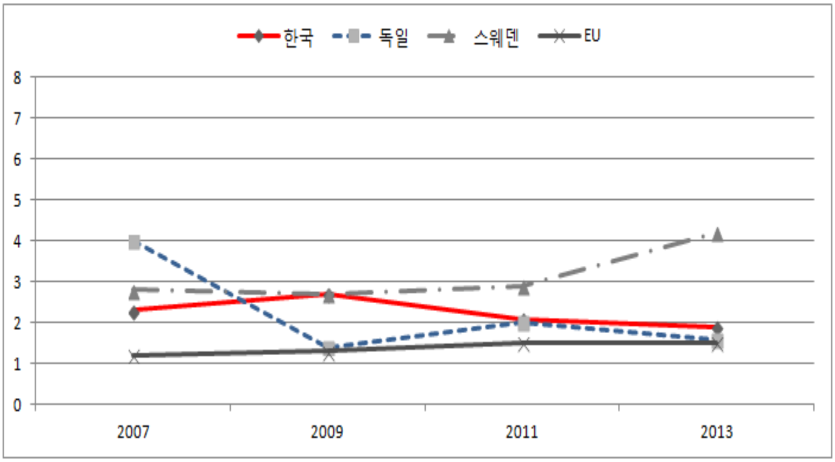
연령다양성과 관련해서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자료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였다. 반면, 연령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연령별 미치료율'과 '교육수준의 연령별 차이'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3개 개별지표에 대하여 시계열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건강영역의 연령형평성을 보여주는 '연령별 미치료율 차이'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폭의 증감추이를 보이나 2009년을 기점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경향성은 앞서 살펴본 연령별 차이에서와 같이, 이전 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들어 전 연령의 미치료율 응답률이 낮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역시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소폭의 증감률을 보이며, 최근 들어 그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타 국가와 달리 최근 들어 그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스웨덴의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는 2.7~2.9로 매우 유사한 분포 내에 위치하였으나, 2013년에는 4.2로 약 1.5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 년도와 달리 19~39세, 비교적 젊은 층의 미치료율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병의원을 알아보거나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15〕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의 연령형평성의 변화 추이: 2007~2013년

(단위: %)



자료 : 1) 한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2) 독일·스웨덴·EU : Euro Stat(http://appsso.eurostat.europa.eu) 2015.10.23. 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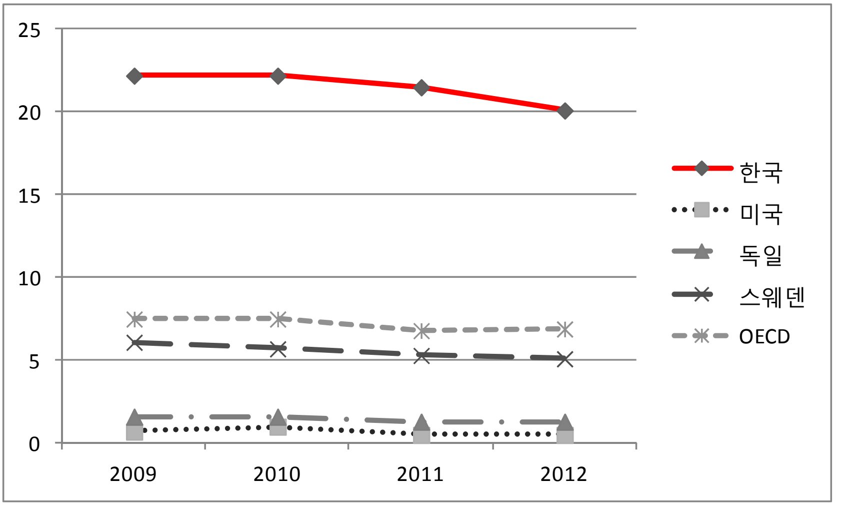
다음으로 교육·정보 영역에서의 연령형평성을 보여주는 ‘연령별 교육 수준의 차이’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OECD 자료를 통하여 격년주기로 한국, 독일, 미국, 스웨덴 및 OECD 국가의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타 국가 및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들긴 하였으나, 비교국가들 사이에서 월등하게 높은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구간별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단순비교한 것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50.0%p(25~34세 98%, 55~64세 48%)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국가들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령구간별로 교육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젊은 층의 경우 경제수준의 향상 및 교육과정 의무교육화 등으로 인해 10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내는 것에 반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독일, 미국 등은 전 연령별로 고른 교육 수준 분포

를 나타낸다. 두 국가에 비하여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별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16] 교육 수준에서의 연령형평성의 변화 추이: 2007~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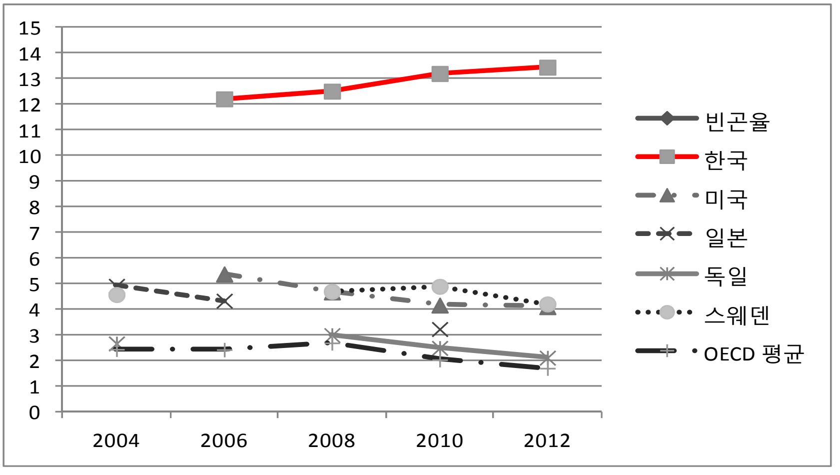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득·주거 영역의 연령형평성을 대변하는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의 변화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연령별 빈곤율 차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비교국가들의 감소 추세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연령별 빈곤율 차이는 2006년 12.22, 2008년 12.52, 2010년 13.21, 2012년 13.45이다.

비교국가 중에서 연령별 빈곤율 차이가 가장 양호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연령별 빈곤율 차이는 2004년 2.68, 2008년 3.00, 2010년 2.50, 2012년 2.12로 201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미국과 스웨덴도 분석 기간 중 연령별 빈곤율 차이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06년 5.39

에서 2012년 4.11로, 스웨덴은 2004년 4.59에서 2012년 4.22로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우 빈곤율 자료가 3개년 밖에 없지만, 감소 추세로 보인다. 2004년 4.93, 2006년 4.35, 2010년 3.24이다[34].

〔그림 5-17〕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형평성의 변화추이: 2004~2012년



주: 1) 한국의 2012년은 2011년, 미국의 2006년은 2005년, 일본의 2004년은 2003년, 2010년은 2009년 기준임.
2) 한국은 66세~75세가 아닌 66세 이상을 의미함.
3) OECD평균은 연도별로 빈곤율 자료가 제공된 국가에 한한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제4절 전문가의 평가

전문가 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의 연령통합정도는 5점 만점에 2.07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매우 낮다는 응답도 20.7%

34) 엄밀히 말하면 일본의 연령별 빈곤율 차이는 2003년 4.93, 2006년 4.35, 2009년 3.24임.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2.31점으로 실질적인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정도 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 절대적인 수준이 낮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령통합정도를 구성요소별로 비교해보면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1.86점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연령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간의 접촉과 교류에 대해서도 2.14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연령으로 인한 삶의 질 차이 발생에 대해서는 2.31점으로 3개 구성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이며 약 3/4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5-24〉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 및 사회적 관심 정도

(단위 : 비율, 점)

구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정도						평균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	-	3.4	20.7	55.2	20.7	100.0	2.07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정도	-	6.9	34.5	41.4	17.2	100.0	2.31

주: 평균은 5점 만점임.

〈표 5-25〉 구성요소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

(단위 : 비율, 점)

구분	구성요소별 우리사회 연령통합 정도						평균2)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	41.4	44.8	-	13.8	-	100.0	1.86
다양한 연령간의 접촉과 교류 부족	24.1	51.7	13.8	6.9	3.4	100.0	2.14
(단지) 연령으로 인한 삶의 질 차이 발생	13.8	62.1	10.3	6.9	6.9	100.0	2.31

주: 1) 부정적 내용의 문항으로 기존 보기값을 역코딩(매우 높음 1. 높음 2, 보통 3, 낮음 4, 매우 낮음 5) 하여 평균값 산출
2) 평균은 5점 만점임.

제시된 개별지표 중에서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지표로는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연령별 정치활동 참여율, 미치료율의 연령별 차이,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연령통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인 관심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는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연령별 실업률.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가족교류 시간, 연령대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등이 언급되었다.

제6장 결 론

6 결 론

본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표체계와 관련된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본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갖고 수정보완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제1절 주요 결과 종합

1. 연령통합 수준

연령통합 수준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한 사회의 연령통합 현황 및 연령분리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연령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통계자료원 검토, 해외출장(독일과 일본)을 통한 해외 전문가와 의견 교환,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조사에 기초하여 3개의 구성요소와 9개 영역, 20개의 개별지표로 구성된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연령통합지표 각각에 대하여 가용통계원이 있는 경우 적용한 결과 도출된 우리나라의 연령통합정도는 〈표 6-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령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투표참여를 제외하고는 교육, 경제활동, 자원봉사 및 문화여가활동 등에 있어서의 연령장벽이 높은 등, 연령유연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연령장벽 수준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연령유연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다양성의 경우는 가족, 일터, 지역사회 모두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가족의 경우 공식 교육과정에 있는 연령층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은데 이는 가족내의 연령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경우 물리적 환경보다는 문화적 환경이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층이 노년층을 사회적 위상이 낮은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른 국가에 비하여 중년층 중심의 사회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연령형평성과 관련해서는 건강, 교육·정보화와 소득·주거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평등이 두드러진다. 교육 수준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이므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과 주거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전반적인 빈곤율보다 빈곤율의 연령군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6-1〉 우리나라의 연령통합 현황

구성 요소	영역	한국	비고
연령 유연성	1. 교육	- 교육기회 및 평생교육 참여에 있어 연령유연성이 매우 낮음.	- 상대적으로 스웨덴의 연령유연성 수준이 높음.
	2. 경제활동	-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중간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안정적 고용률의 연령군별 차이가 매우 큼.	- 연령군별 실업률의 차이의 국가별로 양상이 다양함. · 일본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은 연령유연성이 악화되고 있음.
	3. 사회참여	- 활동종류별 상이한 양상을 보임. · 60세 이상에서 자원봉사와 문화여가활동 수준이 낮음.	- 자원봉사 활동 · 일본: 모든 연령군에서 참여율이 낮고 연령군별

구성 요소	영역	한국	비고
		· 60대 이상에서의 투표참여는 활발함. - 정치 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연령간 차이가 매우 큼.	\차이도 적음. · 미국와 스웨덴: 연령별 차이가 큼. - 정치 참여 · 스웨덴<일본<독일<미국<한국
연령 다양성	1. 가족	- 가족교류 시간이 학생층에서 가장 낮고, 65세 이상에서 높음.	-
	2. 일터	- 전체 연령구성에 비하여 직장 내에서 30세 미만 및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낮음.	-
	3. 지역사회	- 물리적 환경은 나쁘지 않으나 사회적 구성이 40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연령군별 위상 평가가 상이함. · 특히 20대나 70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 평가는 매우 낮은 편임.	-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40대>70대>20대의 순서임. - 스웨덴의 경우 연령군별 위상 평가가 상이한 폭이 적음.
연령 형평성	1. 건강	- 전반적으로 고령층에서 운동실천율이나 연령군별 차이가 크지는 않음. -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경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높고 특히 고령층에서 높은 경향임. - 미치료율의 절대적인 수준과 연령별 차이는 큰 편임.	- 스웨덴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건강 영역에서 미치료율이 높고 연령형평성도 낮은 편임. - 반면, 독일은 미치료율도 낮고 연령형평성도 높음.
	2. 교육·정보화	- 45세 이전에는 교육기회의 수준이 양호하지만 45세 이후의 연령에서는 매우 열악하며, 정보화 수준도 유사함.	- 전체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그로 인한 높은 연령형평성을 보이고 있음.
	3. 소득주거	- 빈곤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연령별 차이가 매우 크며, 연령형평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0대부터는 평균보다 높음.	- 독일이 빈곤율 수준과 연령군별 차이가 적은 편임.

2. 삶의 질 진단

본 지표체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령통합 수준에 대한 주요 진단 결과를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리 해보고자 한다. 개별지표는 〈표 4-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틀을 활용하였다.

삶의 질의 첫 번째 영역인 교육의 경우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연령군별 교육 수준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연령형평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교육시스템에 있어서의 연령장벽 또한 높아 평생동안 지속적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경제활동의 경우는 양적 측면에서 양호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불안정하며 특히 중노년층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터에서의 높은 연령분리는 우리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적 관행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사회참여 영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절대적인 참여수준과 연령유연성 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별로 각 국가가 보여주는 절대적인 수준과 연령유연성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개별국가의 문화적·제도적 기반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건강 영역의 경우 건강행위 수준도 높지 않고 각 연령군마다 인생단계별로 당면하고 있는 취업, 결혼, 은퇴 등의 개인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각 연령대별로 치료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미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소득·주거영역의 경우 전체적인 빈곤율이 결코 낮지 않으며 특히 연령군별 빈곤율의 차이가 크고 그러한 차이는 계속 증대해왔다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여섯째 가족영역의 경우는 비교적 도구적인 측면의 세대교류는 활발하지만 밀접한 활동의 공유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향후 가족관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사회 영역의 경우 세대분리와 세대간 이해의 부족 및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의 저하를 우려케 하는 현상이다.

제2절 영역별 정책적 함의

1. 교육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 평생교육 모두에서 연령유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인구절벽이 오면서 대학신입생 모집인원보다 지원자 인구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다가온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평생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함께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포함한 정규교육과정에서 연령유연성이 갖추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대학졸업 이후에도 다시 대학에 들어와서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학사학위를 받고서도 또 다시 다른 학문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활동

청년층과 노년층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령통합 지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령별 실업률 차이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군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차이는 매우 크며, 노년층이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제활동 영역에서 보다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고, 노년층의 안정적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층이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부문이 자영자나 임시/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고용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3. 사회참여

사회활동의 연령군별 참여율을 통해 연령통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회활동의 특성에 따른 연령유연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적 의무인 투표에서는 고연령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는 정치활동 참여에서의 낮은 연령유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개인적 참여 비용이 필요한 문화여가활동의 경우에는 비교적 고연령군의 참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사회활동 영역에서의 연령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련 활동과 문화여가활동에 고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더불어 청년층의 투표행위 등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족

가족내의 연령다양성 증대를 통해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내의 다양한 연령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세대간 이해교육이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향후, 생활의 장을 공유하지는 않더라도 시간 공유나 지원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일터

일터 영역에서 보다 연령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30세 미만과 50세 이상 근로자의 구성비율을 높여서 다양한 연령 간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일터에서의 연령구성은 근로자 개인의 노력 보다는 경영자 혹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6. 건강

건강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연령통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군에 따른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우울증상률과 미치료율과 같이, 부적(-) 측면의 지표에서 고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건강영역에서 고령층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 연령군이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관리는 자발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활동 증진 및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연령군별 건강상태를 감안한 서비스 보급 및 장소 마련 등의 정보제공 역시 연령대별 활용도를 감안하여 온·오프라인 매개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진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없는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질적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누구나 쉽게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 안전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적 인프라 마련과 함께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연령별 의료서비스 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강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7. 교육·정보화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해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구축되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평생교육의 기회가 나이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소득주거

소득·주거 영역에서 연령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소득안정성과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후기노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된다. 또한 금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주택바우처제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중위소득 43% 이하의 모든 65세 이상이 본 주택바우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주택개보수를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과 공동홈 제공 등의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문화적 측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재된 연령에 따른 권위주의와 타 연령에 대한 이해 부족을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령층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층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고령층이 자신의 능력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 언론,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 세미나 또는 토크컨서트를 통한 인식전환,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지표체계 관련 향후 과제

1. 지속적인 지표체계 개선

한 사회의 연령통합수준을 측정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이론적 발전과 경험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론적 기반에 기초하여 현실을 반영한 지속적인 지표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며, 국제적인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에 대한 영문자료를 마련하여 부록5에 제시하였다. 연령통합지표가 개발되었음을 국제적인 학술의 장에 알리고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국제세미나 등을 통한 다각적인 국제적 교류를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논의의 장을 통하여 지표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OECD 국가와의 비교 등 국제비교시 국가별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및 각 국가의 가용통계원과 가공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통계원 확보

유사한 통계가 있는 경우 시범적용해 보았지만, 본 연구가 제시한 각 개별지표의 정의에 정확히 상응하는 통계자료가 없거나 가공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향후 충실한 통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논의점을 영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참여

연령군별 사회 활동 참여의 차이를 보이기 위한 국내 자료의 확보는 비교적 수월했으나, 동일한 조건과 내용의 국제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동일한 조건의 국가비교를 위해서 약간의 구체적 지표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인도적 자선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활용하였고, 문화여가활동 참여율은 스포츠 및 레저, 문화 예술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한 국제비교가능한 통계자료 산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나. 가족

향후 가족간 지원교환이나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 대한 자료원을 확보하여 연령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2009년에 조사된 가족관련 생활시간은 가족과의 식사,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 가족교류 관련 이동시간 등 다양하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조사된 생활시간은 오직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봄 시간만 포함되어 가족 간 함께 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생활시간조사 내용이 2009년과 같은 내용을 조사되어야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나라의 조사 내용 중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내용이 2000년대 초반에 조사된 자료가 있지만, 그 이후 조사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국가 간 국제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자료원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내용의 변경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며, 관련 국제자료원의 확보 또한 중요하겠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1인가구나 독거노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가족 간 지원 교환의 정도나 가족성원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 일터

직장의 근로자 연령구성에 대한 국제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가 유일하다.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WPS)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전국 30인 이상 사업체 약 1,700여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관리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2006년을 시작으로 격년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인데(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li.re.kr/wps), 전체근로자 중 만 50세 이상과 만 30세 미만 근로자 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연령구성을 보다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20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 대해 10세 단위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라. 건강

연령군별 건강영역에서의 차이를 선정한 주요 지표들의 경우, 국외 자료원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우선 국가별로 정책대상의 주요 연령층이 상이하여, 국가별로 동일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또한 미치료율을 제외한 신체활동 실천율 및 우울증상률의 경우, 지표 측정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별 정의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료원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국가간 비교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영역의 주요지표들의 경우 국가별 보건관련 정책기조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그 변화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국가간 비교를 위한 표준화된 지표체계 마련 등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소득주거

정부발표 최저주거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가 없다. 다만 주거 관련 해외지표 중에는 OECD의 BLI 2015의 주거(Housing) 관련 Dwellings without basic facilities이 연령 구분없이 제공되고 있다[35]. 국제자료로서 연령통합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연령별로 가공 및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5) OECD 평균은 2.4%이며, 한국은 이보다 약 2배 높은 4.2%임. 그 외 독일 0.1%, 일본 6.4%, 미국 0.1%, 스웨덴 0%.

참고문헌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호. pp.9~51.

강신욱·이현주·김석호·박수진·박은경(2012).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강신욱·김안나·박능후·김은희·유진영(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정연·김윤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9), pp.323~334.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4).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김경희·양애경·문유경·김둘순·송치선 외(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책을 위한 연구(Ⅲ).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양해경·김둘순·송치선·이선민 외(2009).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책을 위한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선(2011). "연령주의적 관점에서의 고령자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욱(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pp. 97~118.

김주현(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pp.53~75.

김지연·김민희·민경환(2012a).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pp.89~106.

김지연·민경환·김민희(2012b).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pp.45~72.

노대명·강신욱·전지현(2010). 한국 사회통합지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박경숙(2004). “한국에서는 왜 연령 갈등이 심각한가: 구조화된 관계로서 연령주의의 지배와 차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보건복지부(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선우덕(2008). 노인 신체활동증진대책의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pp.25~36.
성경륭(2015). 한국 정치의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 세미나 자료집(2015. 6. 12).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5). 가족과 한국 사회. 경문사.
원영희(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pp.319~339.
이윤경(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0), pp.1~22.
이재열 · 조병희 · 장덕진 · 유명순 · 우명숙 · 서형준(2014). 사회통합: 개념과 측정,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21(2), pp.113~149.
정경희(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pp.11~26.
정경희 · 오영희 · 이윤경 · 박보미(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 이윤경 · 윤지은(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전국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2010).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2001).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순둘 · 이은진 · 기지혜 · 최혜지(2015). 연령통합척도 개발 및 타당성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pp.380~404.
정순둘 · 기지혜 · 최혜지(2012). 연령통합의 개념, 철학,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문가 인식과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8, pp.161~186.
정해식 · 김미곤 · 여유진 · 유진영 · 김성아(2014).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남상호·이윤경·정경희·박보미 외(2012).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경희(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2, pp.231~264.
최수정(2002).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성인간호학회지, 14(3), pp.401~410.
최유석(2015). 세대간 갈등과 연대의 국제비교.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 세미나 자료집(2015. 6. 12).
최혜지·박정화·권미리·정순둘(2015a). 고령사회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대상자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3), pp.107~124.
최혜지·전혜상·정순둘(2015b). OECD 국가비교를 통해 본 노인의 연령통합 좌표와 유용성. 사회복지정책, 42(2), pp.343~364.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_____(2010). 인구주택총조사.
_____(2014).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_____(2014).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실시” (2014. 6. 30. 보도자료)
_____(2015). “2014 한국의 사회지표” (2015. 3. 19. 보도자료).
_____(2014).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의(2009). 한국경제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12). 2012 사업체패널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노인복지지표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4).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pp.115~127.
한정원·장윤선·김양희·허라금(2008).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1): 수용성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영란·김태준·박종효·이현주·황여정(2014).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계 개선 전략 연구(Ⅱ): 미래 전망 및 세대통합성 진단검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김미란·최두진·황여정(2013).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정보체계 개선 전략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박영범·장원섭(2003).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전략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Cambridge, MA.
Albertini, M., & Kohli, M. (2013). The generational contract in the family: An analysis of transfers regime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 pp.828~840.
Bonoli, G.(2007). Time matters: Postindustrialization, new social risks and welfare state adaptation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5),* pp.495~520.
Butler, R.(1987). *Ageism.* New York: Springe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Adults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__________(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Council of Europe(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 Methodological guide.*
Cumming, E., & Henry, W.E.(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Basic Books.

Dannefer, D.(2011). Age, the Life Course,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Prospects for Theory pp. 3∼30. in R. H. Bonstock and L. K. Goe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7th Edition.* Academic Press.

European Commissions(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Europe Social Survey(2012). *Europe Social Survey Stat.* 2015. 9. 23. 반출.

Eurostat(2015). *Quality of Life: Facts and Views.*

EuroStat(2013). *Euro Stat.* 2015.9.23. 반출.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2012). *Older Americans 2012: Key Indicators of Well-Being.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U.S.*

Fraboni, M., Saltsome, R., & Hughes, S.(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f Aging, 9,* pp.56~60.

Gøsta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lasgow, R, Ory et al.(2005). Practical and Relevant Self-Report Measures of Patient Health Behaviors for Primary Care Research. *Annals of Behvior Medicine, 3(1),* pp.73~81.

Help Age International(2014). *Global AgeWatch Index 2014 Report.*

______________________(2015). *Global Age Watch Index 2015.*

Henretta, J. (2000). The Future of Age Integration in Employment. *The Gerontologist, 40(3),*pp.286-291.

Hoschild, A., & Machung, A.(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Viking.

Huber E. and J. D. Stephens(2004). *Combating Old and New Social Risks.* Paper presented at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uropeanists, Palmer House Hilton, March 11-13, 2004.

Jackson, R., Howe, N. & Nakashima, K.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SIS.

Kohli, M. (2005). Do intergenerational transfers from eldery parents increase social inequality among their middle-aged children? Evidence from the Germ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60B(1)*, pp.s30~s36.

__________(2004).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heritance: A comparative view. in Silverstein, Merril (e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cross time and place,* pp.266`~289.

__________(2000). Age Integration Through Interest Medication: Political Parties and Unions. *The Gerontologist*, *40(3)*, pp. 279~281.

__________(1999). Private and public transfers between generations: Linking the family and the state. *European Societies, 1(1),* pp.81~104.

__________(1988). Ageing as a Challenge for Sociological Theory. *Ageing and Society, 8,* pp.367∼394.

Kohli, M.., Albertini, M., & Kinemund, H. (2007). Linkages among adult family generations: evidence from comparative survey research". in Patrick Heady and Martin ohli(eds). *Family, kinship and state in contemporary Europe, Vol.3 Perspectives on theory and policy, Frankfurt/M, Campus,* pp.225~248.

Land, K. C. (1975). *Social Indicators Models.* Russell Sage Foundation.

Laws, G.(1995).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1),* pp.112~118.

Levin, J. & Levin, W.(1982). *Ageis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Belmont, CA : Wadsworth.

Lewis, J., & Giullari, S.(2005). The Adult Worker Model Family, Gender

Equality and Care: The Search for New Policy Principles and the Possibilities and Problems of a Capabilities Approach. *Economy and Society, 34(1),* pp.76~104.

Lockwood, D.(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London:Routledge.

Lowenstein, A.(2007). Solidarity-Conflict and Ambivalence: Testing Two Conceptual Frameworks and Their Impact on Quality of Life for Older Family memb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2B,* pp.S100~S107.

Moen, P.(2001). *The gendered life course.* Binstock, Robert, H.(ed) : George, Linda, K.(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5th ed).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4). *Depression in the U.S. Household Population, 2009~2012.*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_____(2014). *Soial Indicators 2014.*

_____(2014). *Better Life Index 2014.*

_____(2014). *Education at a Glance.*

_____(2011). *How's Life.*

Palmore, E. , Branch, J. & Harris (2004) (Eds.). *Enclyclopedia of Ageism.* Binghamto, NY. The Haworth Pastoral Press.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pp.572~575.

______________(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______________(1988). *The facts on ageing quiz.* NY: Springer Publishing Co.

Palmore, E, B., & Manton, K.(1973). Ageism compared to racism and sexism. *Journal of Gerontology, 28(3)*, pp.363~369.

Pierson, Pl.(2001). *Post-industrial Pressure on the Mature Welfare States.*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pp.266~270.

Riley, M. W., Foner, A., & Riley, J. W., Jr. (1999). *The aging and society paradigm.* In Bengtson, V. L., & Schaie, K. W. (Eds.), Handbook of Theories of Ag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Riley, M. W., & Riley, J. W. Jr. (1999), Sociological research on age, *Ageing and Society, 19(1),* pp.123~135.

Riley, M. W., Kahn, L. R., &Foner A. (1994). *Age and Structural Lag: Society's Failure to Provide Meaningful Opportunities in Work, Family, and Leisure.* NY: Wiley.

Riley, M. W.(1998). *The Hidden Age Revolution: Emergent Integration of All Ages.* Policy Brief.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Report 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EC Commission.*

Statistics Bureau of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 (2006). *2006 Survey on Time Use and Leisure Activities.*

Spitze, G., & Loscocco, KA.(2000). The Labor of Sisyphus? Women's and Men's reactions to housework. *Social Science Quarterly, 81(4),* pp.1087~1100.

Taylor-Gooby, P.(2004). *New Risks and Social Change.* Peter Taylor-Gooby(ed.),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OUP.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2007). *Positive Ageing Indicators* 2007.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ew Zealand.

Uhlenberg, P.(2000a), Integration of old and young. *The Gerontologist, 40(3),* pp.276~279.

__________________ (2000b).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pp.261~266.

__________________ (2009). Children in an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Gerontology. 64B(4),* pp.489∼496.

Uhlenberg, P. & Gierveld, J.(2004). Age-segregation in later life: an examination of personal networks. *Ageing and Society, 24,* pp. 5∼28.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2014). *Active Ageing Index.*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14). *American Time Use Survey 2014.*

Vanhuysse, P.(2013). "Measuring Intergenerational Justice: Toward a Synthetic Index for OECD Countries", in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i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29 OECD Countries, Gutersloh, Bertelsmann Stifung.

World Value Survey(2014). *World Value Survey Wave6 (2010-2014)* 2015.10.6. 반출.

Young, M.(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15. 10. 1. 반출)

미국 노동통계청 http://www.bls.gov/

일본 통계청 http://www.stat.go.jp/english/index.htm

OECD database http://stats.oecd.org (2015. 9. 30. 반출)

부록 1. 해외출장 보고

1. 독일

□ 출장일시: 5월 18일 ~ 5월 23일

□ 출장자: 정경희

□ 주요 방문 기관

○ Martin Kohli 인터뷰

- Emeritus Professor of Sociology,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Distinguished Bremen Professor, Breme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s)

○ Harald Kunemund 인터뷰

- University of Vechta 교수, 연령통합 및 세대관계 전문가

○ German Centre of Gerontology (DZA) 방문 및 FGI 실시

- Prof. Dr. Clemens Tesch-Romer(Director), Dr. Kathariana Mahen, Dr. Oliver Huxhold, Mr. Heribert Engstler

□ 주요 논의 사항

○ 연령통합의 구성요소 검토

-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와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 라는 기존의 구성 요소 외에 연령으로 인한 삶의 질의 차이가 없는 사회, 다양한 생애단계별 과업의 해결, 노인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라는 구성요소를 설정한 것의 적절성 논의

○ 개별 지표 검토

- 객관적 측면 외에도 주관적 측면을 고려할 것인지, 그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논의
-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환경의 구성비의 적절성 논의
- 개인에게 구현된 현상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노력도 고려하여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논의

○ data availability 검토

○ 향후 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

2. 일본

□ 출장일시: 6월 11일 ~ 6월 13일

□ 출장자: 정경희

□ 주요 방문 기관

○ 노인복지 시설 방문

- 요코하마 나카구 후로초(不老町)

○ 제29회 일본노년학회총회 합동대회 및 제57회 일본노년의학회학

술대회 참석(요코하마 Pacifico YOKOHAMA, 컨퍼런스 센터)

- 주요주제: 노인의 연령규정에 관한 재검토, 치매예방 방안에 관한 다학제적 접근
- 발표논문: 고령자에 관한 정의의 재검토(아라이)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노년질환의 시대추이: 유병률은 고령기로 이동하고있는가(아키시타, 동경대학 가령의학강좌), 일본 고령자의 정의를 재고한다(스즈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연구소 등

○ 연령통합 및 연령차별 관련 전문가 인터뷰(일본여자대학교, 인문사회학부, Harada Ken, Ryoko Kuroiwa)

- 주요주제: 일본에서의 연령통합.연령차별 관련 연구동향,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 청취

□ 노년학의 최근 동향 파악

○ 건강상태 증진을 기반으로 한 노인연령기준에 대한 논의

- 2013년 아사히신문(2013.7)에 노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신체능력으로 볼 때 75세 이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의료제도 및 연금 등의 설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임이 기사화됨.
- 2015년 6월 12~14일(요코하마)에 개최된 제29회 일본노년학총회(주제: 고령자에 관한 정의의 재검토를 주제로 6개 논문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명 발표
  - 10~20년 전에 비하여 노인의 건강상태가 5~10년 상향되었으므로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을 위하여 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활기있게 만드는데 있어 중요함.

- 비공식 인터뷰에 의하면 워킹그룹을 형성하여 5년 정도 검토할 예정이며, 국민장수의료연구센터가 주축이 되고 있음.
- 발표논문이 대부분 경험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졌음을 밝히고 활동적 노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일본이 노후생활보장체계 구축에 대한 자신감과 고령인구 증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학술적으로 연령통합 보다는 연령차별에 대한 관심이 크며, 노년기 변화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큰 편임.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연령통합 지표(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 다음 질문에 대하여 별도의 붙임자료(전문가 조사용 개별지표.hwp)를 기초로 하여 답변해주십시오.

▣ 연령통합지표체계의 구성요소의 적합성과 중요도

1.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성 요소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1	연령유연성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는 사회					
2	연령다양성	다양한 연령간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					
3	연령형평성	(단지) 연령으로 인한 기본적인 삶의 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2. 각 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대하여 순위(가장 중요한 것부터: 1위→2위→3위)를 부여 해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간단히 기술해주십시오.

구성 요소		중요도 순위	비고
1	연령유연성	______위	
2	연령다양성	______위	
3	연령형평성	______위	

3. 제시한 3개 구성요소 외에 추가해야 할 요소가 있으면 제안해주십시오. 또한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간단히 기술해주십시오.

____

____

____

____

____

▣ 구성요소별 영역 설정의 적절성과 포괄성

4. 각 구성요소별로 설정된 영역중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으시면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성 요소	영역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영역 (없으시면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연령유연성 • 내용: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는 사회인가? • 영역 설정: 교육/고용/사회참여 등 주요한 활동의 종류를 반영	1. 교육 2. 고용 3. 사회참여	
연령다양성 • 내용: 다양한 공적·사적 영역 내 연령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인가? • 영역 설정: -자아를 중심으로 한 층위(가족, 일터, 공동체)별로 영역 구성 -공동체의 경우 사회성원간의 상호작용의 활성화와 관련한 물리적· 문화적 기반 파악	1. 가족 2. 일터 3. 공동체	
연령형평성 • 내용: 연령과 무관하게 기본 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인가? • 영역 설정: 모든 연령층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구성	1. 건강 2. 교육 및 정보화 3. 소득 및 주거	

5. 기타 영역구성과 관련한 의견(영역의 추가 및 삭제, 영역명칭 등)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십시오.

▣ 개별지표의 적절성과 중요도

6. 각 영역별로 제시한 측정 목표가 해당 영역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성요소	영역	측정 목표	측정 목표의 적절성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연령 유연성 【7개】	1. 교육	연령에 의한 교육 기회의 정도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도					
	2. 고용	연령에 의한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연령에 의한 안정적 고용 기회의 제한 여부					
	3. 사회 참여	자원봉사 참여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정치 참여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문화여가활동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연령 다양성 【6개】	1. 가족	다양한 연령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족구조인가 여부					
		다양한 연령의 가족성원간 상호작용 정도					

구성 요소	영역	측정 목표	측정 목표의 적절성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2. 일터	다양한 연령의 직장동료간 상호작용 기회					
	3. 공동체	연령간 상호작용의 물리적 기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이동 및 활동에 있어 제한이 없을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연령간 상호작용의 문화적 기반 (각 연령군의 동등한 사회적 위상이 확보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연령집단간 사회적 통합 (다양한 연령군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하는가 여부)					
연령 형평성 【7개】	1. 건강	신체활동실천에 있어 연령별 차이의 정도 (신체적 건강의 대표지표인 만성질환의 경우 신체적 노화에 따른 경험율이 증대하므로 제외)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2. 교육 및 정보화	인적자본 수준의 연령별 차이					
		디지털 격차의 연령별 차이					
	3. 소득 및 주거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주거기본선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7. 각 영역(9개 영역)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측정목표가 있다면 기술해주십시오.

____

____

____

____

____

8. 개별지표가 측정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별지표를 구성요소별로 2개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성 요소	영역	개별지표	측정목표 대비 지표의 적절성					구성 요소별 주요 지표 (2개)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연령 유연성 【7개】	1. 교육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2. 고용	1-3. 연령별 실업률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3. 사회참여[1]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1-6. 연령별 정치 참여율						
		1-7. 연령별 문화여가 활동 참여율						
연령 다양성 【6개】	1. 가족	2-1. 3세대 가족의 비율						
		2-2 가족교류 시간						
	2. 일터	2-3. 사업체별 근로자의 연령구성						
	3. 공동체	2-4. 유니버셜 디자인 구현율						
		2-5.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						
연령 형평성 【7개】	1. 건강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3-2. 우울증상 경험률의 연령별 차이						
		3-3. 미치료의 연령별 차이						
	2. 교육 및 정보화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3. 소득 및 주거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9. 제시한 개별지표 외에 추가해야 하거나, 삭제했으면 하는 지표, 또는 개별지표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술해주십시오.

____

____

____

____

____

▣ 개별지표 제시 방법

10. 앞서 개발한 개별지표를 삶의 질의 영역별로 배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와 같이 연령 통합 구성요소별로 제시하는 것과 아래와 같이 삶의 질 영역별로 제시(연령 통합 구성요소를 하위영역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_)

① 연령 통합 구성요소별(예시: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로 개별지표 제시
② 삶의 질 영역별(예시: 교육, 노동, 사회참여, 건강, 소득 및 주거, 가족, 공동체)로 재배치하여 개별지표 제시
③ 연령 통합 구성요소별로 개별지표를 제시하되 보조적으로 삶의 질 영역별로 재구성한 서술 추가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1.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

____

____

____

____

연령통합 구성요소 / 삶의 질 영역 7개영역 총 20개 개별지표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영역1: 교육 【4개 지표】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영역2: 노동 【3개 지표】	1-3. 연령별 실업률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2-3. 사업체별 근로자의 연령구성	-
영역3: 사회참여 【3개 지표】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1-6. 연령별 정치참여율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	-
영역4: 건강 【3개 지표】	-	-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3-2. 우울증상 경험률의 연령별 차이 3-3. 미치료의 연령별 차이
영역5: 소득 및 주거【2개 지표】	-	-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영역6: 가족 【2개 지표】	-	2-1. 3세대 가족의 비율 2-2. 가족교류 시간	-
영역7: 공동체 【3개 지표】	-	2-4. 유니버셜 디자인 구현율 2-5.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	-

▣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정도 평가

1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정도와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영역	영역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정도					
연령통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12.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해당칸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					
다양한 연령간의 접촉과 교류 부족					
(단지) 연령으로 인한 삶의 질의 차이 발생					

13. 제시된 개별지표 중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사회적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시된 20개 개별지표 중 각각 5개를 골라서 개별지표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준이 높은 개별지표	향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개별지표

▣ 기타

14. 제시된 연령통합지표체계와 관련하여 기타 제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____
____
____
____
____

15.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제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____
____
____
____
____

※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귀하의 일반사항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소속 및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성 명 : ________________
3. 성별: 남 ( ), 여( )
4. 최종학위 취득 시기: __________년

부록 3. 전문가 조사 결과

〈부표 3-1〉 연령통합 수준 파악에 있어 구성요소의 타당성

(단위 : 비율, 점)

구성요소		구성요소의 타당성						평균[1]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합계	
연령 유연성	연령으로 인한 제도적 진입장벽이 없는 사회	78.6	17.9	3.6	-	-	100.0	4.75
연령 다양성	다양한 연령간의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	60.7	28.6	10.7	-	-	100.0	4.50
연령 형평성	(단지) 연령으로 인한 기본적인 삶의 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	35.7	42.9	10.7	10.7	-	100.0	4.04

주: 1) 평균은 5점 만점임

〈부표 3-2〉 영역별 측정목표의 적절성

(단위 : 비율, 점)

구성요소	영역	측정 목표	측정 목표의 적절성						평균[3]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합계	
연령 유연성 【7개】	1. 교육	연령에 의한 교육 기회의 정도	41.4	44.8	10.3	3.4	-	100.0	4.24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정도	62.1	31.0	6.9	-	-	100.0	4.55
	2. 고용	연령에 의한 고용 기회의 제한 정도	72.4	20.7	3.4	3.4	-	100.0	4.62
		연령에 의한 안정적 고용 기회의 제한 여부	48.3	37.9	13.8	-	-	100.0	4.34
	3.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27.6	41.4	27.6	3.4	-	100.0	3.93
		정치 참여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37.9	27.6	31.0	3.4	-	100.0	4.00
		문화여가활동의 연령 보편성 (또는 특정 연령대에 치중되고 있는 정도)	55.2	37.9	6.9	-	-	100.0	4.48
연령 다양성 【6개】	1. 가족	다양한 연령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족구조인가 여부	20.7	31.0	41.4	6.9	-	100.0	3.66
		다양한 연령의 가족성원간 상호작용 정도	55.2	31.0	13.8	-	-	100.0	4.41
	2. 일터[1]	다양한 연령의 직장동료간 상호작용 기회	55.6	33.3	7.4	3.7	-	100.0	4.41
	3. 공동체	연령간 상호작용의 물리적 기반 (물리적 요인에 의한 이동 및 활동에 있어 제한이 없을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58.6	31.0	10.3	-	-	100.0	4.48
		연령간 상호작용의 문화적 기반 (각 연령군의 동등한 사회적 위상이 확보될 때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가능)	48.3	37.9	13.8	-	-	100.0	4.34
		연령집단간 사회적 통합 (다양한 연령군을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식하는가 여부)	65.5	24.1	6.9	3.4	-	100.0	4.52
연령 형평성 【7개】	1. 건강	신체활동실천에 있어 연령별 차이의 정도 (신체적 건강의 대표지표인 만성질환의 경우 신체적 노화에 따른 경험율이 증대하므로 제외)	24.1	34.5	27.6	13.8		100.0	3.69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41.4	41.4	13.8	3.4		100.0	4.21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의 정도	58.6	31.0	3.4	3.4	3.4	100.0	4.38
	2. 교육 및 정보화	인적자본 수준의 연령별 차이[2]	35.7	35.7	25.0	3.6	-	100.0	4.04
		디지털 격차의 연령별 차이	37.9	41.4	13.8	6.9	-	100.0	4.10
	3. 소득 및 주거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65.5	20.7	6.9	6.9	-	100.0	4.45
		주거기본선 확보에 있어서의 연령별 차이	41.4	41.4	10.3	6.9	-	100.0	4.17

주: 1) 무응답 수치(2명)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무응답 수치(1명)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평균은 5점만점임.

〈부표 3-3〉 개별지표의 측정목표 타당성

(단위 : 비율, 점)

구성요소	영역	개별지표	측정목표 대비 지표의 타당성						평균[2]
			매우 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매우 부적합	합계	
연령 유연성	1. 교육	1-1. 연령별 교육기관 등록률	20.7	37.9	24.1	13.8	3.4	100.0	3.59
		1-2. 연령별 평생교육 참여율	44.8	24.1	31.0	-	-	100.0	4.14
	2. 고용	1-3. 연령별 실업률	37.9	37.9	10.3	10.3	3.4	100.0	3.97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34.5	48.3	10.3	6.9	-	100.0	4.10
	3. 사회참여	1-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1]	21.4	50.0	25.0	3.6	-	100.0	3.89
		1-6. 연령별 정치 참여율	17.2	48.3	24.1	10.3	-	100.0	3.72
		1-7. 연령별 문화여가활동 참여율[1]	46.4	39.3	10.7	3.6	-	100.0	4.29
연령 다양성	1. 가족	2-1. 3세대 가족의 비율	10.3	24.1	48.3	13.8	3.4	100.0	3.24
		2-2 가족교류 시간	41.4	37.9	20.7	-	-	100.0	4.21
	2. 일터	2-3. 사업체별 근로자의 연령구성	28.6	53.6	10.7	7.1	-	100.0	4.04
	3. 공동체	2-4.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율	42.9	39.3	10.7	7.1	-	100.0	4.18
		2-5.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의 격차	24.1	48.3	24.1	3.4	-	100.0	3.93
		2-6. 다양한 연령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비율	58.6	34.5	6.9	-	-	100.0	4.52
연령 형평성	1. 건강	3-1. 신체활동 실천율의 연령별 차이	20.7	37.9	31.0	10.3	-	100.0	3.69
		3-2. 우울증상 경험률의 연령별 차이	34.5	34.5	20.7	10.3	-	100.0	3.93
		3-3. 미치료의 연령별 차이	48.3	27.6	13.8	6.9	3.4	100.0	4.10
	2. 교육 및 정보화	3-4. 교육 수준의 연령별 차이[1]	28.6	35.7	25.0	10.7	-	100.0	3.82
		3-5. 정보화 수준의 연령별 차이	27.6	51.7	13.8	6.9	-	100.0	4.00
	3. 소득 및 주거	3-6. 빈곤율의 연령별 차이[1]	71.4	17.9	3.6	7.1	-	100.0	4.54
		3-7. 최저주거기준미달률의 연령별 차이	48.3	37.9	10.3	3.4	-	100.0	4.31

주: 1) 무응답 수치(1명)를 제외하고 분석한 값임.
2) 평균은 5점만점임.

〈부표 3-4〉 개별지표 제시방법

(단위 : %)

제시방법	비율
연령통합 구성요소별 제시	37.9
삶의 질 영역별 제시	37.9
연령통합 구성요소별 제시 + 삶의 질 영역 보완	24.1
기타	-
합계	100.0

부록 4. 연령통합지표 시범 적용 결과

1. 사회적 위상의 연령별 차이 문항별 빈도표 (〈표 5-16〉 관련)

〈부표 4-1-①〉 20대의 사회적 위상: 한국, 독일

(단위: %)

구분	한국											독일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7.8	9.9	17.8	18.5	19.1	11.2	10.4	3.5	0.7	1.0	4.35	2.0	3.0	9.4	17.1	28.3	14.1	11.1	9.2	2.7	3.1	5.37
20세 미만	3.8	3.8	19.2	7.7	26.9	15.4	3.8	11.5	-	7.7	5.44	8.0	4.0	10.0	10.0	30.0	4.0	20.0	8.0	2.0	4.0	5.18
20~29세	9.8	5.7	17.5	23.2	13.4	13.4	11.3	4.6	0.5	0.5	4.41	0.3	3.4	8.8	14.2	31.5	12.5	12.2	8.8	3.7	4.4	5.56
30~39세	9.1	7.9	15.7	19.7	18.5	9.4	12.2	5.5	1.6	0.4	4.49	0.3	4.1	12.1	20.3	23.1	13.1	14.8	7.2	4.1	0.7	5.28
40~49세	6.8	10.8	20.1	16.1	28.5	10.0	6.4	0.4	0.4	0.4	4.09	1.3	3.6	9.9	25.5	25.5	12.7	7.0	9.4	1.8	3.4	5.18
50~59세	7.1	14.1	19.0	15.2	14.1	12.0	13.0	3.3	0.5	1.6	4.35	3.8	2.3	13.2	13.5	30.1	12.0	10.8	8.2	2.9	3.2	5.24
60~64세	5.8	17.4	12.8	24.4	14.0	5.8	12.8	2.3	1.2	3.5	4.30	2.6	1.3	6.6	13.2	32.2	15.1	14.5	9.2	0.7	4.6	5.58
65세 이상	7.5	8.5	19.8	16.0	19.8	16.0	8.5	3.8	-	-	4.34	2.6	2.6	6.0	14.7	28.9	19.1	9.6	11.3	2.6	2.8	5.52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43	-	-	-	-	-	-	-	-	-	-	0.17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2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②〉 20대의 사회적 위상: 미국, 일본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4.2	5.3	14.2	16.4	24.3	11.0	9.4	8.1	2.2	4.9	5.10	4.1	6.0	18.5	18.0	22.8	13.0	7.6	5.5	1.9	2.5	4.76
20세 미만	3.8	3.8	24.5	9.4	17.0	11.3	9.4	11.3	1.9	7.5	5.28	3.6	3.6	14.3	32.1	14.3	14.3	7.1	7.1	-	3.6	4.82
20~29세	5.0	3.1	13.4	17.2	22.2	12.9	12.4	7.9	1.4	4.5	5.17	6.3	9.7	17.6	23.9	15.5	9.7	8.8	5.0	0.8	2.5	4.45
30~39세	2.4	4.3	10.2	17.0	27.0	11.6	9.7	10.2	1.3	6.2	5.38	5.2	7.9	21.9	17.5	18.9	10.4	11.0	4.7	1.4	1.1	4.51
40~49세	5.2	7.7	14.0	16.4	20.5	12.1	8.8	7.4	3.0	4.9	5.01	4.1	5.4	23.4	17.4	23.7	14.4	6.8	25	0.3	1.9	4.49
50~59세	5.5	4.8	17.5	14.8	24.8	8.6	7.3	7.0	3.0	6.8	5.05	3.1	5.7	17.3	16.8	24.2	16.2	6.7	5.9	2.3	1.8	4.85
60~64세	6.5	5.9	13.4	18.8	27.4	5.4	8.1	7.0	2.7	4.8	4.87	4.5	5.3	15.2	14.8	28.3	12.3	7.0	6.1	1.2	5.3	4.97
65세 이상	1.4	7.0	14.4	16.3	27.0	12.7	9.3	8.5	2.0	1.4	5.00	2.8	3.7	15.3	17.7	25.3	13.4	6.0	8.2	4.3	3.2	5.13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16	-	-	-	-	-	-	-	-	-	-	0.25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2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③〉 20대의 사회적 위상: 스웨덴, OECD 평균

(단위: %)

구분	스웨덴											OECD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0.7	1.9	7.2	14.6	22.7	14.7	19.8	11.3	4.6	2.5	5.82	3.8	4.6	11.8	16.2	23.6	13.4	11.5	8.2	2.8	4.0	5.23
20세 미만	-	2.5	7.5	7.5	27.5	10.0	22.5	12.5	5.0	5.0	5.97	3.9	5.0	10.2	14.1	19.0	11.8	13.7	13.1	2.9	6.3	5.57
20~29세	1.5	2.1	6.2	12.9	15.5	21.1	25.8	7.7	4.1	3.1	5.91	4.4	4.1	10.5	16.1	21.4	13.2	13.4	8.3	3.6	5.0	5.37
30~39세	1.0	1.5	3.6	15.4	25.1	12.8	23.1	14.4	3.1	-	5.83	3.7	4.5	11.7	16.9	23.2	12.6	13.0	8.2	2.4	3.8	5.23
40~49세	-	0.9	9.0	18.4	27.8	11.3	15.1	9.4	6.1	1.9	5.65	3.5	4.9	13.2	17.6	24.1	13.0	9.7	7.7	2.5	3.7	5.11
50~59세	0.5	3.7	9.5	13.8	19.0	17.5	16.4	11.6	4.8	3.2	5.75	3.9	5.3	13.2	15.3	23.4	14.0	10.4	7.8	2.7	3.9	5.15
60~64세	-	-	6.9	15.3	23.6	13.9	16.7	15.3	5.6	2.8	5.98	4.3	5.6	10.9	15.4	26.5	11.7	11.1	7.5	2.9	4.1	5.18
65세 이상	0.7	1.8	7.6	13.7	23.8	13.0	19.9	11.6	4.3	3.6	5.85	3.4	3.8	11.1	15.8	25.5	15.1	10.9	8.4	2.9	3.1	5.26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11	-	-	-	-	-	-	-	-	-	-	0.15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2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3) OECD평균은 당해연도 WVS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④〉 40대의 사회적 위상: 한국, 독일

(단위: %)

구분	한국											독일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0.7	0.5	0.9	3.8	11.1	13.7	23.9	25.5	13.2	6.6	7.14	0.1	0.9	1.3	4.0	14.2	15.8	24.0	24.3	9.3	5.9	6.94
20세 미만	-	-	-	-	4.3	17.4	4.3	21.7	26.1	26.1	8.30	-	-	-	-	8.2	24.5	32.7	22.4	10.2	2.0	7.08
20~29세	1.6	-	-	2.1	7.3	11.0	22.0	29.8	16.8	9.4	7.51	-	0.3	1.4	3.4	19.7	14.6	26.1	20.3	9.5	4.7	6.84
30~39세	0.4	-	0.8	3.2	13.2	13.2	24.8	26.8	11.6	6.0	7.14	-	0.3	-	6.6	9.7	17.2	26.9	23.1	12.1	4.1	7.01
40~49세	0.4	-	1.6	6.8	12.8	14.8	28.8	2.4	11.6	2.8	6.82	-	1.3	1.5	2.6	11.0	19.1	24.0	24.0	9.9	6.6	7.02
50~59세	-	0.5	0.5	4.8	7.5	19.3	24.6	24.6	11.2	7.0	7.16	0.9	3.2	2.0	4.6	14.8	12.8	20.6	21.2	13.3	6.7	6.81
60~64세	3.5	-	-	4.7	12.8	8.1	17.4	30.2	17.4	5.8	7.15	-	0.7	0.7	3.9	18.3	11.8	26.8	26.1	5.2	6.5	6.92
65세 이상	-	4.8	2.9	-	15.2	11.4	21.9	24.8	11.4	7.6	6.94	-	-	1.7	4.0	15.2	15.6	21.6	29.7	5.4	6.9	6.97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48	-	-	-	-	-	-	-	-	-	-	0.09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4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⑤〉 40대의 사회적 위상: 미국, 일본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0.4	0.2	0.6	2.9	18.1	16.7	20.1	22.6	11.0	7.3	6.99	0.4	0.2	0.9	2.5	13.5	14.3	20.7	27.9	11.4	8.1	7.19
20세 미만	-	-	-	3.8	26.9	11.5	23.1	19.2	7.7	7.7	6.80	-	-	3.6	7.1	7.1	25.0	10.7	25.0	10.7	10.7	7.04
20~29세	0.2	0.2	1.0	3.3	17.9	16.2	18.1	21.5	13.6	7.9	7.05	0.8	-	0.8	1.7	15.1	13.4	21.4	27.7	12.2	6.7	7.15
30~39세	-	0.3	0.8	2.4	16.8	15.9	15.9	28.4	10.5	8.9	7.15	0.3	0.5	1.4	2.7	12.9	12.6	24.7	30.4	9.6	4.9	7.08
40~49세	0.8	-	0.6	3.0	18.6	16.1	23.0	23.0	8.3	6.6	6.90	0.8	-	0.5	3.0	15.1	16.7	22.6	28.3	7.5	5.4	6.97
50~59세	0.7	-	0.2	2.7	16.9	18.1	21.3	18.5	13.5	8.0	7.03	0.3	0.3	0.3	1.5	12.5	17.9	17.9	28.1	13.8	7.7	7.27
60~64세	1.1	1.1	1.1	2.7	18.9	16.2	15.7	22.7	11.4	9.2	6.97	-	-	0.4	3.3	14.4	12.3	20.2	28.0	11.5	9.9	7.28
65세 이상	-	-	0.6	3.1	18.7	17.9	24.3	22.9	8.7	3.9	6.85	0.4	0.4	1.3	2.3	12.8	11.7	18.8	25.8	13.6	12.8	7.37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12	-	-	-	-	-	-	-	-	-	-	0.14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4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⑥〉 40대의 사회적 위상: 스웨덴, OECD 평균

(단위: %)

구분	스웨덴											OECD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0.3	0.2	0.8	1.9	11.1	15.7	25.8	30.6	9.3	4.4	7.13	0.9	0.6	1.5	3.4	14.3	15.6	22.0	24.6	10.2	6.9	6.97
20세 미만	-	2.6	-	2.6	17.9	10.3	23.1	33.3	7.7	2.6	6.89	1.3	1.3	1.3	4.5	11.7	15.6	22.1	24.1	10.8	7.4	6.97
20~29세	1.6	0.5	2.1	1.6	7.9	18.8	25.1	25.1	8.9	8.4	7.07	1.2	0.7	1.8	3.3	14.5	14.8	21.6	23.6	10.8	7.8	6.97
30~39세	-	-	-	2.5	8.6	15.7	30.5	27.9	10.2	4.6	7.21	1.2	0.5	1.2	3.7	14.0	15.4	21.7	25.2	10.6	6.6	6.98
40~49세	-	-	1.4	1.9	11.3	19.8	25.5	29.7	7.1	3.3	6.99	1.0	0.7	1.7	3.9	14.2	16.5	22.3	23.8	9.6	6.3	6.89
50~59세	-	-	-	2.1	15.3	13.8	24.9	32.3	9.5	2.1	7.07	0.8	0.7	1.5	3.3	14.1	16.8	20.9	23.6	11.6	6.7	6.98
60~64세	-	-	-	2.8	14.1	9.9	19.7	35.2	16.9	1.4	7.27	8.1	6.3	5.2	7.3	8.7	7.2	7.6	7.8	7.2	8.2	6.98
65세 이상	-	-	0.7	1.1	10.5	14.1	25.6	34.3	8.7	5.1	7.25	6.6	10.9	18.7	14.0	18.2	17.6	19.3	19.8	15.7	17.9	7.03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13	-	-	-	-	-	-	-	-	-	-	0.04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4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3) OECD평균은 당해연도 WVS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⑦〉 70대의 사회적 위상: 한국, 독일

(단위: %)

구분	한국											독일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11.9	14.7	15.8	11.8	14.4	10.1	8.6	7.4	3.3	2.2	4.38	1.3	4.7	7.4	10.9	18.3	15.0	14.9	15.5	6.1	5.8	5.99
20세 미만	20.0	30.0	15.0	10.0	-	15.0	5.0	5.0	-	-	3.21	-	-	2.1	8.3	12.5	18.5	12.5	12.5	20.8	12.5	7.05
20~29세	11.0	19.3	17.1	13.8	12.7	11.0	7.2	5.0	2.2	0.6	4.01	0.7	4.8	7.5	14.3	23.9	13.3	17.4	11.9	3.1	3.1	5.66
30~39세	11.2	9.0	16.7	9.9	18.9	10.3	6.9	9.4	4.3	3.4	4.71	3.1	6.2	6.2	15.1	9.3	15.8	14.4	19.2	6.5	4.1	5.91
40~49세	9.3	13.1	13.1	16.5	15.7	14.4	8.9	5.5	3.0	0.4	4.42	0.5	3.6	3.6	8.7	20.7	17.3	16.8	12.2	8.4	8.2	6.33
50~59세	11.0	17.7	16.6	9.9	9.4	7.2	12.2	8.8	5.5	1.7	4.49	1.4	2.6	8.7	9.9	18.8	13.0	18.6	15.9	5.8	5.2	6.05
60~64세	14.3	16.7	15.5	6.0	17.9	2.4	9.5	10.7	2.4	4.8	4.43	0.7	3.9	15.7	13.1	17.0	9.8	13.1	11.8	9.2	5.9	5.80
65세 이상	18.3	12.8	16.5	10.1	12.8	8.3	8.3	6.4	0.9	5.5	4.22	1.7	6.9	8.1	8.3	19.0	16.5	10.4	19.2	3.8	6.3	5.89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49	-	-	-	-	-	-	-	-	-	-	0.45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7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⑧〉 70대의 사회적 위상: 미국, 일본

(단위: %)

구분	미국											일본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4.8	8.1	10.5	9.8	19.7	11.1	10.8	12.9	6.4	5.9	5.52	5.8	8.9	15.3	13.2	17.2	13.0	11.2	8.6	3.9	2.9	4.98
20세 미만	7.7	15.4	7.7	11.5	17.3	7.7	3.8	11.5	9.6	7.7	5.18	11.5	7.7	15.4	15.4	26.9	3.8	11.5	3.8	3.8	-	4.38
20~29세	5.0	5.8	12.2	11.0	24.0	8.6	9.8	12.0	7.2	4.3	5.41	6.8	12.3	16.5	14.0	14.8	11.9	5.9	8.9	3.8	5.1	4.80
30~39세	6.5	5.7	12.8	13.6	22.3	13.6	7.1	9.5	3.5	5.4	5.14	5.0	8.4	17.3	16.8	19.0	10.3	12.8	4.5	3.4	2.5	4.79
40~49세	4.1	6.1	11.0	13.8	17.4	9.7	13.3	14.4	4.4	5.8	5.55	4.4	10.0	14.7	14.4	16.6	15.5	10.8	8.3	3.6	1.7	4.93
50~59세	4.6	12.1	9.1	5.9	21.0	10.0	11.2	11.6	6.2	8.2	5.54	5.3	9.7	16.3	11.1	16.8	13.2	12.4	8.9	3.9	2.4	4.98
60~64세	7.7	7.7	9.8	6.0	15.3	15.3	10.4	11.5	9.3	7.1	5.63	6.7	11.3	13.3	12.1	16.3	12.1	10.0	11.3	4.6	2.5	4.98
65세 이상	2.0	9.8	7.8	7.0	15.1	12.6	14.0	18.2	8.9	4.7	5.96	6.6	5.0	13.8	11.4	17.8	14.5	12.4	10.5	4.1	3.9	5.27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26	-	-	-	-	-	-	-	-	-	-	0.27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7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부표 4-1-⑨〉 70대의 사회적 위상: 스웨덴, OECD 평균

(단위: %)

구분	스웨덴											OECD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전체인구	5.0	12.7	20.7	20.3	19.2	9.0	6.0	4.4	2.1	0.7	4.28	.6.1	8.4	12.5	12.1	17.5	11.6	10.6	9.7	5.3	6.1	5.27
20세 미만	7.5	10.0	17.5	20.0	22.5	12.5	7.5	2.5	-	-	4.35	6.8	8.7	8.9	13.2	16.9	11.2	10.2	8.4	6.5	9.2	5.44
20~29세	5.7	8.3	17.2	20.3	24.0	7.3	8.9	3.6	2.6	2.1	4.54	6.1	7.9	11.6	13.6	18.7	10.3	9.7	9.5	6.1	6.4	5.30
30~39세	8.3	15.5	26.4	21.2	14.5	7.8	5.2	0.5	0.5	-	3.68	6.2	8.1	13.6	13.2	17.0	11.8	10.2	8.5	5.0	6.3	5.20
40~49세	1.4	11.4	19.0	24.3	24.3	9.0	6.2	1.4	2.4	0.5	4.39	5.5	8.0	12.1	12.1	17.3	12.3	11.7	9.5	5.2	6.3	5.34
50~59세	3.8	9.7	26.9	22.0	17.7	7.5	4.3	4.3	3.2	0.5	4.26	5.9	9.3	13.3	11.4	17.4	10.9	11.2	9.6	5.0	6.0	5.22
60~64세	1.4	28.6	21.4	7.1	17.1	15.7	7.1	1.4	-	-	3.98	7.8	10.1	13.2	9.6	16.9	12.0	10.8	9.1	5.6	4.9	5.10
65세 이상	6.2	13.0	16.7	18.8	16.3	9.8	5.1	10.9	2.5	0.7	4.51	6.1	8.0	12.4	11.2	17.3	12.6	10.3	11.7	4.9	5.4	5.30
연령군별 사회적 위상격차	-	-	-	-	-	-	-	-	-	-	0.29	-	-	-	-	-	-	-	-	-	-	0.10

주: 1) "Social position : People in their 70s' 개별문항에 대한 비율
2) 1점 매우 낮다 ~ 10점 매우 높다의 점수분포를 나타냄.
3) OECD평균은 당해연도 WVS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VS(World Value Survey) 2014년도 원자료 분석

2. 연령별 실업률 시계열 분석 ([그림 5-13] 관련)

〈부표 4-2-①〉 연령별 실업률: 2000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4.4	4.0	4.8	7.7	5.8	6.2
15~24세	10.8	9.3	9.2	8.4	11.7	12.1
25~34세	5.0	3.7	5.6	6.7	5.7	6.7
35~44세	3.3	3.0	3.2	6.8	4.9	4.9
45~54세	3.4	2.5	3.3	7.7	4.3	4.4
55~64세	2.9	2.5	5.6	12.3	6.1	4.9
65세 이상	0.6	3.1	2.4	0.3	1.3	2.1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	3.29	2.42	2.26	3.63	3.13	3.14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표 4-2-②〉 연령별 실업률: 2004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3.7	5.5	4.7	10.3	6.5	6.9
15~24세	10.5	11.8	9.5	12.6	16.6	13.8
25~34세	4.9	5.5	5.7	9.9	7.3	7.5
35~44세	2.5	4.4	3.9	9.1	5.2	5.6
45~54세	2.3	3.8	3.3	10.4	4.0	5.1
55~64세	2.2	3.8	4.4	12.5	4.9	4.8
65세 이상	0.7	3.6	1.8	1.2	1.1	2.1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	3.21	2.91	2.40	3.99	4.85	3.66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표 4-2-③〉 연령별 실업률: 2008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3.2	5.8	4.0	7.5	6.2	6.0
15~24세	9.3	12.8	7.2	10.4	20.2	12.7
25~34세	4.8	5.9	5.3	8.0	5.6	6.6
35~44세	2.5	4.6	3.5	6.4	3.8	4.8
45~54세	2.0	4.1	2.9	6.8	3.7	4.3
55~64세	2.0	3.7	3.6	8.5	3.8	4.1
65세 이상	0.8	4.2	2.1	0.9	2.0	2.4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	2.88	3.19	1.69	3.01	6.20	3.33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표 4-2-④〉 연령별 실업률: 2012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3.2	8.1	4.3	5.4	8.0	8.0
15~24세	9.0	16.2	7.9	8.0	23.7	16.3
25~34세	4.7	8.3	5.4	6.0	8.0	9.1
35~44세	2.5	6.6	4.1	4.7	5.0	6.7
45~54세	1.9	6.2	3.4	4.5	5.0	6.0
55~64세	2.5	5.9	4.1	5.9	5.2	5.7
65세 이상	2.1	6.2	2.3	1.0	2.5	3.4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	2.58	3.65	1.79	2.16	7.08	4.14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3.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시계열 분석 ([그림 5-14] 관련)

〈부표 4-3-①〉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1995년

(단위: %)

구분	한국[2]	미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3]
전체 인구	6.2	27.5	7.6	6.7	8.8
20세 미만	-	13.0	1.9	3.7	6.5
20～29세	3.6	24.2	3.6	2.7	5.9
30～39세	5.3	30.7	7.2	4.7	8.1
40～49세	9.5	32.0	6.5	7.0	9.7
50～59세	9.6	26.5	9.6	8.1	9.6
60세 이상	5.1	25.9	12.7	10.6	12.5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의 차이	3.4	6.5	3.6	2.8	2.2

주: 1) 1995년 조사에서 일본은 제외되었음.
2)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WVS의 '인도적 자선단체 참여 비율'을 의미함.
3)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3(1995~1996), Wave5(2005~2006), Wave 6(2010~2012).

〈부표 4-3-②〉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2005년

(단위: %)

구분	한국[2]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3]
전체 인구	1.4	15.2	1.7	4.7	10.0	9.5
20세 미만	-	6.7	-	2.5	-	6.7
20～29세	1.6	9.7	-	0.8	11.5	6.5
30～39세	0.3	17.6	-	4.2	7.1	8.0
40～49세	0.4	17.3	-	3.7	6.9	9.7
50～59세	3.1	16.7	1.3	9.4	7.4	10.7
60세 이상	2.9	16.0	5.6	5.5	16.1	12.3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차이	1.2	4.4	2.1	2.7	5.2	2.2

주: 1)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WVS의 '인도적 자선단체 참여 비율'을 의미함.
2)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3(1995~1996), Wave5(2005~2006), Wave 6(2010~2012).

〈부표 4-3-③〉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2010년

(단위: %)

구분	한국[2)]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3)]
전체 인구	2.0	15.8	1.5	5.6	10.9	7.1
20세 미만	-	15.1	-	5.6	2.3	6.5
20~29세	0.9	8.8	1.5	2.7	4.5	5.7
30~39세	3.0	13.7	0.7	4.4	13.5	5.9
40~49세	2.5	13.8	0.5	4.0	10.3	7.0
50~59세	2.5	17.8	1.8	8.6	11.5	8.4
60세 이상	1.5	22.3	2.2	6.7	14.2	8.3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차이	1.1	4.2	0.9	1.9	4.7	1.1

주: 1)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WVS의 '인도적 자선단체 참여 비율'을 의미함.
2) WVS 당해연도 조사에 참여한 52개국 중, OECD 회원국(1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일본, 칠레, 터키, 폴란드, 한국, 호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3(1995~1996), Wave5(2005~2006), Wave 6(2010~2012).

4. 연령별 미치료율의 시계열 분석 ([그림 5-15] 관련)

〈부표 4-4-①〉 연령별 미치료율: 2007년

(단위: %)

구분	한국	구분	독일2)	스웨덴2)	EU (EU-28)
전체 인구	22.4	전체 인구	9.0	14.5	6.9
19~29세	25.3	16~24세	6.8	15.4	4.4
30~39세	23.3	25~34세	15.1	16.6	7.1
40~49세	21.0	35~44세	13.2	16.7	7.6
50~59세	22.9	45~54세	9.9	16.0	8.1
60~64세	18.9	55~64세	6.7	15.3	7.4
65세 이상	19.6	65세이상	3.5	8.8	6.4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2.3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4.0	2.8	1.2

주: 1)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데이터 재분석
2) 독일, 스웨덴, EU(EU 28개국 분석대상)의 경우 'Euro Stat' 원데이터 중 'Unmet needs for medical care' 변수에 대하여 재분석함. 원데이터에서 제공가능한 10세단위 연령군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의 6개군)에 따라 파악함.
자료: 1) 한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7).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EU : Euro Stat(http://appsso.eurostat.europa.eu) 2015.10.23. 반출

〈부표 4-4-②〉 연령별 미치료율: 2009년

(단위: %)

구분	한국	구분	독일2)	스웨덴2)	EU (EU-28)
전체 인구	23.6	전체 인구	6.6	12.1	6.7
19~29세	26.4	16~24세	3.5	14.2	3.9
30~39세	25.4	25~34세	6.8	13.8	6.5
40~49세	21.0	35~44세	7.0	14.3	7.2
50~59세	23.9	45~54세	6.6	14.4	7.6
60~64세	18.5	55~64세	7.7	11.7	7.6
65세 이상	23.0	65세이상	6.4	7.0	7.1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2.7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1.4	2.7	1.3

주: 1)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데이터 재분석
2) 독일, 스웨덴, EU(EU 28개국 분석대상)의 경우 'Euro Stat' 원데이터 중 'Unmet needs for medical care' 변수에 대하여 재분석함. 원데이터에서 제공가능한 10세단위 연령군 (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의 6개군)에 따라 파악함.
자료: 1) 한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09).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EU : Euro Stat(http://appsso.eurostat.europa.eu) 2015.10.23. 반출

〈부표 4-4-③〉 연령별 미치료율: 2011년

(단위: %)

구분	한국	구분	독일[2)]	스웨덴[2)]	EU (EU-28)
전체 인구	18.7	전체 인구	6.6	11.7	6.8
19~29세	21.7	16~24세	2.2	12.3	3.6
30~39세	19.1	25~34세	5.2	12.2	5.5
40~49세	15.4	35~44세	7.1	13.6	7.0
50~59세	17.5	45~54세	7.5	16.6	7.4
60~64세	17.8	55~64세	7.3	10.9	7.5
65세 이상	20.8	65세이상	7.4	6.9	7.7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2.1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2.0	2.9	1.5

주: 1)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데이터 재분석
2) 독일, 스웨덴, EU(EU 28개국 분석대상)의 경우 'Euro Stat' 원데이터 중 'Unmet needs for medical care' 변수에 대하여 재분석함. 원데이터에서 제공가능한 10세단위 연령군(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6개군)에 따라 파악함.

자료: 1) 한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EU : Euro Stat(http://appsso.eurostat.europa.eu) 2015.10.23. 반출

〈부표 4-4-④〉 연령별 미치료율: 2013년

(단위: %)

구분	한국	구분	독일[2)]	스웨덴[2)]	EU-28	구분	미국[3)]
전체 인구	13.2	전체 인구	6.0	13.6	6.9	전체 인구	14.3
19~29세	12.4	16~24세	2.6	18.2	3.6	12세이하	4.0
30~39세	11.6	25~34세	5.6	18.0	6.2	12~17세	5.3
40~49세	10.9	35~44세	6.5	15.4	7.2	18~44세	19.7
50~59세	13.2	45~54세	7.2	16.9	8.0	45~64세	21.7
60~64세	13.2	55~64세	7.3	12.2	8.0	65세 이상	5.9
65세 이상	16.7	65세이상	6.0	6.5	7.4	-	-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1.9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1.6	4.2	1.5	연령별 미치료율의 차이	8.3

주: 1)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데이터 재분석
2) 독일, 스웨덴, EU(EU 28개국 분석대상)의 경우 'Euro Stat' 원데이터 중 'Unmet needs for medical care' 변수에 대하여 재분석함. 원데이터에서 제공가능한 10세단위 연령군(16~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의 6개군)에 따라 파악함.
3) 미국 :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의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중 'During the past 12 months, was there any time when needed medical care, but did not get it because couldn't afford it?(Excludes dental care)'와 'During the past 12 months, has delayed seeking medical care because or worry about cost(Excludes dental care)?' 두 문항에 대한 합계임. 단, 타 국가와 달리 치과치료가 포함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미치료 케이스만 포함됨에 따라 단년도에 대한 분석만 실시함.

자료: 1) 한국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 독일·스웨덴·EU : Euro Stat(http://appsso.eurostat.europa.eu) 2015.09.23. 반출
3) 미국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s(2012).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Population :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2.

5. 연령별 교육 수준 시계열 분석([그림 5-16] 관련)

〈부표 4-5-①〉 연령별 교육 수준(중졸 이상 비율): 2009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25~64세)	80	89	85	86	73
25~34세	98	88	86	91	81
35~44세	94	88	87	91	77
45~54세	71	89	86	85	71
55~64세	43	89	83	76	61
연령별 교육 수준의 차이	22.2	0.7	1.6	6.1	7.5

주: 1) OECD 교육지표 중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의 비율을 살펴봄. 'upper secondary education'은 ISCED의 정의와 같이 중등교육 혹은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한 중등교육 과정을 의미함.
2) OECD(2011)년 발간자료를 참조하였으나, 실제 통계는 2009년 집계수치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부표 4-5-②〉 연령별 교육 수준(중졸 이상 비율): 2010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25~64세)	80	89	86	87	74
25~34세	98	88	86	91	82
35~44세	95	88	87	91	78
45~54세	73	90	86	87	72
55~64세	43	90	83	77	62
연령별 교육 수준의 차이	22.2	1.0	1.6	5.7	7.5

주: 1) OECD 교육지표 중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의 비율을 살펴봄. 'upper secondary education'은 ISCED의 정의와 같이 중등교육 혹은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한 중등교육 과정을 의미함.
2) OECD(2012)년 발간자료를 참조하였으나, 실제 통계는 2010년 집계수치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부표 4-5-③〉 연령별 교육 수준(중졸 이상 비율): 2011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25∼64세)	81	89	86	87	75
25∼34세	98	89	87	91	82
35∼44세	96	89	87	91	78
45∼54세	75	89	87	87	73
55∼64세	45	90	84	78	64
연령별 교육 수준의 차이	21.5	0.5	1.3	5.3	6.8

주: 1) OECD 교육지표 중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의 비율을 살펴봄. 'upper secondary education'은 ISCED의 정의와 같이 중등교육 혹은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한 중등교육 과정을 의미함.
2) OECD(2013)년 발간자료를 참조하였으나, 실제 통계는 2011년 집계수치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부표 4-5-④〉 연령별 교육 수준(중졸 이상 비율): 2012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전체 인구 (25∼64세)	82	89	86	88	75
25∼34세	98	89	87	91	82
35∼44세	96	89	87	92	79
45∼54세	78	89	87	88	73
55∼64세	48	90	84	79	64
연령별 교육 수준의 차이	20.1	0.5	1.3	5.1	6.9

주: 1) OECD 교육지표 중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의 비율을 살펴봄. 'upper secondary education'은 ISCED의 정의와 같이 중등교육 혹은 취업과 직결되는 직업훈련 등을 준비하기 위한 중등교육 과정을 의미함.
2) OECD(2014)년 발간자료를 참조하였으나, 실제 통계는 2012년 집계수치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6. 연령별 빈곤율 시계열 분석([그림 5-17] 관련)

〈부표 4-6-①〉 연령별 빈곤율: 2004년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1]	스웨덴	OECD 평균[2]
전체 인구	-	-	8.3	14.9	5.3	11.0
0～17세	-	-	10.0	13.7	0.4	13.4
18～25세	-	-	13.5	16.1	14.7	12.1
26～40세	-	-	8.1	10.7	5.6	9.2
41～50세	-	-	5.3	10.9	3.9	8.5
51～65세	-	-	6.9	13.2	2.3	9.4
66～75세	-	-	6.7	19.4	3.4	11.2
76세 이상	-	-	10.9	25.4	9.8	15.8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	-	-	2.68	4.93	4.59	2.45

주: 1) 일본은 2003년 기준임.
2) OECD평균은 빈곤율이 제공된 24개국의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표 4-6-②〉 연령별 빈곤율: 2006년

(단위: %)

구분	한국[1]	미국[2]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3]
전체 인구	14.3	17.0	15.7	-	-	10.6
0～17세	10.6	20.6	14.2	-	-	12.2
18～25세	8.9	20.4	17.4	-	-	11.7
26～40세	8.7	14.3	12.0	-	-	8.7
41～50세	9.3	11.7	11.1	-	-	8.4
51～65세	17.9	13.1	14.6	-	-	9.5
66～75세	42.3	20.7	19.4	-	-	12.4
76세 이상	-	27.7	24.5	-	-	15.6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	12.22	5.39	4.35	-	-	2.44

주: 1) 한국은 66세~75세가 아닌 66세 이상을 의미함.
2) 미국은 2005년 기준임.
3) OECD평균은 빈곤율이 제공된 22개국의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표 4-6-③〉 연령별 빈곤율: 2008년

(단위: %)

구분	한국[1)]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OECD 평균[2)]
전체 인구	15.2	17.3	-	8.5	8.4	10.8
0~17세	10.4	21.6	-	7.9	7.0	12.4
18~25세	11.8	20.2	-	14.2	17.5	12.8
26~40세	7.6	14.6	-	8.0	8.7	9.0
41~50세	10.5	12.9	-	5.5	6.0	8.2
51~65세	18.1	13.2	-	7.7	4.7	9.2
66~75세	43.8	18.9	-	8.1	5.9	12.5
76세 이상	-	26.3	-	13.0	15.1	16.2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	12.52	4.69	-	3.00	4.71	2.70

주: 1) 한국은 66세~75세가 아닌 66세 이상을 의미함.
2) OECD평균은 빈곤율이 제공된 29개국의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표 4-6-④〉 연령별 빈곤율: 2010년

(단위: %)

구분	한국[1)]	미국	일본[2)]	독일	스웨덴	OECD 평균[3)]
전체 인구	14.9	17.4	16.0	8.8	9.1	11.2
0~17세	9.4	21.2	15.7	9.1	8.2	13.1
18~25세	9.8	22.1	18.7	12.2	19.5	14.0
26~40세	7.9	14.7	12.7	8.2	10.2	10.0
41~50세	9.4	13.4	13.2	5.4	5.7	8.9
51~65세	18.3	13.7	15.1	8.8	5.5	9.4
66~75세	44.9	16.4	16.6	8.5	6.3	11.1
76세 이상	-	24.3	22.8	13.3	14.2	14.0
연령별 빈곤율의 차이	13.21	4.18	3.24	2.50	4.91	2.04

주: 1) 한국은 66세~75세가 아닌 66세 이상을 의미함.
2) 일본은 2009년 기준임.
3) OECD평균은 빈곤율이 제공된 31개국의 결과임.
자료: OECD database(http://stats.oecd.org)에서 2015년 9월 30일자 반출

부록 5. 개별지표 정의 (영문)

The Age Integration Indicator System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population aging wit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ly for older people because the effects of aging on our society are multi-dimens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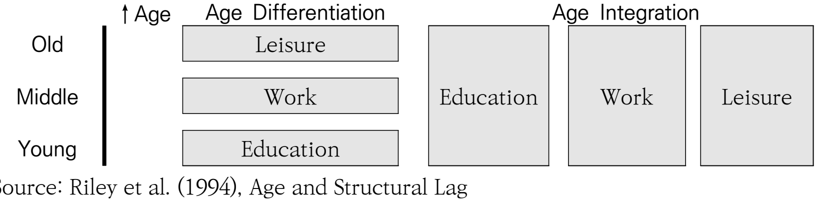
○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changes in the appropriate composition principles that not only concern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but can also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have 'elective affinity' should be pursued.

– In this context,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may be considered as the results of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 However, the society model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pursue has not been clearly presented.

○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n indicator system that enables the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level of age integration of the Korean society while presenting the age-integrated society as the model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pursue to create sustainability even in the process of the aging of the Korean society, and to maintain the high quality of life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Figure 1. Ideal Type of Social Structure



Source: Riley et al. (1994), Age and Structural Lag

Age-Integrated Society	Age-Differentiated Society
The social system that enables the members of the society t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education, work, family time, and leisure, during their lifetime, without limitations defined by age	The strict system that differentiates the activities related to education, work, and leisure according to the age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 Each society may be at a certain point along the continuum between an age-differentiated society and an age-integrated society. That is, the level of age integration of a certain country may be found at a certain point in that continuum.

– That is, a certain society may have a more age-integrated nature while another society may have a more age-differentiated nature.

– Therefore, beyond staying on the discourse on age integration, an indicator system for empirically verifying the level of age integration of a society needs to be developed.

II. Composition of the Age Integration Indicator System

Components	Domain	Measurement Targets	Indicator
Age Flexibility 【Seven items】 • Contents - Is it a society without institutional entry barriers due to age? • Domains: - Domains where age flexibility is reflected in the major activities related to education, employment, and	1. Education	Amount of opportunities in education according to age	1-1. Rate of enrollmen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age group
		Amount of opportunities in lifelong education for diverse age groups	1-2.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by age group
	2. Employment	Degree of limitation in th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by age group	1-3. Unemployment rate by age group
		Degree of limitation in the opportunities for stable employment by age group	1-4. Stable employment rate by age group

Components	Domain	Measurement Targets	Indicator
social participation	3. Social Participation	Age universality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Or the degree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leans towards certain age groups)	1-5. Rat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by age group
		Age universality of the participation in politics (Or the degree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leans towards certain age groups)	1-6. Rate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age group
		Age universality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by age group (Or the degree that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leans towards certain age groups)	1-7. R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by age group
Age Diversity 【Six items】 • Contents -Is it a society where interactions happen among divers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and respect for diverse age groups? • Domains Domains where individuals are surrounded, such as the family, workplace, and community, were	1. Family	Whether the interactions among diverse age groups can happen within the family structure	2-1. Intergenerational Transfer
		The degree of interactions among family members of diverse age groups	2-2. Length of time that the family members spend together
	2. Workplace	The chances that interactions can happen among the employees of diverse age groups	2-3. Age structure of the employees of companies
	3. Commu-nity	Physical basis for the interactions among age groups (When there are no limitations in mobility and activity due to physical factors, interactions among diverse age groups can happen.)	2-4.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Components	Domain	Measurement Targets	Indicator
determined. -As to the domain of community,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and cultural foundations that are related with the activation of interactions among social members.		Cultural basis for the interactions among age groups (When all age groups can have the same social status, interactions among diverse age groups can happen.)	2-5. Disparity among the social statuses of age groups
		Social integration of diverse age groups (Whether the community members recognize diverse age groups as their fellow community members)	2-6. Rate that people from diverse age groups are recognized as community members
Age Equality 【Seven items】 • Contents -Is it a society whose members can maintain their basic quality of life regardless of age? • Domains - Domains where the basic quality of life should be guaranteed in all the age groups were determined.	1. Health	Degree of disparity in physical activities by age group (Chronic diseases that are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physical health were excluded because their experience rate increases along with the physical changes associated with aging.)	3-1. Disparity in physical activities by age group
		Degree of disparity in mental health by age group	3-2. Disparity in the rate of experience of symptoms of depression by age group
		Degree of disparity in th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by age group	3-3. Rate of untreated people by age group
	2. Education and Informatization	Degree of disparity in the level of human capital by age group	3-4. Disparity in education level by age group
		Degree of digital divide by age group	3-5. Disparity in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by age group

Components	Domain	Measurement Targets	Indicator
	3. Income and Housing	Disparity in securing the minimum economic resources by age group	3-6. Disparity in poverty rate by age group
		Disparity in securing the housing baseline by age group	3-7. Disparity in the rate of people below the housing baseline by age group

Ⅲ. Description of Each Indicator

1. Age Flexibility

A. Education

☐ 1-1. Rate of enrollmen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rate of enrollment in formal education institutions was used as an indicator of the accessibility of opportunities for education by age group. This indicator is used for measuring the degree to which age does not become a barrier to education and to entry into the formal education system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people flexibly. As the context for this, it may be considered that educational policy can intervene to address the inequality of education by age group.

– OECD has published its member countries' ranks in terms of access to education as one of the education indicators[36].

36) The OECD education indicators include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formal and non-formal education, the rate of expenditure for non-formal education, and enrollment rate by age group between 24 and 64.

○ Definition

– The ratio of the rate of enrollment i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age group[37] to the rate of enrollment in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 1-2.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by age group

○ Background

– Lifelong education refers to the education that is given during one's lifetime, which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age and society.

– This indicator reflects the degree to which age does not become a barrier to access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so as to meet the learning needs of individuals.

–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career development and self-development via lifelong education, including formal education, was looked into. Whether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or whether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is not related with the age group will be explored.

– Internationally,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is also included as the indicator in the ANNEX A.3 (independent and secure living) of AAI(Active Ageing Indicators) by UN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 Definition

– Ratio of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by age group to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entire population

– R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Percentage of people in each age group who stated that they received education or training in the four weeks preceding the survey[38]

37) With no mention of how to divide age groups, every indicator will be measured in six age groups: 10s, 20s, 30s, 40s, 50s, and 60 and over.

38) Survey question: Did you attend any course, seminar, or conference or received private lessons or instructions within or outside the regular education system, within the last 4 weeks? (Answers: 1 Yes / 2 No) (aged 55 to 74: EU-LFS)

B. Employment

□ 1-3. Unemployment rate by age group

○ Background

- When people cannot get jobs in spite of their intention and ability to work, they may struggle to continue living due to the loss of earned income, and may experience a decrease in th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herefore, people who have the intention and ability to work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work regardless of age.
- The age groups were set by 10 years from the 20s (20s, 30s, 40s, 50s, and 60 and over) because the age when young people begin to work is 23.5 years old(as of 2013[39]).

○ Definition

- Ratio of unemployment rate by age group to the rate of unemployment rate of entire population
- The unemployment rate refers to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active people who are unemployed despite their four-week job search, but who can work when they are given jobs according to the OECD standard (one-week job search according to the ILO standard).

□ 1-4. Stable employment rate by age group

○ Background

- It is critical for a stable life that a person secure opportunities to work stably from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e employment status of employees can be a significant indicator of job stability.
- The employment status of employees refers to the types of employment of employees, and their positions. There are six types: self-employed (employers) with employees, self-employed (owner) without employees, unpaid family employee, full-time employee, temporary employee, and daily employed worker.

39)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rom School to the Workplace: Phased Measures for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April 15, 2014.

- Employees, except full-time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tend to have a lower income (or unpaid, such as unpaid family employees) and greater employment insecurity. Whether there is age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e opportunities for stabl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may be indirectly found by comparing the employment status types of the different age groups.

○ Definition

- Ratio of percentage of full-time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by age group to percentage of full-time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among all the employed
- The composition rate of full-time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refers to the percentage of full-time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among the six types of employments: self-employed (employers) with employees, self-employed (owner) without employees, unpaid family employee, full-time employee, temporary employee, and daily employed worker.

C. Social Participation [40)]

☐ 1-5. Rat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by age group

○ Background

- Volunteer work, among other activities of social participation, is very significant. Volunteer work can enable people to ascertain their identity as social beings and to keep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community, and can be a base for other activities.
-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whether all the age groups generally participate in volunteer work or only certain age groups do.

○ Definition

- Ratio of rat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by age group to rate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of the entire population

40) Because social participation is done voluntarily by individual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rticipation in education or labor market, the indicator was developed focusing on its results rather than its opportunities.

☐ 1-6. Rate of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age group

○ Background

- Voting is a basic right and duty of all the members of a society.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government by voting.
- In the midst of rapid aging, the manifestation of the will of political groups, which is the basi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regard to significant policies and systems, can be considered an act of social participation.
-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oter participation rate by age group because voting can be regarded as a form of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 Definition

- Ratio of voter turnout by age group to voter turnout of the entire population

☐ 1-7. R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by age group

○ Background

-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play a great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heighten individual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nd enable them to enjoy a harmonious life with th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 The r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e and arts activities and sports, which may need a relatively more active attitude, can be measured to understand the st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 Definition

- Ratio of r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e, arts, and sports programs by age group to rate of participation in culture, arts, and sports program by the entire population

2. Age Diversity

A. Family

☐ 2-1. Intergenerational Transfer

○ Background

－ If families exchange various resources such as economic, instrumental, and emotional help, the family can be the basic unit that allows various generations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 Definition

－ The percentage of families exchange intergenerational help

☐ 2-2. Length of time that family members spend together

○ Background

－ The interactions among various age groups can be understood by measuring how much time family members (parents, children, and grandchildren) spend together in one day (24 hours).

○ Definition

－ Ratio of the average length of time that parents, children, and grandchildren spend time together in one day (24 hours) by age group to the average length of time that family members spend together in the entire population

－ In South Korea, Time Use Research was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and in the U.S., American Multinational Time Use Survey (AMTUS) was carried out.

－ In Germany, 2002/2003 German Time Use Study was conducted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 (HETUS)). Furthermore, the research on Family Interactions/ Parental Time and Leisure, including childcare, child raising allowances, balancing family and work, education, and other aspects of individual living conditions, was conducted by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www.bmfsfj.de) in 2006 (Time Use and Time Budgets 2009)

B. Workplace

☐ 2-3. Age structure of the employees of companies

○ Background

– As the workplace is one of the places where people spend a lot of time, the colleagues as the close human network are considered significant.

– A significant amount of work is done at the workplace through frequent communications among many departments or within a department. In particular, the ages of the employees can be an important indicator of an age-integrated society due to the unique Korean-style custom of having get-togethers during lunch or dinnertime in the Korean society.

–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desirable age composition for the workplace. The inter- or intra-age group interactions can be understood by finding the component ratio of the young and older people in the 20s and 60s, respectively, to the key working-age group based on the division of the age groups into young people in the 20s, the key working-age group in the 30s to 50s, and older people in the 60s[41].

– According to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Statistics Korea, in the composition of South Korea's 2014 population, the people in the 20s accounted for 13.4%; those in the 30s to 50s, 48.1%; and those 60 or over, 17.7%. Therefore, the component ratio of the people in the 20s and 60s to the people in the 30s to 50s was 64.8%[42], which is expected to be different from the component ratio of the population in the workplace.

○ Definition

– Component ratio of the people in the 20s and 60s to the people in the 30s to 50s in the companies with 30 or more employees

– The age structure of the employees of companies can be

41) Young people in the 20s and older people in the 60s can be considered relatively more vulnerable people in the labor market than the people between the 30s and the 50s.

42) $\frac{(13.4+17.7)}{48.1} \times 100$

examined via Korea Labor Institute's Corporate Panel Survey data for companies with 30 or more employees.

C. Community

☐ 2-4.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 Background

– The physical foundation should be prepared for interactions among age groups to happen, for the healthy and happy cultural life of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 Definition

– Percentage of people aged 50+ who provided a positive responses to the survey question: "In the city or area where you live, are you satisfied or dissatisfied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 2-5. Disparity among the social statuses of age groups

○ Background

– An age-integrated culture should be formed to enable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to enjoy a healthy and happy cultural life. If the social statuses of the different age groups are very different, interactions among various age groups cannot easily happen.

– The World Value Survey included items on the social status of people in the 20s, 40s, and 70s, which can be considered the representative age groups of each life stage. Based on the data from the said survey, the relative social status of each age group can be examined.

– If the disparity in social status by age group is great, it is difficult for interactions among various age groups to happen.

○ Definition

– The disparity in the social statuses of the people in the 20s, 40s, and 70s

☐ 2-6. Rate at which people from diverse age groups are recognized as community members

○ Background

- An age-integrated culture should be formed to enable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to enjoy a healthy and happy cultural life. Whether different age groups can understand one another's characteristics and cultures and whether they can cooperate with one another have been determined.
- The rates of how much young people and older people are recognized as the community members were compared by age group.

○ Definition

- The rate of people who see people in the 20s and 70s as age groups within the same community
- In the European Social Survey, the respondents were asked how they saw people in the 20s and people aged over 70. These were their answers: (1) I see people in the 20s and 70s as belonging to one group; (2) I see people in the 20s and 70s as two separate groups within the same community; (3) I see people in the 20s and 70s as two separate groups that are not part of the same community; and (4) I see people in the 20s and 70s as individuals rather than groups.

3. Age Equality

A. Health

☐ 3-1. Disparity in physical activities by age group

○ Background

- Health behaviors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heightening of the quality of life by increasing the length of time that people can live a healthy life as well as maintaining and improving people's health.
-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y age group in the number of

people who regularly exercise, which is important among the different health behaviors regardless of the age group, was determined.

- As high medical costs may be incurred or the health conditions may deteriorate unless diseases are prevented, health promotion behavior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have been emphasized.
- At the government level,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healthcare expenditure may harm the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finances.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mand continuous and diverse efforts to improve the health of every age group.

○ Definition

-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who exercise by age group to the number of people who exercise in the entire population
- The number of people who exercise can be found by measuring how many times people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or how much time they devote to such: (1) 7 days a week of vigorous-intensity activity for at least 20 minutes per day (more than 10 minutes at a time); (2) 3 days a week of moderate-intensity activity for at least 30 minutes per day (more than 10 minutes at a time); and (3) 5 days a week of walking for at least 30 minutes per day (more than 10 minutes at a time).

□ 3-2. Disparity in the rate of experience of symptoms of depression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include socio-demographic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health-related factors, etc.
- Particularly the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ll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 Given the rapid increase of the suicide rate in South Korea, new light needs to be shed on the rate of experience of depression,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suicide rate.

-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from age groups should be examined, given the situation that the experience rate of depression tends to increase as people get older, due to the changes in the body associated with aging, and to social isolation.

○ Definition

- Ratio of the rate of experience of depression by age group to the rate of experience of depression in the entire population
- The data regarding the rate of experience of depression by age group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Health Behavior Survey were used. The respondents who gave an affirmative answer to the question "Have you ever felt a degree of sadness or despair recently that affected your daily life negatively for over two weeks within one year?" were regarded as having experienced depression.

□ 3-3. Rate of untreated people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rate of untreated people refers to the state where people do not get treated medically even though they should get treated, and is related with health inequality.
- The inequality in th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 may cause health problems and may harm people’s future health conditions.
-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ate of untreated people by age group can be determined in the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the guarantee of healthcare services.

○ Definition

- Ratio of the yearly rate of untreated people by age group to the yearly rate of untreated people in the entire population
- The rate of untreated people can be figured out by measuring the number of people in the past year who could not visit a hospital (excluding dental clinics) even though they wanted to do so.

B. Education and Informatization

☐ 3-4. Disparity in the education level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educational attainment rates by age group can be compared, and the rate of exclusion from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level rates by age group can be figured out.

– The educational levels may be regarded as resulting from the amount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the people have had, and reveal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People can attain what they want to attain and find self-fulfillment through education.

– Global Age Watch (GAW) compared the educational levels of older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by ranking them.

• For reference, in the EU's social exclusion indicator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the rate of early formal or vocational training school leaving and the number of people with only primary or lower secondary education were measured.

– Global Age Watch (GAW) deals with the educational level of older people in the domain of 'Capability'.[43] GAW has used the data from World Bank,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Barro and Lee, and Gallup.

○ Definition

– Educational attainment rate by age group in each stage of education (i.e., elementary,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o educational attainment rate of the entire population in each stage of education

☐ 3-5. Disparity in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by age group can be figured out and

43) Domain 3: Capability: The employment and education indicators in this domain look into different aspects of the empowerment of older people (GAW).

compared in the aspects of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nd capability to utilize information

- In today's information-oriented age, the disparity in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may spell a difference in the starting point of life.
- In South Korea, an information divide index has been developed, and a survey on the information divide has been conducted.

○ Definition

- Ratio of the levels of informatization by age group to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the entire population

C. Income and Housing

☐ 3-6. Disparity in the poverty rate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poverty line is the minimum economic standard or level guaranteeing a dignified quality of life, which is equally applied to all age groups. For the realization of an age-integrated society, a certain amount of income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the economic activity of individuals (earned income, assets income) or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public transfer).
- The state of poverty can be understood based on absolute or relative standards. While the rate of absolute poverty may decrease as the general standard of living in the society rises, relative poverty may not be easily resolved because it can be def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social convention and the standard of living. As the society develops, relative poverty has been focused on more than absolute poverty.
-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relative poverty rate was employed, and it was calculated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to find out the poverty rate that is deemed as the minimally adequate economic level in the society (income lower than 50% of the median income[44]).

44) In the OECD countries, as the standard of the poverty rate, an income

- The indicators of the poverty rate can be drawn from the Household Survey and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by Statistics Korea, the Poverty Statistics Yearbook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LIS).
- The concept of disposable income was used for the income criteria to identify whether the income is guaranteed for the consumption expenditure for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The poverty rate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can be used for comparison among countries. Disposable income refers to the amount of money that is left when the non-living expenditure is deducted from the ordinary income. The ordinary income is the total amount of money including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 As to the range of age groups that are going to be compared, the poverty rate was measured in the age groups by 10 years between the 20s and 70s considering the working age, because earned income greatly account for the entire income in general.

○ Definition

- Ratio of the relative poverty rate by age group to the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ntire population

□ 3-7. Disparity in the number of people below the housing baseline by age group

○ Background

- The housing baseline can be used to identify the quality of housing in terms of various aspects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by the Housing Act), including area, waterproofing, housing tenure status, residential environment, etc.

○ Definition

- Ratio of the number of people with lower-than-the-minimum-standard housing by age group to the number of people with

lower than 50% of the median income has been generally used, but in EU, an income lower than 60% of the median income has been used.

lower-than-the-minimum-standard housing in the entire population

- Ratio of the number of older people living in lower-than-the-minimum-standard houses to the number of older people living in lower-than-the-minimum-standard houses in the entire older population (The standards pursuant to the Housing Act as amended on May 27, 2011 were applied.)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0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5-0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오영호
연구 2015-0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김대중
연구 2015-0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김동진
연구 2015-05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강희정
연구 2015-0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정영호
연구 2015-07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최정수
연구 2015-08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강신욱
연구 2015-0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Joned-up Services)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박세경
연구 2015-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 사 간 부양분담방안	김유경
연구 2015-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현주
연구 2015-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프랑스&미국 편	임완섭
연구 2015-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해식
연구 2015-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김현경
연구 2015-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고제이
연구 2015-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유근춘
연구 2015-17	공·사적 연금 체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발전 방향	우해봉
연구 2015-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신화연
연구 2015-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경환
연구 2015-20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정홍원
연구 2015-21-01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이삼식
연구 2015-21-02	임신·출산 및 영아기 양육 인프라의 형평성과 정책과제	이소영
연구 2015-21-03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신윤정
연구 2015-21-04	여성노동-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과제	박종서
연구 2015-21-05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Ⅲ)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오영희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5-21-06	은퇴전환기 중고령자의 일·여가현황과 여가증진방안 연구	강은나
연구 2015-21-07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선우덕
연구 2015-21-08	연령통합 지표 개발과 적용	정경희
연구 2015-21-09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원종욱
연구 2015-21-10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류정희
연구 2015-21-11	소셜 빅데이터 기반 저출산 정책 수요 예측	송태민
연구 2015-22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이상영
연구 2015-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김정선
연구 2015-2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여유진
연구 2015-2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Ⅱ: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여유진/정해식
연구 2015-26	정책결정자의 사회통합 인식에 관한 연구	김미곤
연구 2015-27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5-28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강혜규
연구 2015-29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5-30-1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김미숙
연구 2015-30-2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전략 구축방안	김정선
연구 2015-3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이삼식
연구 2015-32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의 복지실태	노대명
연구 2015-33	2013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이수형
연구 2015-34	2015년 빈곤통계연보	정은희
연구 2015-35	2015년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송태민
연구 2015-36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보장체계의 지속성을 위한 국제동향과 정책과제	박실비아
연구 2015-37	보건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주요국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 변화와 동향연구	김대중